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2월 14일(음력 11월 13일) 수요일 (주간) 제 556 호

배후 수사하라

종단협 · '…재가불자들의 모임' PD수첩에 의혹제기

MBC 최대주주 소속 이사 · PD 등 종교에 주목

11월 12일 미국 피츠버그대 새튼 교수가 황우석 교수와의 연구 파트너십을 정리하겠다고 선언하고, 22일 PD수첩이 방영되면서 불교계 안팎에서 "PD수첩과 그 배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우석 교수를 위한 한국재가불자들의 모임'(이하 재가모임)은 12월 6일 동산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이 벌인 일은 국가의 미래 산업을 파괴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국민의 권리를 유린한 반국가적 반인류적인 행위"라며 전면적인 수사를 주장했다.

재가모임이 이와 같이 PD수첩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바로 이번 파문이 PD수첩만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이사장은 "수사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의 배후에 특정 종교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라며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또 "가톨릭 모 신부가 황 교수 지원 중단을 주장하고, 일부 종교인들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파괴 행위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 김진관 회장도 "이번 대국민 기만극에 대해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의적으로 자행된 기획 취재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 이사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PD수첩과 황우석 교수팀 간의 줄기세포 검증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천주교 인권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김형태 변호사는 12월 6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PD수첩 취재내용을 공개하고, 줄기세포 재검증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네티즌들은 PD수첩 최승호 CP가 기독교인 이라는 점과 한학수 PD가 가톨릭 매스컴상을 받은 것 등을 들어 취재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계종 등 27개 불교종단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12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배아복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시대흐름을 선도하고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전 국민이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종단협의회는 또 "이번 PD수첩으로 인한 논란은 국내 과학계 위상 추락과 신뢰 상실 등 적잖은 후유증을 몰고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윤리적인 문제도 문화적 격차나 세계관, 윤리적 전통과 관습의 측면에서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전 인류가 수긍할 수 있는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더드)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우 · 유철주 기자



과로와 불면으로 인한 탈진과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는 황우석 교수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사진 위 · 제공=과학기술부)과 불교계 14개 단체로 구성된 '황우석 교수를 위한 한국재가불자들의 모임'의 6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유철주 기자

"자신이 환자라면 비판하겠나?"

지관 스님 황교수 비판론자에 '일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황우석 교수 연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지관 스님은 12월 3일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공개 심포지엄'에서 "(황교수 비판론자들은) 자신이 난치병 환자라면 황우석 교수에 대해 쉽게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이어 "<범망경>에서는 배고픔과 헐벗음, 병 등의 3가지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병고인데, 이것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황 교수의 연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친일로 얻은 재산 국고 환수

특별법 통과 … 내원암 재판 12월 30일 선고

열린우리당 최용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월 8일 17시 20분 한나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155명 전원의 찬성으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원암 소송과 같은 재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공로로 작위를 받거나, 을사늑약 등의 체결을 주창한 고위공직자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친일행위로 취득하거나 이들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한편, 친일파 이해창 후손 21명이 내원암 일대 토지를 내놓으라며 2004년 12월 24일 제기했었던 소송에 대한 선고가 12월 30일 10시 내려진다.

내원암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제12부 강민구 부장판사는 12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친일파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번 재판이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하는 마지막 소송이 될 것"이라며 "내원암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5면

유철주 기자

'직지' 담은 우표 나와

우정사업본부 85만장 발행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를 소재로 한 우표 2종이 12월 9일 발행됐다.

1997년부터 세계유산등록 특별우표를 발행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가 아홉 번째로 찍어낸 우표는 각 85만장씩 170만장이다. 지금까지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경주역사유적지구 등이 우표로 발행됐다. 2006년에는 판소리 소재 우표 2종을 발행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아동보호보육사찰 경찰서에 신고해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2월 7일 전국 교구본사와 직할 사암을 대상으로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의점'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아동 보육 사찰은 반드시 경찰서에 아동 보호 사실을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된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강진 기자**

인천 용화사 보살선원 170여명 동안거 수행현장 19면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마감임박

원고지 30매 … 12월 17일 마감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5년 12월 17일 ■당선작 발표 : 2006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39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드립니다.

하버드대와 불교생태학 세미나

동국대 BK21 연구단

동국대학교 BK21불교문화사상교육연구단(단장 조용길 · 이하 BK21연구단)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에 걸쳐 미국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에서 불교생태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제적 연구로서의 불교생태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측에서 조용길 · 박경준 · 김종욱 교수 등 8명이, 하버드대 측에서는 로버트 지멜로(Robert Gimello) 교수 등 8명이 발표했다. 동국대 홍기삼 총장도 직접 참석해 기조 강연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회향 한마당

1부 : 범능 스님(노래), 정용주(통기타) 다음거사(바라춤)
2부 : 참가소감 발표, 기념품 추첨

일시 : 2005년 12월 14일(수) 오후 7시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대강당
주최 : 광주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신문사

'할'



그림 · 조태호

각성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 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연등 자동장치 세틀 중 한틀이 준공된 모습 (불을 켰을때의 전경)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등 | 불 | 로 | 전 | 하 | 는 | 자 | 비 | 광 | 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 공단오색등 | 팔각봉축접등 | 유 등 | 공단등 | 육각조립등 | 팔각조립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

“정부·조계종 힘모아 산불 방지 합시다”

산림청 관계자, 공동추진사업 제안
국회문광위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산림청이 조계종에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 공조를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삼척대, 국회 정각회 공동주최로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사찰문화재의 화재예방 대책을 위한 세미나’에서 산림청 이경일 산불방지과장은 “많은 사찰이 산중에 분포해 있어 불교계와 산림청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산불방지를 위해 조계종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사찰 주변 수림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벌목을 필요로 하는 사찰 주변의 방화선 구축 △부처님오신날 산불예방캠페인 △내화수림대 조성을 위한 매뉴얼 작업 등을 공동 추진 대상 사업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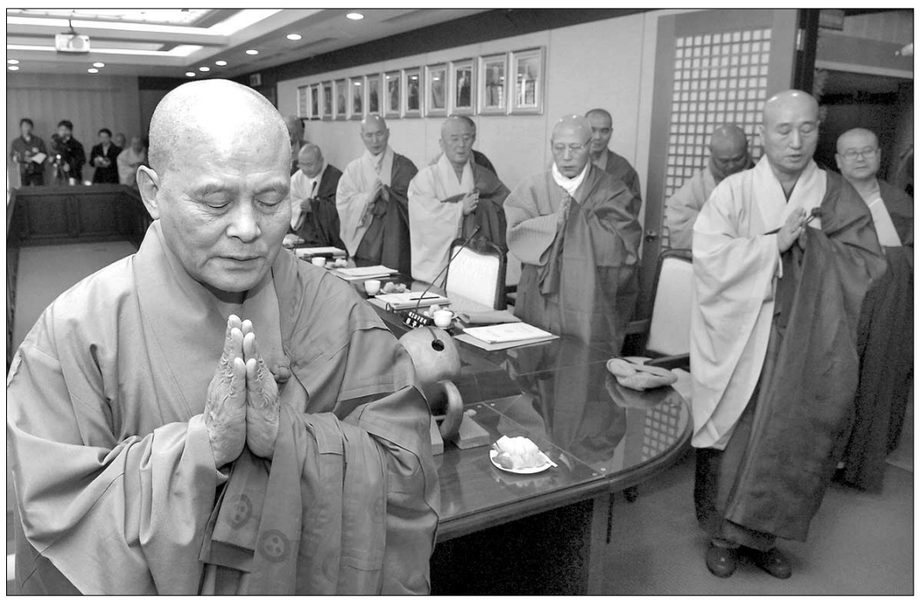
내화수림대란 산불이 쉽게 옮겨 붙는 소나무를 솎아내고 불에 강한 참나무 · 동백나무 등을 심어 조성하는 것으로, 산불 전이 차단에 효과적이다.

문화관광부 · 문화재청 등 정부부처들이 종단을 배제한 채 개별 사찰을 접촉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산림청의 이 같은 태도는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낙산사 화재 이후 조계종과 공동으로 40여개 전통사찰의 수림대를 조사한 바 있다.

산림청의 제안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박종학 과장은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조계종 총무원과 관계부처들 간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일 과장은 또한 18억원을 들여 전국에 참나무, 동백나무 등 활엽수림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위원장 이미경)도 사찰종합방재시스템 시범 설치에 합의하고, 약 40억원의 예산 책정에 합의한 상태여서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에 최신 방재시설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익순 기자**



지관스님 첫 교구본사 주지회의 주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취임 후 첫 교구본사주지회의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자산 보존 및 정비사업 △종단가사 특허청 의장등록 △불교지도자 및 신도임원 전진대회 등이 논의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인재양성·사회사업이 ‘화두’

조계종 중신회 중앙위서 내년 주요사업 확정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2006년에는 불자 인재 양성과 다양한 사회사업을 통한 참여불교활동을 전개한다. 중앙신도회는 12월 8일 중앙신도회관 교육관에서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2006년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중앙신도회가 2006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불자 인재양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가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신도회는 권역별 신도임원법회를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진행하고 산하 법인 ‘날마다좋은날’을 통해 ‘불교인재개발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또 불교계 안팎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을 ‘불자사회네트워크’로 묶어낸다는 복안이다.

중앙신도회는 ‘사회적 회향’을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 올해 최초로 진행한 남북불교도합동법회와 각계각층 불자 지도자 초청법회를 지속적으로 봉행하는 것은 물론 세계불교도 대만대회 참석과 키르키즈탄 고려인 합동 천도재를 진행해 해외불교교류사업의 영역도 확장한다.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자리인 ‘이슈&방향’ 토론회를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며, 우리나라의 차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하기 위한 ‘차문화 엑스포’도 정례화 한다.

김의정 회장은 “신도회의 안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교육 등 위원회 새로구성
조계종 교육원, 내년사업 검토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12월 7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6기 교육 · 교재편찬 · 역경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향적 · 지오 · 지안 스님을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07년 12월 6일 까지 2년간.

교육위원회는 태원 향적 지환 정인 도현 종호 도완 우진 지형 스님. 교재편찬위원회는 지오 지욱 종묵 법장 각묵 용학 원경 본각 일진 스님. 역경위원회는 지안 학담 수진 지운 일귀 선행 혜원 스님.

한편, 교육원은 이날 제81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2006년도 총 47억의 예산안 보고와 강원교직자 자격심의를 실시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법계위원장에
혜정 스님 만장일치 선출

조계종 새 법계위원장에 혜정 스님(원로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법계위원회는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새 의제실무위원으로 보성 명수 스님을 위촉하고, 법계위원회 간사 종진 스님에게 종정스님 표창을 내려줄 것, 승적부실기재자들에게 승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줄 것, 법규위원회 시행세칙을 제정할 것을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보성·종진 스님 등 10명 계단위원 위촉

전계대화상 위촉장 봉정

조계종 계단위원에 보성(원로의원) 혜정(원로의원) 등각(직지사 은선암 암주) 정관(영주암 회주) 종진(해인사 율주) 철우(파계사 율원장) 성우(파계사 주지) 무관(해인사 율원장) 인각(범어사 선원장) 현묵(송광사 유나) 스님이 위촉됐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 스님은 12월 6일 산청 해동선원에서 이들 스님 10명을 계단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앞서 호법부장 서리 도진 스님은 종정 법전 스님이 내린 전계대화상 위촉장을 성수 스님에게 봉정했다. 성수 스님은 지난 10월 열린 원로회의에서 전계대화상으로 추천됐다.

성수 스님은 “여러 계단위원스님들께서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수 스님은 1944년 사미계, 4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조계사 · 마곡사 · 해인사 · 범어사 · 고운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하나뿐인 강원에 후원 줄이어

태고종 보덕사…컴퓨터 · 생필품 등 답지

태고종 유일의 비구니 전문강원이 소재하고 있는 울산 보덕사(강원장 보문)에 최근 성금과 후원물품이 답지하고 있어 화제다.

10월 5일 개원한 보덕사 비구니 강원에는 현재까지 1000여만원의 성금,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등 사무용품, 백미 500㎏등 식재료, 치약 비누등 생필품과 미싱 목도리등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물품이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성원은 한동안 비구니 전문 강원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의 자발적인 후원 덕분. 10여년전 파주 범륜사 비구니 강원이 폐쇄된 이후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그동안 선암사 강원에서 비구 스님들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공부를 함께해왔다. 특히 숙소도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산내 암자인 운수암에 기거하다보니 매일 통학하는데 어려움도 컸었던 것이 사실.

이런 형편을 감내했던 선배 비구니 스님들의 보덕사 후원을 발판으로 학인 100여명이 동시에 기숙하면서 수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한 것은 물론 강사진을 보강해 내년 3월에 개강할 제2기 학인모집에 나서고 있다.

태고종 비구니 강원에는 현재 사집과 4명, 치문반 8명 등 총 12명이 제1기 학인으로 등록해 공부하고 있다.

태고종 비구니 강원장 보문 스님은 “비구니회 회장 여초 스님을 비롯 성금 및 물품을 보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비구니 전문 강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강남지역 포교에 주력

진각종, 역삼동에 행원심인당 낙성

진각종이 서울 강남지역 포교에 주력한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12월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행원심인당(주교 혜인) 신축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서울 강남지역 포교의 전진기지가 될 행원심인당은 연면적 75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식당이, 지상 1층에는 어린이 자성학교와 주차장, 2층에는 심인당이 자리잡고 있다.

이날 헌공불사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미래 종단 교화의 새 지평을 여는 새로운 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헌공불사를 기점으로 새로운 수행기풍의 진작, 특성화된 신교도 조직운영, 학교포교의 심화 등 종단의 교법정립과 교화체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공불사에는 혜일 총인을 비롯해 교육원장 경정 정사, 종의회 의장 진산 정사, 사감원장 혜명 정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휴명 정사, 총금강회장 원당 각자, 위덕대 한재숙 총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복지 · 수행 등 강화”
진각종 총금강회 대의원총회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회장 원당)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총인원에서 대의원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포교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임원들의 역할을 제시했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진각종 포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교도 교육과 조직화, 문화활동, 대사회적인 복지활동 확대, 수행을 통한 불교체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이미경 위원장·닝쿠푸이 中대사 지관스님 예방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이 12월 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불교계 관련 일들에 대해 적극 협조할 뜻을 나타냈다.

이미경 위원장은 “템플스테이 사업과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전통사찰보존 사업 등 불교계 3대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특히 템플스테이 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소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6일 지관 스님을 예방해 양국 불교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가자! 피안을 향하여...” 2005 ~ 2006년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마곡사 겨울 자비명상

백제의 숨결이 느껴지는 마곡사(주지 진각)에서는
전통사찰 문화체험과 다양한 예술치유와
명상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합니다.
대자연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휴식을
얻고, 내면에 있는 사랑과 기쁨을 발견하는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준 비 물 : 세면도구, 개인 컵, 두툼한 옷
※ 참가신청서를 자세히 적어 보내세요.
◆ 계좌번호 : 농협 457090-51-005093 (마곡사)

www.magoksa.or.kr





일 정	기간/돕는이	내용/주요매체	기대효과	대 상	회 비	모집인원
12월 21일(수)~ 12월 23일(금)	2박3일 김연희	수험생 가족명상 (춤, 미술 명상)	스트레스 해소 휴식, 자신감 향상	수험생 가족	1인 15만원	20가족
12월 24일(토)~ 12월 25일(일)	1박2일	자비명상	편안한 나	누구나	5만원	30명
12월 28일(수)~ 12월 30일(금)	2박3일 이강순	설거지 세라피 (웃음명상, 춤)	행복웃음 꽃피우기, 자신감 향상스트레스 해소	18세 이상	20만원	30명
12월 31일(토)~ 1월 1일(일)	1박2일	새해맞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을 맞이하는 시간	누구나	3만원	100명
1월 3일(수)~ 1월 6일(금)	3박4일 이강언/이강순	신년맞이 건강명상 (요가와 단식명상)	몸의 건강증진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됨	15세 이상	30만원	30명
1월 9일(월)~ 1월 13일(금)	4박5일 장우진/송연옥	영어 애니메이션캠프 (연극, 영화제작)	집중력, 창의력, 대인관계 향상, 영어실력 향상	초등학생	40만원	30명
1월 14일(토)~ 1월 15일(일)	1박2일	화 다스림 자비명상	느긋하고 평온한 마음	누구나	8만원	15명
1월 16일(월)~ 1월 19일(목)	3박4일 김연희/박희석	행복명상	삶의 기쁨, 환희체험 사랑의 확장, 자아 존중감 향상	18세 이상	30만원	30명
1월 21일(토)~ 1월 22일(일)	1박2일 성영진/이강언	예술과 함께하는 자비명상 (미술치료, 요가)	마음의 평화 창의성, 사랑확장	15세 이상	15만원	50명
1월 27일(금)~ 1월 29일(일)	2박3일 신차선	설맞이 행복여행 (치유음악, 춤, 명상)	자신감 향상, 사랑의 확장, 행복한 인생설계	15세 이상	20만원	50명
2월 4일(토)~ 2월 7일(일)	3박4일 김용량	3박4일 (춤과 예술활동)	움직임을 통한 자기이해, 치유와 변형체험	18세 이상	30만원	25명
2월 17일(금)~ 2월 19일(일)	2박3일 이강언/김연희	부부행복여행 (대화법, 요가, 춤)	부부사랑 증진, 의사소통 훈련, 공동의 목표확립	부부	40만원(부부)	20쌍
2월 22일(목)~ 2월 24일(토)	2박3일 노해숙	노년 행복여행 (음악, 미술, 춤)	몸의건강, 자신감 향상, 대인관계 향상	55세 이상	20만원	30명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수련원 전화 041)841-6226 / 팩스 041)841-6227

친환경사찰은 바로 여기!

불교환경연대, 전국 모범사찰 28곳 뽑아 사례집 발간

어떤 사찰을 친환경적인 사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심과 산중에 있는 사찰 중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곳을 소개하는 자료집이 나왔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12월 7일 전국 28개 사찰의 모범적인 환경활동을 발굴한 '2005푸른사찰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찾아가는 길과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창건 연혁은 물론 활동사례가 자세하게 담겨있다.

또 △친환경적 건축과 조경 △친환경적 사찰 살림살이 △환경관련 행사와 사업 개최 △사찰 주변 자연생태계 보전 △사부대중 환경교육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전국의 생태 사찰도 소개하고 있다.

푸른사찰 사례집에서는 올해 5월부터 전나무숲길의 포장도로를 걷어내고 있는 평창 월정사와 지세를 거스르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자연소재를 이용해 불사를 진행한 봉화 청량사를 친환경적 건축과 조경을 실천하는 대표적 사찰로 꼽았다.

또 포교사업부 부설로 식품회사를 만들어 운영비와 포교비로 사용하고 있는 공주 영평사와 문화강좌를 비롯한 외국인 포교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 부산 홍법사를 친환경적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곳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공양미 올리기 운동' 등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귀농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남원 실상사, '환경본찰'을 지향하며 2002년 이후 매년 동식물 천도재를 봉행해 온 강릉 현덕사, 최근 새로운 장례의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천 은해사 등은 환경친화적 행사를 개최하는 곳으로 소개됐다.

이 밖에도 알뜰환경지킴이 모임과 전통생태 모니터링 모임, 자연상태 답사 모임 등이 꾸려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길상사와 유치원에서부터 생명존중과 자연사랑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광주 선덕사 역시 환경교육의 모범사찰로 수록됐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스님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전국 50여개의 사찰 현장을 돌아보며 자료를 준비해왔다"며 "난개발에 대항해 수행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사찰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푸른사찰사례집은 불교환경연대 홈페이지(www.budaeco.org)에서 볼 수 있다. (02)720-1654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지율 스님 어디 계십니까?

신장기능 정지, 위급상황 올 수도…행방 수소문

천성산 환경조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율 스님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율 스님은 최근까지 여주 신륵사에 머물다 12월 8일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다.

8일 신륵사에서 지율 스님을 만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의사 진료결과 신장 기능이 정지되는 등 지율 스님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수경 스님은 또 "지율 스님은 지난 몇 년간 활동을 해오면서 전문성과 종교적 순수성을 동시에 갖게 됐다"며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지율 스님의 생명사랑 활동들을 포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경 스님은 "지율 스님이 건강회복을 위해 마음을 다시 돌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경 스님과 함께 지율 스님을 만난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도 "지난 2월 100일 단식 때보다 스님의 상태가 더 나빠 보였다"며 "밤마다 세영 스님이 지율 스님 곁을 지켰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율 스님의 동생 조경자씨도 "100일 단식 이후 소화기관은 물론 몸의 여러 곳에서 이상이 발견됐었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을 최근까지 수행했던 한 측근은 "지율 스님은 당신이 죽어서라도 천성산의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몸을 던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환경조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알렸다.

12월 9일 현재 조계종과 경찰 당국은 지율 스님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유철주 기자

"공개사과 안하면 공동조사 남은 일정 거부"

천성산 대책위, 공식 요청

정부와 천성산대책위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11월 말 "환경조사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청와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언과 관련 천성산 대책위가 이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공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천성산 환경조사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천성산 환경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6명의 전문위원과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는 12월 6일 부산대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천성산 대책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12월 13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청한 상황이다.

천성산 대책위 서재철 간사는 "천성산 환경조사위원 전체회의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와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남기명 토목처장은 "공개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더 논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 지정문화재 해제 보류

화재로 훼손된 김제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유형문화재 181호)의 문화재 지정해제가 보류됐다. (555호 3면 참조)

전라북도는 12월 7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흥복사 목조삼존불좌상이 문화재가치는 상실했지만, 복원 이전까지 도 지정 문화재 해제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조계종과 흥복사는 복원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박익순 기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국무총리상 수상

조계종자원봉사단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12월 7일 열린 '제17회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범국민적 자원봉사 정신의 기풍을 조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조계종자원봉사단은 450여명이 꾸준히 활동하며 불교계의 대표적인 자원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한 단체로 불교계 봉사단체의 선두그룹 중 하나다.

김강진 기자

불교 플래시애니메이션 금상에 '관세음보살과 …'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 정보화사업팀과 기획실 주최로 12월 8일 '제2회 불교플래시애니메이션'에서 서영섭 씨의 '관세음보살과 심총각 이야기'가 금상을 차지했다. 대상은 선정되지 않았다.

은상에는 배민형 · 유기창 · 문상미 '불심의 삼화사', 김종헌 '심우도', 우수상에는 임재규 '정수구빙녀', 이태호 '신비한 내소사 법당', 신경영 '어미수달과 깨달음', 홍수헌 '괘불의 교훈', 유은정 '설화의 고향 봉정사' 등 총 여덟 작품이 선정됐다.

이은비 기자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조계종이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조계종은 12월 5일 통영 용화사(주지 선곡)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통해 공사를 막으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유철주 기자

종립대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12월 24~28일 원서접수

입시철을 맞아 불교 종립대학들이 12월 24~28일 일제히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개교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와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는 우수 신입생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가' '나'군으로 나눠 불교학부, 경영학부 등에서 1816명을 선발한다.

경주캠퍼스는 '가', '다'군으로 나눠 신입생을 모집하며, 불교아동학과 등에서 953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서울 · 경주캠퍼스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02)2260-3114 www.dongguk.edu

중앙승가대는 정시모집 '나'군으로 모집하며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에서 각각 21명씩 84명을 일반전형으로, 재외 국민 등 특별전형으로 2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수능성적과 상관없이 고교내신 성적 40%와 면접고사 60%로 선발하며, 원서는 대학 교학처에서 우편과 현장 접수한다. (031)980-7713~6 www.sangha.ac.kr

천태종립 금강대는 '나' '다'군으로 불교 · 복지학부에 불교학 전공과 사회복지학 전공, 통상 · 행정학부에 통상통역(영어 중어 일어) 전공과 행정학 전공(2006학년도 신설) 등 2개 학부 4개 전공 에서 총 122명을 선발한다.

금강대는 우수한 장학제도와 소수정예 엘리트교육으로 최근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금강대는 2006학년도부터 행정학부에 통상통역전공과 행정학전공을 신설해 고위 공무원양성 전문 교육에 박차를 가한다. (041)731-3050 www.ggu.ac.kr

진각종립 위덕대는 '나' '다'군으로 불교문화학부, 교육학부 등에서 총 311명을 선발한다. 영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중등 특수교육전공 관련 학과 개설인가를 받은 위덕대는 올해 정시모집부터 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위덕대는 중등특수교육전공 관련학과를 신설해 사회복지특성화 대학으로 특성화 된다. (055)760-1063~5 www.uu.ac.kr

조용수 기자

창작창불동요 21번째 앨범

좋은벗 풍경소리(총재 지현, 이하 풍경소리)가 스물한번째 창작 찬불동요 앨범을 발표했다. 이 앨범에는 '하얀 연꽃' '별 따러' 등 10곡의 창작 찬불동요와 '씨앗(Seed)' 등 2곡의 영어 찬불동요가 실렸다.

강지연 기자

안양운불련 "불자조 편성하라" 단식

기독교조 88년 허용…종교편향 의혹

운불련 안양지역회(이하 안양운불련)가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불교 휴무조 편성을 요청했으나 안양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반해 기독교 휴무조는 1988년 안양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미 종교활동은 물론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안양운불련은 지난 1월 가, 나, 다 3개조로 운행되고 있는 안양시 개인택시의 3부제 대신 목 ·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불교조 편성 인가신청을 안양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교통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개인택시 사업자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안양시청 교통행정과는 기독교조인 '하'조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10개월여를 끌고 있다.

강동수 안양운불련 회장은 "불교 휴무조가 운행하더라도 교통수요에 큰 영향이 없는데도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종교편향 처사"라며 11월 29일 단식에 돌입했다.

안양운불련 지도부도 12월 2일 "불교 휴무조 인가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서울시와 자원봉사기관 협약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2월 9일 서울시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기관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는 서울시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각 자원봉사센터들에게 서울지역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 정보제공 · 상해보험 가입 등의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강진 기자



서옹 대종사 2주기 추모재 및 탑비 제막식

큰스님께서 좌탈 열반 하신지 어언 2주기가 되었습니다.
명당수에 나투신 영롱한 사리가 큰스님을 더욱 크게 생각하게 합니다.
2주기에 즈음하여 부도와 비를 함께 봉안하고자 하오니
문도스님들은 물론, 사부대중께서 다함께 동참하시어
큰스님의 위덕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길 앙망하나이다.

◆ 일 시 : 불기 2549년 12월 20일(음,11월 19일) 오전 10시
◆ 장 소 : 백양사 대웅전, 부도전
◆ 문의전화 : 061)392-7502 / 홈페이지 www.baekyangsa.org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지종 주지 두백 명공 합장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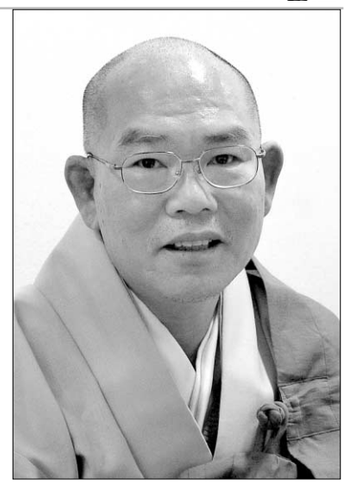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10강 :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 계율- 지계제일 우바리

강사 : 철우 스님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

일시 : 2005.12.7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계율,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 들이는 것

〈삼귀의〉
계를 받는 저희들은 -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 법문에 귀의하겠습니다.
- 청정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오계〉
1. 살생하지 말지니,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겠습니다.
2.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짓겠습니다.
3. 음행하지 말지니, 몸과 마음으로 청정행을 닦겠습니다.
4.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진실을 말하여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5. 술을 마시지 말지니, 언제나 밝고 통달한 지혜를 받들어 가지겠습니다.
이것이 오계이니 '목숨이 다하도록 잘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10월 5일 시작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12월 7일, 철우 스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 계율-지계제일 우바리' 강의와 수계의식으로 막을 내렸다.

천민 출신 이발사, "모든 중생은 평등" 부처님 법문 듣고 출가

오계 받으려면 삼귀의 먼저 해야… 계율없이 수행도 없다

저는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율주(律主)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흔히 율사는 엄격하고 부드럽지 않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저는 포청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계 제일로 칭송받는 '우바리(優婆離)' 존자를 보면 율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부처님 10대제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바리 존자는 인도의 사성계급 중에서 천민에 속하는, 석가족의 이발사였습니다.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이 열반에 들자 부처님은 손수 장례를 치르고 석씨 종족들에게 사성제 법문을 설합니다. 이때 이발사 우바리도 어깨너머로 법문을 듣던 중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받고 깨닫습니다. 정반왕의 장례가 끝나고 부처님의 사촌동생인 아난과 제바달다 그리고 아나율, 발제, 난타 등 석씨 왕가 아들들이 부처님 뒤를 따라 출가의 길을 떠납니다. 이때 우바리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기원정사에 다다르자 아나율이 묻습니다. "천민출신이 어떻게 출가를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자 우바리가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 했는데 어찌 출가에 차별을 두느냐"고 반문합니다.

아나율이 반성하고 부처님에게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교만을 없애기 위해 우바리를 먼저 제도해 주옵소서"라고 청하자, 부처님이 먼저 우바리에게 비구계를 주고 다음으로 왕가 아들들을 제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민이었던 우바리 존자가 먼저 비구계를 받아 왕가 아들들보다 윗자리에 앉습니다. 이처럼 우바리 존자는 천민도 출가하여 왕족을 능가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도 사성제도가 엄격한 인도에서 2500여년전 당시로서는 부처님의 큰 결단이며, 인권선언으로 일대 사회개혁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왕사성 칠엽굴에서 제1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교단의 기강확립과 유법(遺法) 보호를 위해 아난 존자가 경장(經藏)을 외우고, 70세가 넘은 우바리 존자는 율장을 송출(誦出)했습니다.

경 · 율 · 론 삼장에서 경은 율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고, 논은 경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난 존자가 경장을 외우는 것보다 우바리 존자가 율장을 외우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도대체 계율이 무엇이기에 10대제자 가운데 우바리 존자를 특별하게 존중할까요.

계(戒)는 행위, 습관, 도덕, 언어에 악을 짓지 않고 방지하는 것이고, 율(律)은 부처님 제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말합니다. 계율은 허물과 악을 억제하고 조복하는 것으로 불교의 윤리도덕이자 동시에 부처님의 교육관이기도 합니다.

계율은 한마디로 좋은 습관을 지니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청정한 마음과 행동 지니는 것을 계율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수행자라고 하면 당연히 '살생하지 않는다. 훔치지 않는다. 음행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네 가지와 '무소유'를 기본으로 지켰습니다. 내가 먹고 생활할 만큼만 있으면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은 무소유 대신 '술을 마시지 말라'를 넣어 다섯 가지를, 스님뿐 아니라 부처님을 숭배하고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지녀야할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오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계에 앞서 '거룩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께 귀의'하는 삼귀의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삼귀의를 해야 오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마지막 강의입니다. 재가불자가 지녀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을 새겨듣고 수계의식과 함께 회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생을 많이 하면 자비종자가 끊어집니다. 부처님은 살생을 많이 하면 고독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겁나고 무서운 지옥이 고독지옥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다 큰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한 생명을 해치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기기 위해 사냥이나 낚시를 하고, 맛을 위해 도살을 하는 등 인간의 횡포는 끝이 없습니다.

온갖 살상용 무기가 양산되고 이윤을 위해 안전이 결여된 상품이 범람하고, 공해산업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습니다. 일체 생명의 내부에 깃든 부처님의 성품에 대한 가증스런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도둑질을 많이 하면 복덕종자가 끊어집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시길 "이 세상 중생들이 훔칠 마음이 없으면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근기가 뛰어나 선정이나 지혜가 생겼다 할지라도 훔칠 마음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그릇된 길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훔치는 짓을 끊지 않고 수도한다는 것은 밑이 새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서 가득 차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허락 없이 물건을 남에게 주거나 쓰는 것도 훔치는 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가로채고 폭력을 가하는 것도 훔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음하면 청정종자가 없어집니다. 사음은 정해진 배우자 이외에 다른 남자나 여인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생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상의 여인은 어머니로 알라. 중년 여인은 누이로 알라. 젊은 여인은 딸로 보라.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불제자들은 젊은 몸이면서도 욕정에 끌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깨끗이 보전하고 있다."

네 번째, 거짓말을 하면 진실종자가 끊어집니다. 그 과보로 신용을 잃습니다. 요즘 우리주위에는 불량신용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허망한 거짓말(망어)과 이간질(양설), 욕설(악구), 사기(기어)하는 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오로지 입을 지켜라.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일체 중생의 불행은 그 입에서 생기나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음주로 지혜의 종자를 끊을 뿐 아니라 바보가 됩니다. 불음주계는 불교신자가 기본적으로 받는 계율이면서 이것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곡차라 하며 마시기도 하고, 고승의 흉내를 내어 무애행이라 하며 지키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파계는 자랑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너 자신을 미혹시키는 것을 먹지 말 것이며, 너 자신의 소유라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잃는 일체의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술은 음주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한 번 시작한 술이 과음이 되고, 과음이 모든 계율을 깨뜨리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얄궂어서 오계 가운데 다른 계는 다 지켜도 술 마시는 계는 지킬 수 없어 빼고 받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계를 이렇게 바꿔 보기로 합시다. 살생하지 말라를 자비롭게 살자, 훔치지 말라는 베풀며 살자, 사음하지 말라는 청정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라는 진실하게 살자, 술 마시지 말라는 지혜롭게 살자 라고 바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5가지 계율뿐 아니라 스님에게는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가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수행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계율이 아니면 수행생활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 표본이 부처님 당시 지계제일 우바리 존자입니다.

30~40년 스님으로 살면 마음이 잔잔한 호수같이 맑을 것 같죠? 아닙니다. 스님도 때에 따라서는 눈물이 나고, 우울하고, 적막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재가자에게 모범이 되고 깨달음으로 가기위해서는 계율로 다스려야 합니다. 계율이 아니면 지탱하지 못합니다.

모든 종파를 초월해 기본적인 불교의 윤리와 도덕을 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없는 비불교인으로부터의 도전을 막을 힘도 없어집니다. 계율의 소중함을 잘 생각하고 계율과 함께하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불기 2550(2006)년도

봉선사 교양대학·불교대학 모집안내

모집과정
● 교양대학 : 000명(불교기초과정) ● 불교대학 : 000명(불교전문과정)

강의시간
● 교양대학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4시간 강의)
● 불교대학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4시간 강의)

지원자격
● 교양대학 : 불교 기본교육을 받고 싶은 초심자, 불교 입문자.
● 불교대학 :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원하는 자, 교양대학 졸업 이상자, 불자님.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및 접수 : 봉선사 사무실 031)527-1951~3
● 제출서류 : 입학원서(서류전형), 원서에 사진 필히 부착
● 접수기간 : 2549(2005)년 12월 15일 ~ 2550(2006)년 2월 28일
※ 선착순 접수 각반 150명 (미달시 3월 31일 추가모집)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교양대학 : 불기 2550(2006)년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청풍루
● 불교대학 : 불기 2550(2006)년 3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청풍루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 3만원 ● 수업료 : 매월 3만원
● 교재는 별도로 각자 구입 (봉향각) - 과목은 추후 발표함.

제 25교구 봉선사 불교대학장 주지 철안

인곡당 법장대종사 100재 안내

삼보에 귀의합니다.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께서 이 사바세계와의 세연을 뒤로한 채, 저희 곁을 떠나신지 어언 100일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스님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은 여러 덕행을 보여주신 것에 거듭 감사 드립니다. 스님께서는 저희와 인연을 함께 하실 때 쉼없는 수행과 거침없는 자비행을 보여주셨듯이, 세연을 다하신 후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투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스님께 예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오는 12월 19일(월)은 스님께서 떠나신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은 스님께서 베푸신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일재를 지낼 것이며, 아울러 스님을 추모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수덕사 설정큰스님과 함께 조촐한 간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100재 및 간담회 안내
○ 일시 - 100재 : 불기 2549(2005)년 12월 19일(월) 오전 11시
- 간담회 : 불기 2549(2005)년 12월 19일(월) 오후 1시
○ 장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수덕사

※ 공지사항
1. 당초 인곡당 법장대종사를 기리는 추모음악재는 봉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봉행하지 못함을 널리 헤량하시기 바랍니다.
2. 인곡당 법장대종사에 관한 자료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락처:충남예산군덕산면사천리20수덕사내회소대 ☎041-337-6627

“어린이 포교 제2라운드”

토요 휴업일 확대따라 부산 불교계 대책 마련 분주



주5일제 수업에 대한 불교계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부산 불교계는 발빠르게 주말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 홍법사의 어린이 요리교실.

동련, 부산시교육청과 연계 프로그램 진행
홍법사 요리교실 · 여여선원 선체조 등 인기
포교 위해선 전문인력 양성 인식 변화 요구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종교색을 배제한 제2의 종교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을 만큼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아이들을 붙드는 일은 각 종교계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시범적으로 매월 한차례 실시되고 있는 토요휴업일이 내년부터는 월 2회로 확대되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갈 곳을 찾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 아이들을 어느 종교에서 포용하는가는 곧바로 포교와 직결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부산 불교계가 주5일 수업제에 발맞춰 사찰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발빠르게 개발 · 시행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이 중심이 돼 15개 사찰에서 부산시교육청과 연계한 토요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홍법사의 경우 9월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초등학생들을 위한 요리교실을 연다. 일요일 어린이법회와는 별도로 주5일 수업제에 발맞춰 새롭게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 아이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절로 이끈다.

매 프로그램마다 50~90명 아이들이 오색인절미, 김치, 메주 등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흥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 새로운 대안 교육의 장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다.

홍법사 외에도 여여선원이 선체조와 다도, 관음사가 자연과 함께 하는 숲체험을, 금천선원이 뮤지컬 체험 등을 마련하고 토요일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결같이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하되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절의 문화를 몸에 익히게 만들며 포교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만만찮다. 60여 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토요일 프로그램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동련은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뿐 아니라 동련은 전국 어디든 토요일 프로그램 시행을 원하는 사찰에게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도 지원하고 있다.

종단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 2007년의 주5일 수업제가 불교계에 미칠 영향을 예견하고 그에 따른 스님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말사 주지 연수에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주5일 수업제에 발맞추는 프로그램 개발은 어린이 포교의 제2라운드라고 할 만큼 시급한 문제”라며 “대형 교회와 여타 종교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포교 일선에 있는 스님들이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화합으로 하나되는 세상 열자”

포항사암련 1080정진대법회 봉행

정장식 포항시장 참석 참회

종교편향으로 물의를 빚었던 포항시 정장식 시장이 포항사암연합회 주최 행사에 참석, 다시 한번 불교계에 용서를 구했다.

12월 3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화합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 1080정진대법회(사진)에 참석한 정 시장은 불자들과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부덕의 소치로 불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법회를 통해 용서와 화합으로 회향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회주최측인 포항사암연합회는 “종교편향문제는 지역사회의 약한 불심 때문”이라며, “지역불교도들의 불심을 강화를 위해 범불교도대회의 정신을 이어 매년 1080 정진대법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2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친견 공덕으로 번뇌 소진되길”

불지사리 부산친견법회 입제식

부산 벡스코에서 20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초청 불지사리 부산친견법회 입제식이 12월 8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지관스님,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 불지사리 부산친견법회 봉행위원장 혜총 스님 등 3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대성 스님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부산에 온 것은 2천만 부산불자들의 원력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더 믿고 따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지사리 부산친견법회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매일 오전 9시~오후 7시 친견이 가능하다. (051)852-9062

천미희 기자

마하부다 구미보현의 집

김장 담그기 · 무료진료



“한국 김치 정말 맛있어요~! good~!”

12월 4일, 경북 구미 외국인 근로자쉼터 마하부다 구미보현의집(대표 진오)에서 열린 ‘외국인들과 함께 하는 김장담그기 체험행사’장이 떠들썩하다(사진).

이날 담근 김치는 모두 100포기. 지난 10월 16일 합동결혼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 부부와 이날 결연을 맺은 어머니들,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의 개미봉사단원 등 약 70여명이 모여 김장담그기 노하우 전수는 물론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3~4포기씩 포장했다.

한편 8년째 김장 나눔 행사를 이어온 대구 달성군 보림사(주지 선주)도 12월 5~7일 3일간 김장 1500포기를 담아 230가구에 전달했다.

배지선 기자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 취임

진산식은 주민잔치마당으로

부산 선암사(주지 원범)는 12월 4일 대웅전 앞에서 신임 주지 진산식을 봉행하고 선암사 주민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그동안 장례예식장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선암사가 신임 주지 진산식을 계기로 주민들과의 화합을 모색하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이날 진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지혜 · 영주암 회주 정관 ·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천미희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산림 입제

30일까지 27명 대덕 스님 법문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2월 2~30일 열리는 화엄산림 법회의 입제 법회를 12월 2일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입제식에서 초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꽃 중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보살만행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한 정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12월 11일 월하 대종사 추모 2주기 법회를 봉행했다. (055)381-1288

천미희 기자

대불련 부산동문회 40주년

대불련 부산동문회(회장 전광구)는 11월 7일 코모도호텔에서 각묵 스님을 초청법사로 대불련 40주년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대불련 동문 100여 명은 이날 침체기를 겪고 있는 대불련 지원과 동문회 활성화를 새롭게 다짐했다.

한편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성기태)는 12월 20일 오후 7시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빌딩 법당에서 총동문회 ‘자비실천의 밤’ 행사를 갖는다.

천미희 기자

도천 스님 시신 연구용 기증

부산 미룡사의 도천 스님이 시신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하고 12월 3일 세상을 떠났다. 1999년 3월 장기기증운동 부산지역본부에 서약한대로, 스님의 시신은 곧바로 동아대학병원 의과대학으로 인도됐다.

생전 스님은 신장병 어린이돕기 전국 도보순례를 계획했었다.

천미희 기자

법혜 스님 논문 출판기념식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의 논문 <돈황본 능엄경 연구> 출판기념식이 12월 6일 대구프린스호텔에서 열렸다.

<돈황본 능엄경 연구>는 능엄경 성립사 연구에 근거를 제시한 공로로 11월 29일 한일불교문화학술상을 수상했다.

기념식에는 동화사 주지 지성,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조, 前 조계종포교원장 암도 스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한국전통 조형미 갖춘 걸작”

문화재청, 범어사 일주문 보물 지정예고



범어사 일주문인 조계문(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은 12월 6일 지정 예고 사유에서 “범어사 조계문은 사찰의 일주문이 가지는 기능적인 건물로서의 가치와 함께 모든 구성 부재들의 적절한 배치와 결구를 통한 구조적인 합리성 등이 시각적으로 안정된 조형 및 의장성을 돋보이게 한다”며 “한국전통 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하여 우리나라 일주문 중에서 훌륭한 걸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어사조계문은 초석위에 목조 기둥 2개를 세우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일주문과는 다른, 자연 초석위에 긴 석조 기둥과 짧은 목조 기둥을 이어 붙인 4개의 기둥에 의해 3칸으로 구성된 독특한 건축적 양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범어사 조계문은 광해군 6년(1614년)에 최초 건립됐다고 전해지며, 1993년 문화재연구소 실측조사때 어간 종도리에서 발견된 묵서명에서 숙종 20년(1694년)에 중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헌종 7년(1841년) 중수 및 단청작업이 이루어진 뒤 1983년 해체보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미희 기자

갑종 통증/난치병
양심명의 3代비법 요/베개
원인모를 오랜통증
난치불치해방
주무시면서편안하게치료完
02)782-0022
“당뇨로 인한 신경과민과 기력이 쇠약 해져서 항상 앓은 잠에 시달리던 것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한 0련 선생 (68) 서울 강북구 수유동
“10수년 넘게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던 구심한 불면증/고혈압 에서의 탈출. 밤새 쭉~자는 거죠. 그야말로 숙면입니다.” 이 0순 여사 (62) 경기 구리시 수택동
“관절염이 심해 정상 생활이 불가능 했어요. 베개속을 쓰고부터 아파서 깨어 나는 일 없이 좋아졌습니다.” 윤 0미 여사 (37)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자금은 두통과요통이 다 사라져 수 년간 무겁게 느껴지던 제 몸이 날아갈 듯 시원합니다.” 김 0숙 여사 (58) 충청남도 천안시

2006학년도 특차모집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06년 의료시장 개방 / 한국 개원 가능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edu.cn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5년 12월 20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한국 총장 손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한 해의 공부 산사서 '갈무리'

중앙대 문헌정보과 교수·학생들 마곡사서 템플스테이

자기긍정·취침·화 다스림 명상 통해 성찰 기회 가져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거나 화난 순간은 언제일까?

12월 3~4일 '첫 눈'이 내린 공주 마곡사(주지 진각). 이날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석·박사 과정 학생 40여 명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상처들을 훌훌 털어내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긍정명상' '취침명상' '108배 명상' '화 다스림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템플스테이는 한해동안의 '공부'를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

첫째 날 저녁 예불을 마친 후 지도법사인 마가 스님(포교국장)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화났던 순간을 떠올려보라고 주문했다. 학자라는 짐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에서다.

잠시 후 남태우 교수가 "부모님이 몰래 모아두었던 돈으로 맞춰준 박사 학위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던 일이 가장 행복했다"며 부모님에 대한 소박한 애정을 드러냈다.

학자이기에 학문적인 고뇌만 하리라는 것은 편견일 뿐이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다.

남영준 교수는 "내가 영어를 잘해서 조교로 뽑힐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과락을 줘서 떨어졌어요. 그날 영어책을 모두 태워버렸죠"라고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눈을 감고 돌다리 건너기'는 '나와 이웃의 가치'를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2인 1조로 다리를 건너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물을 건너는 동안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졌다. 끝내 몇 사람은 물에 빠지기도 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석·박사 과정 학생 40여 명은 3~4일 공주 마곡사를 찾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08배 명상을 하는 참가자들.

"눈을 감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았다"는 김상희 씨는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에 남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상대를 믿는 것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둘째 날 프로그램은 새벽 3시 아침예불을 하며 시작됐다. 예불이 끝난 후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마곡사를 온통 하얗게 덮은 눈을 치우는 대중울력을 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빗자루와 삽으로 치우는 순간,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워했다. '나'라는 상을 내려놓은 짧은 순간에 기쁨이 찾아온 것이다.

마곡사/글=강유신 · 사진=박재완 기자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불자 되길"

청주·광주 교도소 수용자 찬불가 경연대회 개최

12월 8일, 한겨울 냉기가 감도는 청주교도소 강당에 아름드리 연꽃이 만발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를 수놓은 연꽃과 음표 모양을 한 연꽃이 한아름 피었다.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가 주최한 '수용자 찬불가 경연대회'를 위해 불교를 믿는 수용자들이 직접 꾸민 무대다.

"♬~ 때에 절은 옷을 벗고 육신을 벗고 눈부신 부처님나라 눈부신 부처님 나라 ♬~"

이날의 참가팀은 2~4명이 조를 이룬 7개팀. 이날을 위해 7개팀 23명은 꼬박 3개월 동안 시간을 쪼개 연습했다. 하지만 처음 오른 무대가 낯선 듯 참가자들의 붉게 물든 낯빛과 어리숙한 자세에 파란 수의(囚衣)를 입은 200여 수용자들이 연신 웃음을 자아낸다. 참가팀의 '삑사리'에서는 박장대소가 쏟아진다.

후원사찰인 석문사 이희일(42·청주시 내수동) 보살의 축하무대도 마련됐다.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과 석문사 주지 혜전 스님도 이날만은 수용자들을 위해 무대에 올라 가요실력을 뽐냈다.

1등상인 불보상은 '어머니'를 부른 육모씨 등 5명(전기공과)이 수상했다. 상품은 라면 5상자와 과자 1상자.

나머지 법보상과 승보상, 반야상, 지계상, 정진상, 선정상 등 6개 부문상이 남은 6개 참가팀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졌다. 상품을 건 경쟁보다 모두 하나가 되는 나눔의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청주교도소 찬불가대회 모습.

한편 선각종 총무원 옴천사(회주 정암)도 11월 30일 광주교도소 강당에서 '제6회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열었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부처님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박봉영 기자

계룡산 살리기 '네바퀴 홍보단' 결성

대전운불련 12월7일 발대식 갖고 본격 홍보나서

차량 스티커 부착 예정

정부가 계룡산 관통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계룡산을 살리기 위한 불교계와 지역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계룡산 살리기 대전충남 불교연대(상임대표 장곡, 이하 계룡산 불교연대)와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전지역회(회장 허정봉, 이하 대전 운불련)는 12월 7일 대전 운불련 사무실에서 계룡산보전 홍보활동을 담당할 '네바퀴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300여 대중이 참석한 발대식에서 네바퀴 홍보단은 결성문을 통해 "호남고속철이 계룡산 자락을 뚫고 지나가려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만큼 어떤 이유로도 계룡산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바퀴 홍보단은 운불련 회원들과 지역 시민들의 차량에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반대'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계룡산 불교연대 상임대표 장곡 스님(공주 갑사 주지)도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오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룡산 수호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륵사, 친환경공양미운동 동참

12월2일 인드라망과 협약 체결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미를 친환경 쌀로 올리는 운동에 여주 신륵사도 동참했다.

신륵사(주지 세영)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망)는 12월 2일 신륵사 대웅전에서 친환경공양미 실천협약식을 진행했다.

1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도법 스님은 "친환경공양미 실천운동이 바로 현대적 방생의 실현"이라며 "환경생태사찰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륵사가 동참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영 스님은 이에 대해 "이제야 공양미 운동에 동참하게 돼 죄송스럽다"면서도 "여러 대중 스님과 함께 환경과 교육, 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륵사는 서울 봉은사와 부산 홍법사, 서울 불광사에 이어 네 번째로 친환경공양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

유철주 기자

특별수행, 한문학당, 문화학교 마련

미황사 겨울 프로그램 다채, 해맞이 템플스테이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가 12월 17~24일 8일간 특별수행 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를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참선과 묵언, 오후불식 등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법문을 통해 자신의 수행을 점검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2006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초등학생 한문학당 재심자과정'은 전국 사찰의 한문학당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며진다. 한문교육은 물론이고 불교문화체험과 발우공양, 참선, 다도 등도 병행된다. 이밖에도 '중학생을 위한 문화학교'는 1월 15~22일 한시강독, 참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해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는 12월 31일~1월 1일 내외국인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061)533-3521

유철주 기자

증심사, 재가오계수계식 봉행

광주 증심사(주지 진화)는 12월 4일 대웅전에서 재가신도 수계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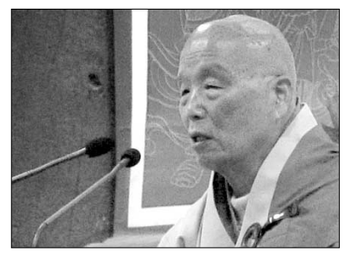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식에는 신도 200여명이 참석해 재가오계를 수지했다.

지현 스님은 "계율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와 같은 것으로 율에 의지해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송광사 금강산림법회 입제

49일간 금강경 독송



입제법어를 하고 있는 방장 보성 스님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는 지난 12월 2일 사자루에서 3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림 입제법회를 봉행하고 49일간의 정진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서 방장 보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음 닦는 공부는 잠시의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생활 속에 수행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영조 스님도 인사말에서 "동안거 기간에 재가불자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정진법회인 만큼 두루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광사 금강산림법회는 2006년 1월 19일까지 49일간 영가천도를 위한 <금강경> 독경과 매주 목요일 '큰 스님 초청 <금강경>강독'이 펼쳐진다.

이준엽 기자

선각종 심장병어린이돕기 공연

성금 어린이보호재단에 전달



11월 29일 열린 심장병 어린이 돕기 후원 공연의 모습.

대한불교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지난 11월 29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제1회 심장병어린이돕기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선각종 종정 정업 스님과 각 사암 스님, 장영태 광주시 의원 등 기관장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관심과 희망을 주기위해 공연 한마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광주 미륵사 신도와 어린이들이 출연해 장고춤, 승무, 태권로빅 등을 선보였다.

한편 선각종은 이날 공연에서 모금된 성금을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http://www.dopiansa.or.kr

救國救世 –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세요.

불교우주관과
천문학 강연회

⊙강사 : 이시우박사(前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의 저자
⊙일시 : 2005년 12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 : 조계사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주최 : 조계사 · 도솔산 불교천문대 건립위원회

천문학자가 본 우주의 진리, 인간의 진리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

현대인과 청소년들의 필독서!
천문학자는 인생과 우주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가고,
붓다는 인생과 우주의 비밀을 직관의 오묘한 지혜로 통찰했다.
여기 두 만남이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연다.
이시우 저/ 올컬러/ 392쪽/ 값 18,000원

천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의비밀

한국 관측천문학의 개척자 이시우박사가 붓다가
금강경을 설하신 이후, 처음으로 풀어낸 비밀을 밝힌다.
이 비밀은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현대인이
등장할 때까지 깊숙이 감추어져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시우 저/ 신국판/ 352쪽/ 값 13,000원

일만배 절수행 안내

⊙일시 : 2005년 12월 17일(토요일)
0시부터 ~ 24시까지
(금요일 오후 11시까지 도착해야 함)
⊙장소 : 도솔산 도피안사 아라한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지도 : 덕암거사 박종린 법사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016-204-4744)

또한 매달, 첫째 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는 3,000배 철야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의 첫 걸음은 부처님 은혜의 실재하심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삼천배로 부처님께 물어보시기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도피안사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456-893) 전 화 : (031) 676 – 8700 / 전 송 : (031) 676 – 8704 / E-mail : dopiansa@kornet.net

신심깊은 '불교의 섬' … 해안따라 절이어라

북제주

인구 55만의 제주도는 인구의 60~70%가 불자라고 얘기될 정도로 불심이 강한 지역이다. 사찰 수가 250여개나 되는 것만 보아도 제주도가 '불교의 섬'임을 알 수 있다.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고 해서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지만, 여기에 사찰을 포함시켜 '사다도(四多島)'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그 위쪽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포함한 '북제주', 그 아래쪽은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포함한 '남제주'로 나뉜다.

그러나 불교와 관련지어 두 지역을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제주시가 제주도의 중심이다보니 북제주 불교가 남제주 불교에 비해 다소 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지역을 구분짓는 뚜렷한 특징은 없다.

제주불교는 다른 지역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들 특징은 제주불교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복불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주의 기복불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복을 비는 차원'의 기복불교가 아니다. 제주불교의 기복적 성향에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

농사가 부적합한 땅에서 살아온 제주인들은 주로 해상생활에 의존해왔고, 결국 안전을 기원하는 각종 제사와 굿이 생활화됐다. 그런 가운데 제주에 들어온 불교는 토속신앙과 결합하며 기복적 성향을 띠게 된다. 해안을 따라 절들이 위치해 있는 이유도 마을마다 한 두 개의 사찰이 자리 잡으면서 '마을의 종가집'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용왕제 등 토속신앙형태의 '제'를 지내는 사찰이 적지 않다. 제주가 불교의 섬이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태고종세가 조계종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제주도의 태고종 사찰은 모두 80여 곳으로 조계종보다 20여 곳이 많다. 그리고 태고종 제주교구는 전국 교구 가운데 최고의 응집력과 추진력을 자랑한다. 제주교구는 제주시내에 불교회관을 세워 다양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합창단 중심으로 신행·자원봉사 활성화
원명선원 등 다양한 참선프로그램 운영

합창단이 많다는 점도 눈에 띈다. 태고종 제주교구 연합합창단과 서귀포불교연합합창단을 비롯해 금붕사, 선광사, 흥룡사 등 모두 20여개나 된다. 사찰 신도조직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보니 상대적으로 합창단을 통한 신행과 자원봉사 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감귤농사에 사찰경제와 활동이 일정부분 좌우되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감귤농사가 잘 되지 않는 해에는 사찰 경제도 어려움을 겪는다. 또 감귤농사철인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부분의 사찰들은 정기법회 외에는 별다른 행사를 열지 않는다. 신도들이 절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이다.

사찰과 단체들의 활동도 다른 지역에 비해 왕성한 편이다. 우선 북제주만 놓고 보면 관음사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관음사는 제주불교문화대학과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등을 통해 신도교육과 불교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종 신행단체 활동도 활발하다.

원명선원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참선전문과정과 참선대학, 단식요법을 응용한 참선수련 등 다양한 형태의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선수행 보급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천왕사가 시민선방을 개설해 수행문화 확산에 가세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은 초-중고-청년-성인으로 이어지는 신행체계를 갖추고 제주 신행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오라선원은 다도 서예 요가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또 우리절은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법회를 통해 새싹 포교에 주력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원명선원과 해봉사, 국청사는 불교유치원으로 어린이 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태고종 제주교구종무원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태고종 불교회관에서 제주불교대학을 열고 신도 교육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제주교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제주태고원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복지활동에 뛰어들었으며, 금붕사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주력하면서 제주불교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천왕사와 흥룡사는 기도도량으로, 고관사는 평화통일불사리탑으로, 충혼각은 호국영령 도량으로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지역불교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제주불교 특징 중 하나는 사찰 합창단이 많다는 점이다. 20여 합창단은 음성공양 외에 자원봉사 등 활발한 신행으로 제주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말 열린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공연 모습.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지역불교 위상높인 일등공신

중원 스님 (제주시 관음사 회주)



제주 스님들은 "오늘날 제주불교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은 중원 스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그만큼 중원 스님이 제주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관음사 회주로서 불교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제주불교문화대학과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을 통해 신도교육과 복지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제주불교 발전은 물론이고 제주 전통문화 관광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의 관음사 성역화 불사를 전개하고 있다.

40년간 전몰장병 위령제 지내

설봉 스님 (제주시 충혼각 주지)



태고종 원로의원이자 대종사인 제주교구의 어른. 40년 간 제주교구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진력해 온 제주불교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단 하루도 조석예불을 빠뜨리지 않는 '스님다운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몰장병의 유골을 모시기 위해 지어진 충혼각에서 1966년부터 해마다 전몰장병을 위한 위령제와 유주무주 고혼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오면서 충효사상 고취에도 앞장섰다.

경찰·교도소 재소자 포교 힘써

종호 스님 (제주시 제석사 주지)



종호 스님은 제주불교의 기틀을 다진 지역의 '어른'이다. 제주불교총연합회장과 제주지방경찰청 경승실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제주불교를 이끌었다. 특히 경찰과 교도소 포교에 매진하면서 불교의 이미지를 높였다. 이곳 전경부대 출신치고 종호 스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종호 스님의 방문 포교는 유명하다. 또 청송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소자 포교에도 노력을 쏟았다. 현재 제주불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선바람 일으킨 새싹포교 선구자

대효 스님 (제주시 원명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은 30년 동안 한결 같이 제주 불자들에게 선수행을 지도해오면서 제주불교에 '선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초심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지도함으로써 선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선을 접목한 생활법문을 통해 불교 생활화에도 앞장섰다.

스님은 제주 어린이 포교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1977년부터 어린이법회를 열고 1982년에는 원명유치원을 개원해 어린이 포교에 뛰어들었다.

현재 제주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아 종교화합에도 나서고 있다.

학자로 명망…문화포교 개척

수암 스님 (북제주군 금붕사 주지)



남제주 선광사 주지 수열 스님과 함께 태고종 제주교구의 핵심인재로 꼽히는 스님. 1999년부터 제주대학교에서 인도철학과 불교철학 등을, 태고종 동방대학에서는 경전을 강의하는 학자로 지역 스님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지난 11월에는 금붕사 합창단 연주회 및 연꽃사진전을 여는 등 문화포교에 관심이 많다.

금붕사에 온 이래 40년 동안 북제주군 하도리 마을 주민들과 한 식구처럼 살면서 불심을 심었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태고종 제주교구의 동력

지화 스님 (제주시 흥룡사 주지)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제주태고원 사무국장, 태고종 제주교구종무원 재무국장, 제주교구연합합창단 지도법사. 이력에서 보듯이 지화 스님은 태고종 제주교구의 동력이다. 교구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쏟아 붇는다. 음악, 사진, 서예, 한의학 등 다방면에 재질을 갖춘 팔방미인. 그래서인지 서예, 음악, 다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문화강좌를 열어 문화 포교에 나서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정법 포교로 새 신행모델 제시

혜묘 스님 (제주시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장)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이 제주불교에 새로운 신행모델을 제시했다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평가에는 혜묘 스님의 땀이 스며있다. 1992년 제주지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사격을 갖추고 어린이·학생·청년·성인 법회로 이어지는 신행 시스템을 정착시키면서 정법불교 토대를 구축했다. 지난 11월 광주에서 열린 제22회전국정신지체인복지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을 만큼 복지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당을 건립해 각종 수련회를 열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 수련회 상설화

제용 스님 (제주시 오라선원 주지)

제주지역 차인들의 모임인 '제주차인회' 회장, 제주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단장, 제주지방경찰청 경승, 한길중학교(제주 소년원) 교정위원, 서귀포불교대학 강사, 자원봉사단체 법연회 지도법사….



제용 스님이 하고 있는 일은 너무도 많다. 뿐만 아니다. 서예와 사찰음식, 다도 등에도 관심이 깊다.

어린이 수련 프로그램도 상설화하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보 차원의 불사를 할 계획이다.

지역 어린이 포교 새 장 열어

인성 스님 (제주시 우리절 주지)



인성 스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장 혜묘 스님과 함께 제주 어린이 포교의 대명사로 꼽힌다. 18년 전 제주에 온 인성 스님은 줄곧 어린이 포교 외길을 걸으면서 제주 어린이 포교의 새 장을 열었다. 18년 간 매주 단 한 차례도 경전강의를 빠뜨리지 않았을 정도로 신도교육에도 애정을 쏟고 있다. 또 우리절을 지역민들의 휴식처로 가꿔 친근감 있는 사찰로 만들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대안학교를 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작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동쾌한 禪법문!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출간)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출간)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7권 출간)
* 영원한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출간!!!>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렸던 선 수행 문답집.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반야심경 법회가 있습니다.
선(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법문에서
이 시대의 야부 선사로 불리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습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월곡 달동네, 떡국처럼 따뜻한 겨울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쌀 · 떡국 나누기행사
독거어르신 등 110가구에 쌀 20kg씩 전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월곡동 주민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정성껏 차렸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월곡3동에 위치한 성북구립 월곡청소년회관(관장 이남재)에서 12월 8일, 때이른 '떡국 잔치'가 벌어졌다. 회관 탁구장에는 이미 테이블이 마련됐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자리를 가득 메웠다. 월곡동 청소년들이 방화후 교실, 컴퓨터실을 이용하기 위해 찾던 이곳에 지역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더 많이 찾아온 사연은 무엇일까.

월곡3동 주민들이 이 곳으로 몰려온 까닭은 월곡청소년회관 운영법인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월곡3동 주민들에게 '자비의 후원미'를 전달하면서 아울러 떡국도 한 그릇씩 대접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들이 쌀 3000kg을 전달하고자 찾아온 것이다.

이 쌀은 법문사 불지사리 봉행위원회가 서울대회에서 불자들이 보시한 공양미를 모아 복지재단에 전달한 것이다. 쌀은 20Kg들이 한포대씩 110가구의 독거어르신, 차상위계층, 한부모청소년 등에게 전달됐다.

월곡3동은 현재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곳. '강북 뉴타운' 개발로 아래 동네에는 말쑥한 아파트 촌이 줄줄이 들어섰는데 월곡3동에는 아직 층층 계단에 판자집과 슬레이트집이 곳곳에 보인다.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어렵다'는 것이 한눈에 확인된다.

게다가 재개발의 위협이 언제 닥칠지 몰라 주민들은 늘 불안한 상태다. 내년 봄쯤에는 모두 이주를 마쳐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구청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이사비용 2000만원. 서울 한 귀퉁이에 몸 붙이고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다.

이렇게 어려운 이들에게 쌀 20kg은 희망 그 자체다.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직접 쌀을 전달한 지현 스님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가정을 지키느라 고민하고 애쓰신 분들"이라며 "떡국 한그릇이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많이 드시고 오늘만큼은 저를 여러분들의 자녀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쌀 포대를 받은 월곡 3동 주민 손봉례(68) 할머니는 "이렇게 신경써주시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면서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해 마음이 무척 무겁지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힘을 낼 수 있다"며 미소 지었다.

1000여세대가 모여살고 있던 월곡3동에는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현재 갈 곳을 정하지 못한 200세대만이 남아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 따뜻한 떡국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주위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민수 추모 · 소아암 환자돕기 자선공연

모금액 540만원 본사 기탁


부산 대원정사가 펼친 '새생명의 환희' 공연 모습.

12월 4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위에선 부산 대원정사 대원불교대학(상임법사 양재형)이 개최한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자선 공연이 한창이다. 당초 현대불교신문이 나눔의 손잡기를 통해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던 민수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객석에는 4살의 어린 아들 민수를 떠나보낸 아버지, 어머니도 눈물로 함께 했다.

부산 대원정사는 이날 공연에는 가수 추가열, 아카펠라 'A Street', 지연 스님, 대원정사 푸른합창단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는 한편, 소아암이나 환자들에 대한 홍보물 상영으로 소아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움을 호소했다.

양재형 법사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한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며 "부산대원정사 대원불교대학의 개원 1주년을 기념하면서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힘을 주는 일에 다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도 살리고 싶었던 민수를 떠난 보낸 뒤 가진 음악회였다. 그래서일까? 즉석에서 540만원이 모금됐다. 금일봉을 전달한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해 참석한 사부대중의 마음이 모인 결과다.

대원정사 대원불교대학은 이날 모금액 전액을 소아암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현대불교신문사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부산 대원정사 대원불교대학은 '불교는 항상 사회와 만나야 한다'는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운동을 꾸준히 펼치기로 했다.

부산 대원정사는 12월 16일 민수의 49재를 부산 대원정사 법당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글 · 사진/부산=천미희 기자

그동안 '민수돕기'에 동참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성남 부처님마을 자광원 목욕봉사팀

씻겨 드리며 우리 마음도 깨끗이

50여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남 부처님마을 자광원(원장 김정자). 이름 그대로 어르신들을 부처님처럼 모시려고 하는 이 곳에서는 목요일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린다. 목요일에 어르신들의 목욕을 책임지고 있는 목련회가 있기 때문이다. 12월 1일, 목련회는 어김없이 약속을 지켰다.

목련회의 구성원들은 사실 성남 거주자가 단 1명도 없다. 7명이 각각 용인, 양평, 서울 등지에서 자광원으로 발을 옮기는 것이다.

목련회 보살들이 자광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 최금지(55)보살은 조계사 신도 교육을 받던 중 알게 된 자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그것이 벌써 14년 전의 일이다. 최 보살은 "그 때는 세탁기도 없어서 직접 손빨래를 해야 했다"면서 지금은 편하다며 웃는다.

목련회의 '분위기 메이커' 박재현(53) 보살은 목련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이 가슴 속에 가득하다고 말한다. 박 보살이 목련회와 인연을 맺고 자광원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재미있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남한산성에 놀러가다 우연히 자광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작정 들어와서는, 여기와서 봉사활동 하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죠."

각자 가지고 있는 이유와 봉사의 계기는 다르지만 목련회가 봉사활동을 끝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목련회 각각이 얼마나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화기애애', 목련회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수년간 같이 해오면서 봉사의 보람도 함께 느꼈기에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이다.

목련회 보살들은 말한다.

"자광원에는 치매를 앓는 어르신도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르신도 있어요. 그렇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주잡은 어르신들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분들도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글 · 사진/성남=김강진 기자


자광원에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 목련회. 자광원 어르신들과 직원들은 입을 모아 마음이 예쁜 봉사단이라 부른다.

쌀 · 부식 후원해 주세요

자광원에는 모든 물품과 식재료가 필요하다. 목련회 보살들은 "자광원 원장님이 정말 보살심을 발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항상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불자들이 쌀과 부식 등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031)759-5320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종무원 · 행자 · 공양주 · 모집

1. 종무원
컴퓨터, 운전, 행정사무를 두루 볼 수 있는자 (남 · 여 불문)
2. 행 자
스님이 되고자 하는, 건강하고 불심 깊은 사람
3. 공양주
위 각 1~2명씩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주민등록증, 이력서 지참 내사하기 바람

불기 2549년 11월 29일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대한불교 조계종 현 지 사

알 림

연 5개월째 연속 베스트셀러
(위를 유지하고 있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 판매는
1. 현지사 033)243-1787,1795
2. 부산 현지사(분원) 051)554-5150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나 불세존은 가섭과 아난이 남섬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서문중에서)

중생들의 네개의 영체에 대한 법설, 빛의 존재, 붓다는 무아속 절대 세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사자후, 그리고 붓다는 어떤 어른 인가를 깊이 언급하고,바가바드기타를 능가한 완벽한 생사관의 정립.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 붓다로의 위계설정, 지옥이 있고 극락세계도 있다는 등 불교사의 미증유한 법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지음

5개월여만에 5판 돌입, 계속 베스트셀러 1위 유지
(도서총판 운주사 11月 집계, 화제의 성서, 절찬리 판매중)

윤회안과, 윤회밖 해탈의 세계를 보다 깊이 갈파한 경전과 같은 보고서.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붓다의 메시지

- 장려한 불교체계의 구축, 보다 선명한 생사관, 불교문예 부흥.... 가히 파천황 운운 〈선문화 6월호,11월호〉에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나타난 만현 스님의 법(法)세계를 거듭 조명하고 있다.... **(선문화 6월호, 11월호)**
- 2005년 9월 4일 부터 12개월간 자제만현스님의 매월 첫째 일요일 불교TV 방송설법을 시청하시라!

현지궁 현지사 펴냄 | 자재 만현 지음 | 가격 15,000원 | 300쪽 | 구입문의 033)243-1787,1795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자비의 전화 15주년 화이팅!" 전화 속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로 불리는 '자비의 전화' 베테랑 상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민 있으세요?…지금 전화 하세요

개통 15년 '자비의 전화' 24시

1990년 출범 전문가 180명…5만건 상담
전화 항상 열어두고 4교대 '무보수 근무'
1년간 120시간 교육받아야 자격 갖춰
상담받은 사람이 찾아와 봉사하기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막막하게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 당신은 누굴 찾는가?

15년이라는 시간동안 늘 같은 자리에서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곳이 있다. 전화만큼이나 가까운 곳에서 자비의 손길을 뻗치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바로 '자비의 전화((02)737-7374~6)' 상담봉사자들이다.

 # 12월5일 밤11시

"때르릉 때르릉."

바람이 심하게 불던 12월 5일 밤 11시쯤 전화벨 소리가 두 평 남짓한 상담 부스에 울려퍼졌다. "네, 자비의 전화입니다." 상담원 이석진 씨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 죽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수면제 30알을 준비해놨어요. 전화를 끊는 대로 다 먹고 죽을 생각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 전화라고 생각해요…."

"전화 끊지 마시고, 저한테 상황을 말씀해보세요. 선생님이 죽으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상심할지 떠올려보세요." 이씨의 절박한 호소 끝에 마음이 움직인 내담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라 했다. 너무 힘들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생각뿐이지만, 두 아이들이 자신의 전철을 밟게 될까봐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했다. 통화는 무려 4시간이나 이어졌다. 안정을 되찾은 내담자가 전화를 끊은 것은 새벽 3시였다. 이씨는 "인간은 살다보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언제 꼭 한번 불교상담개발원을 방문해서 전문면접상담도 받아보세요"라며 상담을 마쳤다.

1990년 불교계 최초의 전화상담 봉사기관으로 출범한 자비의 전화가 15년간 받은 전화는 5만여 건을 넘는다. 미주와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전화가 오기도 한다.

자비의 전화를 거쳐 간 봉사교육자만 천여 명, 상담원은 400여명에 이른다. 현재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80명의 상담원들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중 6일을 꼬박 전화선에 매달리며 항상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영자(1기 상담원) 씨는 "상담전화는 시대를 반영해요. 전화를 통해 계절을 느끼고, 또 세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라고 말했다. IMF한파가 몰아쳤던 1998년에는 가장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통화를 했고, 입시철에는 수험생들의 걱정과 괴로움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한창 인신매매가 횡행하던 90년대, 여성들을 납치해 윤락가에 넘기거나 비디오 촬영을 하던 인신매매범이 괴로움을 못 이기고 '조직에서 탈출하고 싶다'며 전화를 한 일도 있었다.

상담은 또 끝없는 수행의 길이기도 하다. 내담자에 대한 통찰이 필요할 뿐 아니라 결국 자신이 보는 한계 속에서 상담을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자비의 전화 상담원 중에는 상담봉사 시작 후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상담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도 많다.

상담원들은 무보수로 자비의 전화 상담을 하지만, 어느 곳보다 치열하게 자기정진을 하고 있다. 하루 4교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4시간씩이다. 밤근무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다.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1년간 총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과 30시간의 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현장에 갓 투입된 새내기 상담원들은 때로 상담과정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한다. 그럴 때는 선배 상담원들에게 '멘토링'을 부탁한다.

 # 12월6일 오후 1시

6일, 오전 상담이 끝난 오후 1시, 한 상담원이 커피잔을 손에 쥐고 15년동안 상담해온 김동수(창립기수 상담원) 씨에게 '고민상담'을 신청해왔다. 상담전화를 '음란전화방' 인양 악용하는 일부 익명전화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자비의 전화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24시간 운영된다.

김씨는 "어렵겠지만 그 사람들도 도움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레 상담을 이끌어보라"고 충고했다.

상담원 활동은 2년이 고비다. 대부분의 상담원들은 상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그만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을 계속하는 이들이 느끼는 보람은 무엇보다도 값지다. 한 때 환각증세까지 보이며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던 내담자가 완전히 치료돼 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 찾아오거나, 가정의 화목을 되찾은 내담자들이 편지와 가족사진을 보내올 때면 상담원들은 두고두고 이야기 꽃을 피운다.

7년간 상담부장을 맡았던 창립기수 박희섭 씨는 "상담을 통해 삶의 가치를 느끼고, 나 자신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복막투석으로 8년간 병석에 누워있던 막내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도 박씨에게 힘을 주었던 건 자비의 전화였다. 당장 딸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딸 걱정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상담을 하나 싶어 미안하고 가슴아팠다. 그러나 마침내 딸이 어머니 말을 받아들여 모든걸 수용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을 때, 박씨는 '갖지 못한걸 얻으려 하지말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삶을 감사하게' 살도록 가르쳐준 '자비의 전화'를 떠올렸다. 딸을 떠나보낸 뒤로도, 박씨는 예전보다 더한 활력으로 오늘도 외로움의 망망대해에서 손을 뻗치는 내담자들에게 자비의 등불을 밝힌다.

24시간 불이 꺼지지않는 '자비의 전화' 부스. 부스에 들어가면 천수천안의 보살이 되는 상담자들은 늘 '무언의 말'을 한다.

"고민 있으세요? 지금 전화 주세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불경, 금책, 금병풍



살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生命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신행 불일치?



그림 · 박구원

스님따라 절 옮기기 등 구태 '이제 그만'
믿음과 생활 일치 안되면 신행 무의미
포교 · 봉사 · 수행으로 적극적인 불자돼야

바꿔야 할 신행문화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불교는 의례, 교단 조직, 수행, 복지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신행 분야도 불교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할 요소를 안고 있다. 하루 빨리 구태를 벗어야 할 신행 행태들은 어떤것이 있을까.

● '원찰' 없는 유랑신행

소속 원찰을 두지 않고 이 사찰 저 사찰을 떠도는 불자들의 행태는 시급히 바뀌어야할 신행문화 가운데 하나다. 소속 사찰이 없으면 규칙적인 신행생활을 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속감 없이 겉도는 신행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님이 옮겨가는 사찰로 따라 가는 유랑신행이 대표적인 사례. 자신이 좋아하거나 믿음직한 스님이 있는 절을 원찰로 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스님이 다른 절로 옮겨가면 스님을 따라 원찰도 바꾸어 버리는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가까운 사찰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몇 시간을 가야 하는 일도 생긴다. 사찰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은 스님이 다른 절로 가면서 일부러 신도들을 데려가는 경우다. 사찰간 또는 스님 · 불자간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법당 문을 나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생활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는 신행문화를 꼬집은 말이다. 법당에서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겠다'고 발원하고 공양간에서는 새치기에 자리다툼까지 벌이는 불자들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신행문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율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신행문화다. 계율의 중요성에 비해 강제성 없는 약속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엄격한 계율을 어떻게 지키느냐고 항변하지만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며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계율이 지키기 어려운 일만은 아니며, 믿음과 생활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한 불교발전을 기대하기란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 소신 · 포교 없는 신행

흔히 불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잘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확고한 종교적 신념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포교로 연결시키지 않는 불자들의 신행문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포교하지 않는다.

종교를 안 묻거나 대화의 화제로 삼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다. 이는 포교를 종교의 강요로 여기는 불자들의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불교는 그만큼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젠, 바꿔 바꿔~

● 우리 집 기도대표?

대부분의 사찰에서 신도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에 육박한다. 거사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 사찰이 많지 않은 점은 이를 반증한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다.

상당수 여성신도들이 가족을 대표해 기도, 봉사 등을 하고 있다. 고등학생인 두 자녀를 둔 원만심 보살(45)의 경우가 좋은 예다. 원만심 보살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학생인 두 자녀를 대신해 모든 기도발원을 올린다. 얼마 전 수능을 본 큰 아이의 합격발원 기도도 하루도 빠짐없이 올렸다.

당사자인 큰 아이는 기도기간 동안 한번도 절에 가본 적이 없다. 문제는 이런 여성의 신행활동이 남성 또는 자녀들의 신행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최근 남성신도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 신도 참여 없는 신도회

사찰신도회 중에는 형식적인 조직만을 갖춘 곳이 많다. 이들 대부분이 신도들의 공의를 모으는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스님이 일방적으로 신도회를 없애거나 만들기도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도들 스스로 신도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참여율이 낮은 점이다. 신도들과 아무런 상관관계 없는 신도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늘어나면서 신도회의 역할도 그만큼 늘고 있다. 재가불자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 같은 사회적 흐름을 잘 활용한다면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사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스님신발 아이젠부착 수행화 출시
눈길 빙판길 간단히 아이젠만 열면 안전보행

스님승복과 잘 어울리는 색상
인체공학적으로 만든결정체



보살님전용


아이젠이 닫힌상태 아이젠이 열린상태

겨울철만되면 산속에 계시는 스님께 고통을 주는것이 눈과 빙판길이다. 매년 많은 스님께서 미끄러져 골절상으로 큰 곤경을 당하곤 한다. 국내 최대의 전문성신발 메카인 삼양통상(주)에서 미끄러운 산길을 자유롭게 다닐수 있도록 만든 **수행화**는 그림과 같이 평상시에는 **아이젠**(미끄럼방지기)이 부착되어 있어 눈길 또는 빙판길에서 간단히 아이젠을 열면 걱정없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고품격 천연가죽과 최첨단 신소재인 NOAH-TEX로 제작된 **아이젠부착 수행화**는 발열기능이 있어 외부온도가 영하-10℃일때 신발내부온도를 7.5℃상승시켜 겨울에 대단히 따뜻해 두꺼운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다. 99%방수되며 대단히 가벼워 장시간 만행에도 발의 피로가 없는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된 신발이다. 추운산속에 계시는 스님게 깨끗한 마음과 착한 정성으로 따듯한 **수행화**를 보시한다면 **무명업장**을 녹이고 **병술년 새해 무량대복**을 받을것입니다. 출시기념 할인가격 98,000원 전화로 신발싸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신청전화(02)735-6921**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 지갑 영험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2006 병술년 재운의 해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2006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해다.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잡귀와 삼재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출시 3개월도 안돼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부도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돈을 버는 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2006년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 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 반매훔 밸트
건강의 밸트!
축복의 밸트!
성공의 밸트!



삼불의 지혜와 음양의 조화로 만사형통!

세상을 살다보면 악귀와 잡귀의 방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불광의 불력으로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지혜를 얻어 만사가 형통되는 옴마니 반매훔 법구밸트가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한다. 옴마니반매훔은 음향의 조화로 어려움에 처했을때 삼불의 지혜를 얻어 해결되고 꼬였던 문제가 풀리며 동서남북의 복을 들어오게 하는 영험으로 하는일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지닌 법구 밸트다. 일반밸트와 달리 밸트에는 멜토에너지와 원적외선이 발산되어 장과 허리도 튼튼해지는 고급 천연가죽으로 된 고품격 자동밸트로 만사 형통을 기원하는 선물로 인기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SkyLife 위성방송 무료로 설치해준다.
최고의 화질 세계를 한눈에 난시청사찰에도 최고!



불교TV와 123개의 다양한 채널 3개월간 시청료 무료

디지털위성방송 Sky Life설치 사찰이 크게 늘고 있다. 무궁화3호 위성에서 발산되는 고화질은 국내방송은 물론 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와 비교할 수 없는 디지털고화질영상과 CD수준의 생생한 사운드로 TV를 볼수있고 디지털방송만이 가능한 쌍방향 서비스로 TV를 보면서 리모콘으로 각종게임과 각종정보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로TV화면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 123개의 다양한 채널이 수준높은 문화를 만끽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영어및 외국어 교육에도 큰도움이 되고 있다. 종전에는 위성방송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쉽게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설치비 없이 월시청료 23,000원 만내면 한국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바로 설치해 준다. 산간벽지사찰 난시청지역에도 즉시 설치되며 이사할때에는 전국어디든 가지고 다닐수 있고, 본인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전화로 설치할 장소와 주소 성명을 알려주면 2일내에 전국 어디든 설치해준다. 12월말까지 Sky Life설치를 신청하는 분께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맥파차단카드를 특별선물로 드린다.**
문의전화(02)741-4477

스님? 수맥파 차단카드 가지고 다니세요
-산속사찰 90%이상 수맥흘러 스님 건강 해쳐!-




멜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영국과 프랑스등 선진국에서는 병원을 신축할때 수맥파를 차단하는 등판을 깐다. 병상밑에서 발산되는 수맥파 때문에 치료효과를 거둘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의사들은 만성질환 환자를 치료할때 치료효과가 없을시 환자의 가정에 수맥파를 탐사하는 일이 종종있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도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있는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젊었을때는 모르지만 연세가 들수록 암, 중풍, 치매, 당뇨, 고혈압, 뇌졸증등 중증질환에 시달린다. 우리나라 사찰이 대부분 산속에 있서 산속생활하는 스님들께는 연세가 들수록 수맥파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갑자기 위험한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님께서 만행하실때에는 수맥파카드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시다 주무실때 베개밑에 놓고 주무시고 멜토차단캡은 사찰내 거주하시는 방구석 또는 베개속에 넣고 주무시면 머리가 대단히 상쾌하며 몸이 유연해 지는것을 다음날 바로 느낄수 있습니다. 러시아과학원과 한국수맥학회에서 제작된 수맥파 카드는 6개월에 한번씩 3시간정도 햇볕에 충전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며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02)735-6921 농협053-12-102911 김남룡

신일 통증없애는 토션매트 출시
매트위에 1시간만 누워도 통증완화되고 활력있는 컨디션 유지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통증, 다리통증
각종통증, 토션에너지 발산으로 통증사라져

평생 고행의 길을 살아온 스님들께 꼭 필요한 매트가 신일산업(주)에서 출시되어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민족선풍기인 신일선풍기가 말해주듯 53년이란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일산업에서 만든것도 인기의 한몫을 차지하지만 일반매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 때문이다.

요위에도 침대에도 최고 사계절용
스님의 원대한 불사를 위해 꼭 필요한 매트

브랜드를 러브라고한 이 매트는 러시아에서 발명한 토션에너지를 발산해 각종통증을 부작용 없이 완화시켜 주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매트내부에 숯, 황토 부직포를 넣어 원적외선을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게 하고 혈액순환과 활력있는 생활을 돕는 파동에너지까지 발산되는 매트다.

금사로 만들었고 겨울에는 전기만 꽂으면 장작불을 땐 구들장 아랫목 같이 뜨끈뜨끈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치동에 사는 공무원 P씨는 아버님이 젊어서 부터 고생을 많이해 항상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파 여러방법을 동원했으나 소용이 없어 우연히 신문에 난 신상품 기사를 보고 신일산업(주)에서 만든제품이라 믿고 구입해 드린후 아침에 아버님께서 그매트 참 좋다고 하시며 아픈통증도 많이 사라졌다고 해본인도 침대위에서 사용할려고 하나 더 구입했다고 할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일산업은 취침문화가 침대문화로 바뀌면서 침대용으로 했으나 연세 드신분들이 요위에 더 많이 깔고 사용한다고 한다. 평생 고행으로 몸은 망가져 아파도 아픈 내색을 안하는 스님께 원대한 불사를 이룩하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드리는 매트가 될것이다. 가격396,000원 스님 또는 스님께 보시 하는것은 10%DC되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전화(02)735-6933 농협053-12-102911 김남룡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3~6 FAX 02)737-0696
▷ 계좌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가격 : 1Box(4.4×4.4) 4만원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각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	천도재 49재	수	각	사	바라나비춤	경
안		륙	시			전
식		재	식	물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강의
적중률 높은 학설로 누구나
쉽게 단기간 완성(역학 · 관상학)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사주명리학 확실하게 배우실 분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 기타
주2회(1회2시간씩) 4개월간
초보에서 간명연수까지
책임완성 (수강과 동시 부업가능)
6호선 망원전철역 2번출구 인근
해동명리교육원 02)336-8484

급 안내
준비되어있는 아이템
무료로 유통사업하실 분
불교선물 상품
특허출원중 SBS방송된 상품
성공이 보장된 아이디어 상품
• 조건:불자님, 유통경험있는분
017-533-1356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알 림
벌에서(양봉) 채취한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는
우리인체에 항균, 항산화,
면역증강을 시켜준다.
016-779-2237
일림사 도원 합장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빨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 전수자 모집
기초부터 특수반까지 여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무 작법무 기타 법무
개인지도 각 행사 대행해드림
영남불교전통범음범패전수원
051)554-1518
011-849-0961

정통 中國 六壬家의 소장비본
육임학 비법전수
- 평생운, 流年運, 인간사 吉凶의 정확한 예측법
- 육임 공부 후 課, 傳 해석이 안 되시는 분
- 타 지방 거주자 통신강의 가능
매월 2,4주 목요일 무료공개 강의
御定六壬學會
(어정 육임학 전문 연구학회)
055)362-2799
010-4850-3900

열린건강교실
(한국생활익지공협회)
생활기공수련비디오
테이프 / CD / DVD - 국내최초
가격 : 1만원(무료건강상담)
※웰빙기공산삼요법-후불제
대구시(053)625-3118번
홈 www.gigong.ne.kr

황토베게
• 한방(신침): 장수, 일명 수험생 베개
• 국화꽃: 두통 스트레스 해소
• 결명자: 눈 밝아짐, 숙면, 두통
• 녹차: 심신안정
• 약쑥: 신경통증
단체주문 할인 판매점모집
0505-817-142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720-5682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회신곡
011-850-0176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 · 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학인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무보시 제 2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1. 49재 의식, 천도의식
2. 다라작법 3. 사물
055)381-1199
055)383-6676

참선공부 하러 오세요
선방개방(무료)
매일 오후 1시~ 4시(3시간)
저녁 7시~10시(3시간)
참선수행을 배우고 싶은 분은 별도지도해드림
부산 북구 화명동 지하철 수정역 1번 입구
4층 여래선원
051)362-0339

하나로 국제결혼 정보 (2000년도 설립)
종로 3가 02)763-7890 / 협회 02)766-7895
담당 : 이 부장 010-2871-7071
1. 우즈베키스탄
2. 베트남 성혼 후 전액 후불제 국제
3. 국내 늦은 초, 재혼 전액무료 (진실된 여성)
4. 커플 매니저 모집 (현재 직업과 겸할 수 있는 사업)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용모단정하고 재비하신 여성
(학력, 집안, 재산 안불, 40대 이하 초혼 여성)
본인 66년생 (초혼) 010-2871-7071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우)122-923 서울시 은평구 응암3동 584-42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사주명리학 관심있는분
용신 및 격국 위주
12운성, 12신살
5인이상은 출장강의
주1회는 범패강의합니다
천수바라, 도량계, 화청, 법고지는법 等
054)433-6315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젼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위치 : 조계사 앞
02)733-0108

야간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 전공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포항
017-502-73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지역
016-779-223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60세)
010-7160-2734

팔공산 청정지역 비구니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몸과 마음을 부처님전에 맡기시고 남은 여생을 마음편히 살아가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안락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동참금:2천만원 기도할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1-790-480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시내 신축 조용한 사찰임
▷보시금 월 70만원
052)282-8793(울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함께 생활하실
내외분도 환영합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054)873-4838
011-538-2321

가난한 절이나 포교당 주지 원합니다 무보시로 운영 발전시켜 드립니다
- 사주, 주역 통달
- 비구승
- 충청, 경기지역 원함
010-9316-2513

총무보살님 모십니다
031)971-0208

비구니스님 사찰임 (여)스님이 되시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011-727-1514
032)525-1818

절에서 생활하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 이하) ▷월보시 120만원
건강하고 음식을 잘하시는분
017-531-7770
경주시 강동면 왕룡사원

사찰 女사무원 모십니다
무경력자도 가능함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041)673-2333
011-9810-888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청도
054)371-0101
011-378-2221

비구니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포천
011-9491-922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011-323-7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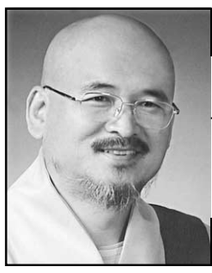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5~55세이하)
대한불교조계종사찰
울산남구 시내, 월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경기도 남양주
031)571-5424
017-681-9858

경기도 경치좋은 조용한암자 황토방에서 계실 비구스님 모십니다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31)582-9816

조계종스님입니다 삼존불 부처님과 후불탱화 (본존,신중,칠성 등)
법당내에 각종집기를 구합니다
011-9335-5535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행 자 모 집
스님 되실 분 남 0명 · 여 0명
• 5개월 수행 후 전국사찰 소임 • 사찰 등록하고자 하는 분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황룡사
054)972-3174 / 011-502-3966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자 [예비스님, 남 · 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가치관의 체계확립 및 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이론 및 실제
6. 원고적성법(문장구성 및 내용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적 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개강 : 2006년 1월 5일 목요일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불확실한 시대의 평생직업! 자격취득을 위한 절호의 기회!
무료역학사 양성 특별강좌
귀의 삼보하옵고 항상 좋은 만남이 되게 하소서!
금번 본원에서는 신도확보 및 포교의 일환으로 동양학 연구회의 자문과 강사진의 지원을 받아 역학사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 무료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코자 합니다.
무료역학사 양성 특별강좌
● 과 목 : 1.불교기초교리 및 예절, 동양철학 기초 (특별반, 일반인 대상)
2.사주명리학, 관상학, 풍수지리학, 상담비법/비방, 육효 구성 육임 등 (전문자격 취득반 대상)
● 개 강 : 2005년 12월 16일
● 기 간 : 특별반 1개월, 전문 자격반 5개월
● 자 격 : 불교 및 동양철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학력 남여 년령 제한없음)
● 장 소 : 지하철 이수역(4,7호선 2번출구) 국민은행 뒷건물 4층(덕원정사)
● 특 전 : 우수자 본회 정회원 및 학술위원 위촉, 전문반 이수시 전원 취업보장, 전문상담실 개설시 전폭지원.
● 접 수 : 전화접수 02)533-6258
● 접수기간 : 수시접수
※특히 사업기반이나 경험이 없고 직업이 없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 덕원정사 02)595-4167
지원 : 동양학 연구회

기문 명리학
(특강 : 수지침, 관상, 풍수, 작명, 택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접수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대학과 방송국에서 강의 중)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정복
(취업 보장)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접수 연락처 02)454-3369
011-775-8709 (지선 법사)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오리정 안테나 매장 투자자 모집
(주)웰빙오리코리아에서는 서울 경기 유명상권에 안테나 매장 운영에 바른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 개설지역
연신내, 불광, 응암, 창동, 도봉산, 마두, 석계, 중화, 중곡,구의, 천호, 강동, 잠실, 둔촌, 방배, 사당, 신촌, 명일, 성남, 수서, 야탑, 송파 번화가 등
◆ 개설내역
입지 선정에서 오픈까지 완벽하게 본사에서 일괄 처리해 드립니다.
◆ 수 익 금
매장운영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본사 영업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리정 (주)웰빙오리코리아의 안테나 매장이란?
안테나 매장은 소비자와 시장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말한다. 신제품 개발시 본격적인 판매에 앞서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조사나 관련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전략 매장으로 1개월 정도 본사에서 직영한 후 매출을 안정권에 올려놓고 투자자에게 인도하거나 운영을 본사에서 모두 일임하여 투자자에게 운영 수익만큼 매월 가져가도록 하는 매장을 말한다. 초기 시행착오를 본사에서 대신하여 빠른 시일안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찾아오시는 길
◆ 문의처
본 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63-4 명현빌딩 2층 201호
영업부 : 02)489-5292
담당자 : 010-3484-5292 (이상구 전무)
016-393-4060 (홍명희 실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 위치: 강원	● 위치: 부산
● 법당: 15평	● 법당: 23평	● 법당: 30평
● 요사: 30평	● 요사: 20평	● 요사: 120평
● 부지: 3000평	● 부지: 5900평	● 부지: 107평
● 가액: 3억5천	● 가액: 3억	● 가액: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양평목조사찰3천평-8억
2.대구북구사찰350평-8억
*기도스님.노전,부노전스님
*공양주보살님,법당보살님,
화주보살님.종무행정직.경리,
운전직.사무장.시자보살.49재
천도재,점안식신속연결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
● 대지 125평, 법당, 산신각,
독성각, 요사채 3동
● 가액 : 1억 5천 6백만원
● 사정상 급히 땅값이하
계산합니다.

011-380-561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약 100평
1층 34평 요사채
2층 24평 법당
● 특징: 시장옆 주택 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위치 : 경남
● 대지: 97평	● 부지: 630평
● 법당: 30평	● 법당: 20평
● 요사: 46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1억9천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사찰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파계사옆
차로3분거리
● 절터 평수 662평
● 대로에서 산속으로 850m
인허가 받아줌
● 가액: 9억

010-3120-4017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011-434-7209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상업지역
● 대지: 약23평
● 1층요사채 18평,
2층 법당 18평
● 가액: 9천5백만원
(전,월세가능)

0502-244-3888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토굴터안내

● 위치: 대구근교 군위IC
5분거리
● 대지 : 169평, 임법당 : 25평
● 배산임수 명당절터
● 가액: 4천8백만원
전세가능

011-9585-4908
054)383-8553

포교당안내

(싸게 인수 하실 분)
● 위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 평수: 45평 3층건물중 2층
● 시설: 삼존불, 고급후불
탱화 3점,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6-261-2068

사찰안내

● 위치: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대지 : 350평
● 건평 : 30평
● 가액 : 6,300만원

061)533-9046
011-631-2954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 대지: 2300평, 법당, 요사채
● 보증금 5천만원
시설비 4천만원
● 가액 절충가능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51)525-8785
011-9533-238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지리산 면 소재지
● 평수 : 500평 건평45평, 법당1, 방4,
수세식 화장실(남 여)슬라브
● 절안에 4대 이상 주차, 물좋고
공기 맑음 경치 그만, 조경 잘되어 있음
● 가액 : 9천5백만원

018-565-2042

적은 돈으로 포교원 운영하실 스님

● 위치 : 서울 사당동
(전철역 3분거리)
● 법당 30평, 주방겸 방2개
● 아미타불, 관음, 지장,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가액 : 답사 후 결정

0502-080-020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 일산
● 2층건물의 2층
독채 약40평, 방2개,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3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 철학원, 보살님도 환영

016-9396-8425

사찰(급)안내

● 위치 : 울릉군 울릉읍 ● 대지 1,000평
● 법당25평, 산신각1동, 용왕각1동
요사채 40평(2채) ● 가액 : 3억 5천만원
● 공시지가 : 6억 (평당 6십만원)

사찰(급)안내

● 위치 : 해운대 벡스코(신시가지 입구)
시립미술관 2번 지하철 출구 앞
● 6층건물 6층 : 120평 공간에
법당 요사채가 65평,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5천, 시설비 4천(양도가 9천만원)

011-500-177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유어면
● 대지 150평,
법당 목조 12평,
요사채 벽돌 25평
● 가액 : 7천8백만원

016-652-7547

토굴,사찰, 선방부지 안내

● 위치: 지리산~덕유산 사이
백두대간 주능선 50m
● 관리지역 : 대지,잡종지,전 합1600평
● 건물현황: 황토방5동,강당1동,
창고2동,사무실1동,취사동1동
● 이전관계로 매매 합니다.
● 매매가격 5억2천

주인직 010-3684-9288
오후 2시 ~ 6시사이 통화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불로동
4층건물의 3층
● 평수 65평, 법당 50평,
주방1, 방3,
● 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소불 200불
● 가액 : 1700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1-509-152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토굴터안내

● 위치: 대구근교 군위IC
5분거리
● 대지 : 169평, 임법당 : 25평
● 배산임수 명당절터
● 가액: 4천8백만원
전세가능

011-9585-4908
054)383-8553

포교당안내

(싸게 인수 하실 분)
● 위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 평수: 45평 3층건물중 2층
● 시설: 삼존불, 고급후불
탱화 3점,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6-261-2068

사찰안내

● 위치: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대지 : 350평
● 건평 : 30평
● 가액 : 6,300만원

061)533-9046
011-631-2954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 대지: 2300평, 법당, 요사채
● 보증금 5천만원
시설비 4천만원
● 가액 절충가능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51)525-8785
011-9533-238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지리산 면 소재지
● 평수 : 500평 건평45평, 법당1, 방4,
수세식 화장실(남 여)슬라브
● 절안에 4대 이상 주차, 물좋고
공기 맑음 경치 그만, 조경 잘되어 있음
● 가액 : 9천5백만원

018-565-2042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구곡단지내
● 대지120평 건평80평
1층 50평 요사,
2층 30평 대웅전
● 가액 : 5억
(은행 1억8천 설정)
※ 비구니 스님 수행처로 적합

010-9292-48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
● 부지 임야 9천평
종교시설 250평
● 법당22평, 산신각4평,
요사채30평, 화장실4평
● 가액 : 2억

055)854-852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산방동
● 법당 전체 45평, 방3개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1,000만원
(조정가능)
● 전화 오후 4시까지
연락바람

010-3922-9347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 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포교당 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반야월 각사역
지하철 2번출구
● 4층건물+옥상사용
● 위치 좋음 도시가스
● 법당 70평, 삼존불 방2개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별도

054)336-5909
011-9382-4782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3동
면목역 도보로 10분거리
● 평수 : 4층건물 3층, 약 70평
● 시설 : 법당, 방3, 거실겸주방,
욕실, 창고, 주차장, 환기시설,
에어콘, 주방시설 일체.
● 가액 : 전세 1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1-271-7603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30평 구가옥, 차고
● 산을 끼고 있음, 밭있음. 총 2300평
● 가액: 3억 융자 7900만원

010-3179-2977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 단구동
● 평수: 약 40평
● 법당 별도, 삼존불,
지장단
● 가액: 답사후결정

018-205-5979
017-226-077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면 촉동 마을
마을에서 200m
조용하고 공기좋음
● 대지 200평, 건물 20평
밭 1000평
총 1200평
● 가액 : 1억4천만원

010-3922-9347

포교원안내

● 위치: 용산구 남영동 대로변 4호선 출구
● 2층건물 2층 ● 평수 : 약 6평
● 모든시설완비.위치 최고. 즉시법회가능
철학하시는 분에게 매우 적합
● 아미타 관음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합 1천만원 월 30만원

02)718-0324
011-750-5424

출장녹음

지난 10년간 국내외 5백여 사찰과
스님들의 독경과 법문을 제작하여 온
명실공히 전국 유일의
불음전문 녹음실
스님! 이제 녹음을 하기위해
스튜디오를 찾아
먼길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계신 곳에서 완벽하게
무잡음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하여 마음에 쏙 들게
테이프나 시디(CD)로
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달리녹음실에서 녹음하신 스님과 단체

선학원 남산스님. 조계종 서암스님. 법연원 조연스님. 통도사 정암스님. 법화종 구암스님. 문화재 해강스님. 문화재 청공스님. 문화재 진하스님. 문화재 혜철스님. 혜각스님. 혜관스님. 자명스님. 원명스님. 자원스님. 동광스님. 성문스님. 범진스님. 지우스님. 종욱스님. 구화산 인덕스님. 지홍스님. 일홍스님. 월곡스님. 상묵스님. 혜성스님. 덕일스님. 효재스님. 현장녹음 : 불교방송. 일본장생탄광천도재. 티벳한. 티벳불교문화교협. 몽고한. 몽불교문화교협. 민속문화대축전 등 .... 이하생략

佛音專門 달리녹음실
0502-555-1040
080-115-8008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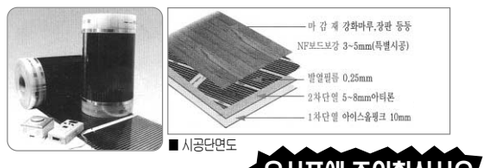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 평수: 29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8백 (월세없음)
시설비: 1천2백(협의가능)

018-315-0108

암자안내

● 위치: 경남 의령
● 산세 좋음 ● 가액: 절충

사찰(터)안내

● 평수: 600평 ● 종교부지 300평
● 기초공사 전기 물 되어있음
● 가액: 3200만원

010-3189-3525
055)573-7832

토굴 안내

● 위치: 천안시 인접(뒤 산, 앞 국도)
● 법당 15평정도 방4개
(입식 주방), 화장실(욕실) 2개,
살기 편하게 시설완비(종중 땅)
● 가액 : 4천3백만원
(시설비 포함)

010-3075-89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법당 20평, 요사18평,
등기상 623평,실평수 1500여평
주지실 : 목조흙집으로 5평
● 가액 : 1억6천만원(가격절충)

yaksaam.wo.to(사찰전경)

사찰(부지)안내

● 바닷가, 수행처 적합한 곳
● 평수 : 1천여평,
● 전용허가 200평,
상수도 도로 완비

010-7109-3281

포교원 안내

● 위치: 강원도 속초
● 건평 60평
내부시설 황토,
전통 쑥뜸 좌욕기 시설 완비
● 포교활동과 환자치료하실
스님은 더욱 좋은 곳
● 가액 :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몸만 오시면 됨

011-790-4809
033)631-4831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4억 3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
(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포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배아 지위’ 다각 검토… 결론 못내

“태아는 성인과 동일한 생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안락사는 불살생계를 어기는 것이므로 반대하며 배아복제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연구위원회’(이하 불교생명윤리위)의 보고서가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공개 심포지엄 형식으로 발표됐다. 불교생명윤리위는 생명윤리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불교적인 답을 모색하기 위해 조계종 사회부(부장 지원)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공동대표 백남석) 외 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으로, 지난 1월 발족했다. 불교생명윤리위는 4개 팀을 구성해서 각각 △생명조작 △낙태 △뇌사 · 장기이식 · 안락사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심포지엄에서도 각 주제별로 보고서가 발표됐다.

불교생명윤리委 심포지엄 주요내용



불교생명윤리정립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공개심포지엄을 갖고 불교적인 생명윤리 담론 형성에 나섰다.

“전체 흐름속 원인 · 조건 연기적으로 파악해야”
생명윤리硏 설립 제안… 뇌사, 죽음으로 정의
유사수정란도 착상 가능, 우생학적 이용 가능성 시사

■배아복제에 대한 입장 “유보”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생명조작분야. 이 분야에서 배아복제 문제가 다뤄졌기 때문이다.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와 같은 일정한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불교학 · 윤리학 · 생명공학 등 관련 전공자들로 구성된 생명조작분야팀의 보고서는 균형된 시각을 잃지 않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보고서 초점은 배아의 지위에 맞춰졌다. 발표는 생명조작분야 팀(미산 스님, 허남결 동국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을 대표해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맡았다.

배아가 생명체인가 하는 점에 대해 미산 스님은 “어느 시기부터 배아를 인간개체로 볼 것인가 하는 논의는 인간이라고 규정할 만한 어떤 실체가 있다는 관점을 전제하는 것으로, 5온을 자아로 취착하는 전도된 가치관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은 논의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없음을 상기시키면서도 “5온의 생성 시점을 따지자면 <유가사지론>을 따라 수정부터 인간개체라 볼 수도 있고, 초기경전을 따라 감수성(情)과 의지성(行), 행위성(業)을 갖추게 되는 착상 이후부터를 인간생명체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아를 생명이라 가정할 때 더 큰 자비의 대상을 위해 배아가 희생돼도 좋은가 하는 점에 대해 미산 스님은 “배아가 생명이라면 불살생계의 입장에서 존중돼야하겠지만,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켜 생명을 영위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설득력 없는 이율배반적 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인간만이 존엄하다는 태도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부에서 미산 스님은 “선악시비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다양한 원인과 조건의 처음 · 중간과 끝의 전체적인 흐름을 연기적으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며 “다양한 원인들이 다 파악되기 전에 성급하게 배아가 생명체다 아니다를 판단할 경우 끝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입장 표명 유보를 시사했다.

아울러 미산 스님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종단에 상설연구기관을 설립해 생명윤리 전반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해야한다”며 불교생명윤리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했다.

■낙태 · 안락사 · 사형제도 “반대”

낙태에 대해서는 팀원(고영섭 동국대 교수, 조은수 서울대 교수, 유호종 연세대 교수)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팀을 대표해 발표를 맡은 고영섭 교수는 “태아는 생명체며 성인과 동일한 의미의 생명성을 지니고 있다”며 “임신중절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교의 생명존중정신을 계승하면서 임신중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 교수는 △탁아 및 장애아 시설 확충 △낙태된 영가 천도 △부모에 참회 기회 부여 등을 제안했다.

뇌사 · 장기이식 · 안락사 분야 팀(곽만연 동아대 교수,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 황상익 서울대 교수)은 뇌사에 대해 “의식이 신체를 대상으로 집수하지 못하는, 즉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며 뇌사를 ‘죽음’으로 규정했다.

또 장기이식에 대해서는 “대승불교적 보시와 방생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자비정신의 실천”으로 평가했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건 안락사에 개입한 이를 추방이라는 중벌로 다스렸던 율장을 근거로 ‘반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안락사의 대안으로 “자신의 현재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호스피스운동”을 제시했다.

사형제도분야 팀(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백도수 동국대 강사, 진희권 경기대 법대 교수)은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증오를 증오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사회적 제도”라며 “악행을 반성하고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불교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 지속돼야

참석자들은 늦은 감은 있지만 불교계가 생명윤리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속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토론을 활발히 전개했다.

생명조작분야 보고서에 대한 논평자로 나선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인간 개념을 의미가 명확한 중심부와 의미가 희미해지는 주변부로 나누고, 배아복제 문제는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객관적 사실의 정체성이 흐려질 때에는 거꾸로 주관의 영역인 가치의 세계를 기준으로 삼아 사실의 세계에 선을 그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입각해 김 교수는 “수정란을 해치는 것은 살인행위라 할 수 있지만, 선한 가치가 분명하다면 인간 개념의 끝에서 이뤄지는 그 같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살인행위라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남결 교수는 “인간 개념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는 것은 윤리학적으로 유용한 개념이 아니다”고 일축하는 한편, “배아줄기세포연구에는 생명윤리와 연구윤리가 걸려있는 만큼 배아를 생명으로 간주하는 견해를 기독교적인 것으로만 간주하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희종 교수는 유사수정란이 착상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유사수정란도 착상이 가능하며, 기술이 축적되면 인간도 복제될 수 있다”고 밝히며 “훗날 우생학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불교생명윤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톨릭계는 성체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하고, 불교계는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종교에 따라 맹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태도는 적절치 못하다”고 우려했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피해자도 낙태를 해선 안 되느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고영섭 교수는 이에 대해 “교리적으로 볼 때 불살생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불살생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며 “원치 않는 임신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출산토록 해서 산모가 업을 짓지 않도록 하고, 입양시설을 확충해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사진=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2>

연료전지

2003년도 연두교시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연료전지의 개발을 위해 약 1조원의 연구비를 책정키로 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했다. 이를 계기로 연료전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됐다.

연료전지는 ‘fuel cell’의 번역으로,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를 충전하듯이 수소를 충전하면 전지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보다 오히려 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먼저 출현했다. 공학기술에서는 단위 부피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중요한데, 휘발유에 비해서 전지로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부피를 가지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짧아 충전을 자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100년 전 사라졌던 전지 자동차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산화 · 환원 반응에 의해 전기 발생
번뇌 일어남도 순간적인 전자 작용

전지가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간단한 산화 · 환원반응에 기초한다. 물질들은 각기 성질이 달라서 전자를 주고받는 능력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구리와 아연을 전해질 용액에 담구면, 아연은 전자를 주면서 +이온이 되고, 구리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외부에서 전구를 달아주면, 이 전자가 흘러서 전구를 켜는 것이다. 이렇게 전자를 주려는 물질(산화작용)과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물질(환원작용)의 성질 차이로 전기가 발생된다.

이러한 전자의 주고받음에 의한 전기화학적인 반응은 우리 몸이 음식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 심지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의 기본을 이룬다. 가령 음식은 소화기관에서 탄소물질로 변하는데, 이 탄소물질이 산소에 전자를 주는 산화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내어 놓음으로써 우리 몸의 체온과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내어놓는 작용이 호흡이다.

단지 우리의 몸에서는 서서히 산화환원작용이 일어나도록 신진대사를 조절함으로써, 급하게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오묘한 시스템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작용 또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물질의 전자의 주고받음에 의한 작용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긴 전기의 흐름이 신경 세포를 통하여 뇌로 전달되어 인식, 기억이라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유 없이 번뇌가 일어나고 자기 연민이 일어날 때, 이 번뇌가 단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전자의 작용임을 이해하자. 그리고 이 작용 역시 영원히 계속되는 실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 거대하게 흘러가는 신호와 에너지의 한 발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자.

다르마의 모습이 ‘경유능경 능유경능(境由能境 能由境能)’, 즉 경계(업, 유위법)와 주관(불성, 깨달음)이 서로 기대어서 흘러간다는 승찬 스님의 <신심명> 한 구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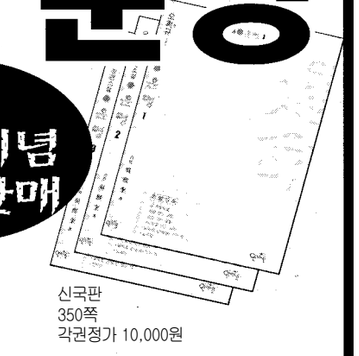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일주문



대구불교대학 '송년의 밤' 개최

대구불교대학장 지성 스님은 12월 14일 오후 6시 북구 종합유통단지 내 웨딩프라자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053)256-3725



은해사, 독거노인돕기 일일찻집 개최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12월 15일 오전 10시 문외동 강산찻집에서 독거노인돕기 일일찻집을 개최한다.(054)335-3318



서옹 대종사 2주기 추모재

장성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은 12월 20일 오전 10시 대웅전과 부도전에서 '서옹 대종사 2주기 추모재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한다.(061)392-7502



풍경소리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풍경소리 총재 지현 스님은 12월 21일 오후 7시 서울 송현클럽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피아노 반주곡집 출판법회를 봉행한다.(02)723-9836



대한민국 국회대상 특별상 수상

조계종 김홍식 성보전문위원은 12월 9일 문화재 포장분야에서의 탁월한 업적을 높게 평가받아 2005 대한민국 국회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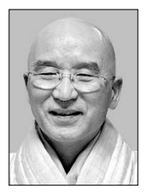


상담자원봉사 공로패 수상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은 12월 8일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1년간의 상담 자원봉사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와 금메달을 받았다.

정양모씨 은관 · 정재훈씨 보관 · 박준주씨 옥관 문화훈장

문화재청, 문화유산 보호 공로 인정 … 문화유산상에 신라문화원 · 인병선 수상



진철 스님



혜일 스님



정양모



정재훈



박준주



인병선

혜일 스님 문화재청장 표창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유산 보호에 공로가 큰 문화유산 보호서훈 수상자 4명과 제2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수상자 5명(단체 포함)을 선정, 12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수상식을 거행했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인 정양모 前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가 각각 은관문화훈장과 보관문화훈장을, 박준주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장이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정재훈 교수는 사찰, 왕궁 등에 조성된 왜식 조경을 한국식으로 고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박준주 회장은 1945년 불화 · 개금 · 단청을 배운 이래 불국사 해인사 동화사 수덕사 등 전국 사찰 단청과 불화 작업에 큰 공을 세운 것이 인정됐다.

제2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에는 '보존 · 관리' 부문에 인병선 짚풀생활사박물관장이, '봉사 · 활용' 부문에 시민단체 (사)신라문화원(이사장 진철)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신라문화원은 '달빛신라역사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통문화의 보존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창녕 술정리동탑 명예관리인으로 탑 보호에 앞장서온 혜일 스님(창녕 관음정사 주지)도 문화재청장 표창장을 받았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설법연구원 동출 스님, 신대현 · 황선정씨에 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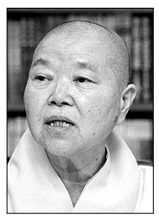
2001년부터 지원금을 받은 불교단체 활동가들과 동출 스님.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이 2001년부터 매년 불교단체 활동가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어 화제다.

"신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영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동출 스님은 "설법연구원에서 받은 월급 등을 모아 활동가들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올해 사찰문화연구원 신대현 연구위원과 불교상담개발원 황선정 사무국장에게 지급한 것을 포함해 13명에게 2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유철주 기자**

비구니회 발전 기금 마련 명성 스님 개인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사진)이 12월 23~30일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작품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명성 스님의 친필휘호를 비롯해 서예 및 지공예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명성 스님은 1966년 국전에서 서예로 입상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02)3411-8103 **강유신 기자**

남북화해 · 평화협력 공로 광옥 스님 대통령 표창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광옥 스님(사진)이 12월 8일 서울 장충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노무현) 사무처 강당에서 남북화해와 평화협력 실현에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정진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힌 광옥 스님은 현재 서울 관악구 봉덕사 주지로 활동 중이다. **조용수 기자**

불출협 '올해의 불서 10' 시상식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의 '올해의 불서 10 시상식'이 12월 5일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심사위원장 김호성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택 스님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양서를 출간해준 불교출판 관계자들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일산불교병원 연우회 창립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불자회 연우회(회장 이석현)가 12월 1일 병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석현 병원장이 초대회장으로 추대되고 이원철 한방병원장, 성익제 행정처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선출됐다. 지도법사 중제 스님은 "연우회가 앞장서서 환자들을 보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진각종 총금강회 대전지부 자선음악회



진각종 총금강회 대전지부(지부장 휴명)는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12월 1일 대전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했다. 대전지부 합창단의 12곡 음성공양으로 꾸며진 이날 음악회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대전교구청 휴명 정사를 비롯한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불기협, 2005 불교언론인의 밤 성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여태동) 불교기자대상 시상식과 불교언론인의 밤 행사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2월 6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개최됐다. 여태동 회장은 "회원 개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범율 '0%' 되는 날까지…"

대전교정청 신임회장 진공 스님



12월 6일 대전충청지역 교화위원들의 모임인 대전교정청 신임회장에 선출된 진공 스님(안성 수암정사 · 사진)은 "재소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포교"를 강조했다. '형식적인 교화'로는 재범비율이 낮아지지 않는 판단에서다.

진공 스님은 1973년 교화활동을 시작한 이후 홍성, 청주, 용인, 평택, 안성, 연기 등의 지방에 있는 교도소는 물론 서울구치소에서 교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구'다. 특히 스님은 1997년 천안소년교도소 불교 교화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뮤직 펀치' 한방 날려요

BBS 새 진행자 전창걸씨



"불법전파에 온몸을 던지렵니다."

불교방송 가을 개편에서 음악프로 '뮤직펀치(낮 12시 20분)'의 진행을 맡은 방송인 전창걸씨(39 · 사진). 뮤직펀치를 한 달째 진행하는 그의 각오와 목표는 남다르다. '사람냄새' 나는 솔직 담백한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것.

"현대적 감각을 살린 최신 음악 트렌드를 소개하는 것도 전략으로 삼아 청취자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5년 전에도 대구불교방송의 여행 프로 '전창걸의 마이카 여행'이란 코너를 진행했던 전씨는 "그때 스님의 예불소리와 잔잔한 풍경소리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대불청 사무실 이전 개소식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는 12월 8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4층 새 사무실에서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은 김익석 회장 외 20여 대불청 회원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돼 만해회관 건립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전 밀교신문 편집국이 최근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 파빌리온 611호로 이전했다.(02)6328-0136

정정 현대불교신문 제555호 14면 '조계종 제17회 포교대상' 기사 중 이정숙씨와 김혁숙씨의 사진이 바뀌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도량

지장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 복원불사 모연문

국내제일의 지장기도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가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이 소실되었습니다.

촛대와 향로 범종마저도 녹아내리는 높은 고열속에서도 본존불인 석가모니부처님은 하나의 손상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기적가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안중이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직경 2mm-3mm 정도)가 약 5mm-7mm로 두배이상 커진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제일기도도량의 면모를 굳건히 갖추어 중생포교에 더욱더 큰 불은의 가피력을 주고자하는 부처님의 깊은 뜻인가 싶습니다.

그동안 몇몇사찰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증과된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부처님진신사리가 커진 사실은 매우 희귀하고 보기드문 일로, 커진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몇생을 거듭 다시 난다해도 다시 만나보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커진 사리의 가피와 공덕은 복중의 최고의 복덕이요, 최상의 공덕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모셔둔 사찰의 영험은 뜻하는바 소원성취가 반듯이 이루어지고, 커진 부처님의 사리는 가피가 뛰어난 매우 진귀한 사리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뜻하는바 소원성취를 모두 이루시고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합장하고 발원합니다.



▌성거사 복원불사 조감도



▌석가모니부처님



▌부처님의 커진진신사리



▌가섭존자 ▌목건련존자 ▌부루나존자 ▌수보리존자 ▌아나율존자 ▌아난존자 ▌집단대사리 ▌부처님뼈사리 ▌부처님진신사리

복원불사 동참 목록

• 용마루 : 삼천만원 • 대들보 : 500만원 • 창 방 : 500만원
• 기 둥 : 500만원 • 석가래 : 100만원 • 도 리 : 200만원

불상 동참 목록

• 아 미 타 불 : 일천만원 • 관세음보살 : 일천만원
• 대세지보살 : 일천만원 • 문 수 보 살 : 일천만원 • 보 현 보 살 : 일천만원

불사 동참 계좌

• 농협 : 485110-56-018723 / 485049-56-017713 (예금주 : 성거사)

불사 동참자 현황

김화순 안희숙 최미자 안치영 고영인 유성용 이동우 장현순
백병국 김진옥 전경옥

◆ 시주 공덕자의 성함을 영구히 봉안해 드립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불사위원회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 041)567-6820



불자 세상보기

최 훈 동
한별정신병원장

과학의 논리와 비과학 논리

과학의 논리는 처음에 설정한 가설이 정당한 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하는 엄격한 검증 절차를 설정한다.

따라서 어떤 이론을 가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창조적 의문과 상상력, 그리고 추리력이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왜곡된 선입견을 당위로 전제한 추리는 사실 자체를 왜곡시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만다.

언론의 논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진실 여부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취재원 비밀 보호라는 불투명한 과정이 있어 취재 기자의 어떤 선입견, 예를 들면 유죄 또는 무죄와 같은 미리 내려진 결론에 의해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코끼리와 장님의 우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코끼리 구경을 나선 일단의 장님들이 각자 자기가 보고 체험한 코끼리에 대해 한마디씩 한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통나무처럼 생겼다. 코를 만진 사람은 소방 호스처럼 생겼다. 상아를 만진 사람은 단단한 뿔처럼 생겼다고 각자 자신이 옳음을 주장한다. 모두 일면의 진실을 내포하나 전체적 실상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진실 자체가 왜곡된 주장들이다.

이처럼 어느 사건이나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논리는 과학의 논리와 달리 장님의 코끼리 추론과 같은 맹목성이 깔려 있다. 어떤 사실이 알고 싶고 그것도 타 언론과 경쟁하여 신속하게 보도하고 싶은 만큼 과학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정확성과 치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번 MBC 'PD수첩' 사건은 치밀히 기획된 취재팀의 악의적 의도에 의해 세계적 학회지가 인정한 연구를 마치 사기극처럼 취급하였는데 이것은 공영 방송의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수많은 연구원들과 자발적 난자 공여자들의 순수성을 사기극의 공범으로 몰아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명예를 훼손시켰음은 물론이고 국가적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이 너무 크다.

과학적 연구에 대한 언론과 종교계의 관심은 좋으나 학문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과학의 연구에 대한 비판은 과학자의 또 다른 연구에 의해 학문적으로 반박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라도 윤리적으로 불순한 이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과학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세균 무기와 같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가정되더라도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세균에 대한 연구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배아 줄기세포 연구도 종교적 논리로 막을 수 없다. 우리사회 일부는 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연구라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윤리적 시비를 거듭하고 있다. 장차 인간 복제로 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지만 연구와 그 연구를 악용하는 문제는 별개의 차원인 것을 구별하지 못한데서 오는 논쟁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생명 윤리를 설정하는 것은 과학의 연구가 결국 인간 생명이나 삶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 또는 종교적 성찰이 함께할 근거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선을 지켜야 한다. 그 선은 과학의 진실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의 정의도 과학에서 규명한 사실에 입각하여 내린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인간 생명도 의학계의 정의를 존중해야 된다.

정합된 조건 아래에서 바른 결과가 일어나고 그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연생과 연멸의 진리는 과학적 논리와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종교적 권위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여 수많은 생명을 화형에 처한 중세의 마녀사냥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역사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12월 8일 마침내 국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만시지탄의 일이기는 하나 쾌거임에 틀림없다. 이제 대통령 직속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및 환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재산 환수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머지않아 독립투사의 후손은 빈곤 속에서 신음을 하는 사이에 친일파의 후손은 부유한 환경에서 배 불리는 모순은 어느 정도 시정될 것이다. 민족정기가 살아나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도 해본다.

올해 수락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내원암은 근래 친일파 후손과의 소송 문제로 온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제시대에 작위까지 받은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들은 내원암 명의의 토지 4만8천 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내원암은 소송의 주체가 되어 우리사회 거대 담론으로 자리 잡은 친일청산이라는 상징적 거사를 치렀다.

내원암 측은 이해창 소유 운운부터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맞섰다. 지루한 법정 싸움을 진행하면서 뜻있는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지지 속에 친일 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촛불집회까지 벌였다. 급기야 '위헌 법률심판 제청' 소송까지 제기하며 친일파 후손의 재산 찾기에 맞섰다.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내원암의 고통도 마무리 수순을 밟지 않을까 여겨진다. 12월 30일 최종선고를 앞둔 내원암은 당연히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더 이상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도 사라질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내원암 소송이 주는 교훈을 참으로 거룩하다. 친일 청산을 위한 투쟁에서 정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법 제정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친일청산의 의지가 더욱 강고히 해야 한다. 내원암 소송사건은 친일 청산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값진 교훈이기 때문이다.

윤범모(경원대 미술대 교수)

기고

드라마 속 홍가사 왜곡사례 많아

법현(태고종 사회부장)

TV 드라마나 영화 또는 연극이나 뮤지컬 등에서 스님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가사의 고증에 관한 문제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신돈'이라는 MBC 주말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편조 스님(신돈)이 홍가사를 수하는데 머리를 기르고 다니더니 태고 보우 국사는 밤색 가사를 수하게 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태고종 포교원장 무공스님이 정식 이의서를 제출했다. 그것을 받아들인 MBC가 겨우 한 일은 태고 보우 스님이 밤색도 붉은 색도 아닌 어정쩡한 빛깔의 가사를 수하고 오게한 것. 신돈은 또 갑자기 밤색을 입고 나오고 있다.

또 12월 2일에 방영된 MBC의 '직지'라는 기획드라마도 직지심체요절을 지은 백운경한 스님과 묘덕이라는 여인(여승)의 사랑이야기를 끄집어냈다. 또 백운 스님의 가사를 밤색가사를 수하게 하더니 선암사와 필자의 이의제기에 역시 필름작업을 거쳐 어정쩡한 중간색 가사를 수하게 했다.

한국불교의 전통가사는 삼국시대부터 홍가사가 분명하다. 고구려 시대에 홍가사를 수하고 있었음이 쌍영총의 고분벽화에 드러나고, 신라시대에는 자장율사, 원효대사, 의상대사 등의 영정 및 자장율사가 문수보살로부터 받았다는 석가여래의 가사 등에서 홍가사를 수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홍색가사가 많이 쓰였으며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밤색 가사(장삼)는 1950년대에 조계종이 창종하면서 보조국사의 괴색가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일반화된 것이다.

덧붙여 가사를 드리우는 시간과 장소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불교에서는 참선, 강의 등을 하거나 공양, 법회, 예불을 올릴 때 법의를 걸쳤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는 법회의식 등 뿐 아니라 외출을 할 때에는 가사를 드리운다. 심지어는 술을 마시거나 여인과 수작을 나눌 때에도 가사를 드리우고 나와서 문제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라마 자문에 신중해야 한다. 잘못된 고증은 어느 한 종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왜곡시키고 결국 불교의 본 모습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라마 제작자들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제대로 아는 이, 아는 곳에 자문을 하기 바란다.

과거사를 정리하기 전에

황경환(초기불전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진정한 화합은 용서와 이해로 가능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토록 집착하던 '진실 · 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한단다. 100여 년 동안에 걸쳐 일어났던 과거사의 진실을 캔다고 말이다. 잠깐 지난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1900년대가 시작 될 즈음 조선이 일제의 침탈을 받아 몰락하여 36년 이란 긴 세월을 속박과 억압속에 나라 잃은 슬픔에 시달리는 시절을 겪었다. 해방이 되자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 · 25,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자 다시 이어진 민족의 갈등은 결국 38선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 채 이승만 정권이 탄생하고, 배고픔에 찌들었던 보릿고개를 넘어 잘 살아 보자고 외쳐 됐던 박정희 정권의 제3공화국을 거쳐 한국은 지금에 이르렀다.

자동차, 선박, 철강, 반도체, IT기술, 건설, 플랜트 분야, 이제는 BT라고 하는 바이오산업까지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용트림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한 힘을 느낀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앞에 놓인 과제는 그러한 과거 점철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 충분한 대안과 제도를 만들고 겸손하게 한발 한발 전진하는 일이다.

모든 일의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러한 일에는 그러한 조건적 발생의 법칙이 있는 법이다. 지난날의 역사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잘 말해주듯 남인, 북인, 벽파, 공파, 노론, 소론 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당파싸움질과 아욕을 위한 아첨, 탐관오리들의 기막힌 권력 남용 등 역사가들이 말하는 그 과거사는 과연 지난 100여년의 세월과는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누구나 인정하듯 역사는 지난 과거사가 함께 섞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시작의 원인 발생은 그러한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사실 앞에 누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 스스로가 자유스럽다고 단정할 수 있으랴. 물론 선구자적인 삶을 살다간 사람들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원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진실, 과거사 정리라는 말은 어쩐지 내 귀에는 어떤 사람이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고, 기왓장을 갈아 거울을 만들겠다고 하는 한국불교에서 가끔 비유로 인용되는 말처럼 들린다.

신라의 고승 원효 스님은 "붕새(朋鳥)가 청운(靑雲)에 날아 오르면 산악에 나지막함을 알게 되고 하백(河泊)이 개천을 떠나 넓은 바다에 당도하면 정작 개천의 비좁음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했다. 이제 21세기를 향한 세계화를 넘어 '우주화' 시대에 정치인이나 정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우리 국민 앞에 보여야 하는 진정한 리더십은 진실이니 화합이니 하는 현수막을 앞세우지 말고 진정한 진실과 화합은 관용과 용서 그리고 넓은 이해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미움의 독기를 먼저 씻어 내는 일이 시급한 문제리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질없는 일에 미움으로 질주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미움의 독기는 자신을 망가뜨리고 이웃을 망가뜨리고, 사회와 국가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요소의 한 부분이라는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

부처님 당시 어느 제자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존자시여, 편안히 잠자고 슬픈 일 없음이 인간의 행복일진데, 어떻게 하면 편안히 잠자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미움을 끊어서 편안히 잠자고, 미움을 끊어서 슬프지 않다네."

잘해보자고 출발하는 진실 · 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또 다른 미움의 씨가 되는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러워진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깨달음(도통)과 불치병 난치병 각종암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 참선공(參禪空)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파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강력한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 교육후 神치유명상사 자격증 참선공 자격증 발급
◆ 지도자 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現卍 신선암 주지
現 참선공 협회장
現卍 치유명상 협회장

神치유명상가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 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토요반
15:00 ~ 18:30 (12회 과정)
● 전수비: 3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자비손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 · 해리 치유법
칠차원 생명법
전생 치유법
내생 치유법

卍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1번)

35억년전 탄생한 인류 미래식량

스피루리나

바다보다 8배 짠 미얀마 트윈탕 분화구 호수 서식

뇌파 안정 효과…미얀마 정부, 스님 200명 무상지원



자연산 스피루리나가 서식하는 미얀마 트윈탕 소금호수 전경. 250만년 전에 화산폭발로 이루어진 분화구.



스피루리나 코리아가 미얀마 정부와 독점 계약으로 올해 초부터 수입 · 판매하고 있는 '라이프 내츄럴 스피루리나'.

35억년전에 탄생한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인 '스피루리나(Spirulina)'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나사(NASA)에서 미래 식량과 우주식량으로 지정된 미생물이다.

국내에서도 80년대부터 인공배양으로 상업화에 성공해 현재 8개 업체가 경쟁중이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은 중국 하이난섬과 태국 사이암, 캘리포니아 어스라이즈, 하와이 등지에서 양식한 스피루리나 원료분만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바다보다 8배 짠 소금 호수인 미얀마 트윈탕 분화구 호수에 살고 있는 스피루리나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세계 유일의 자연산으로서 미얀마 정부의 통제하에 엄격하게 생산되고 있다.

스피루리나코리아는 올해 미얀마 수도 양곤과 서울 두 곳에 법인을 세우고 독점으로 자연산 염호의 풍부한 영양소를 먹고자란 스피루리나를 영양 보조식품으로 만든 '라이프 내츄럴 스피루리나'를 출시했다. 아직 정식 시판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일부 한정 판매 하는데 벌써부터 인기가 폭발적이다.

특히 뇌파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신체의 기능을 조화롭게 해줘 참선을 많이 하는 스님들에게 건강보조식품으로 안성마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미얀마에서는 스피루리나를 먹고 건강을 되찾은 아심 나니시라 스님(종정급)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매월 2백여명의 한정된 스님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스피루리나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아심 스님은 "스피루리나는 스님들의 채식생활로 인해 부족한 아미노산,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을 공급해 줘 수행생활의 필수 요소인 고도의 정신세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힌바 있다.

스피루리나 문종철 사장(42)도 "스피루리나에는 단백질 함량이 60%에 달하고 12종의 비타민과 18종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다. 또한 철분도 시금치보다 50배 높고 베타카로틴이 당근보다 10배 많이 들어 있다"며 채식을 하는 스님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어 문사장은 스피루리나가 불교와 인연이 깊다고 설명한다. 미얀마 트윈탕 소금 호수에 가면 수백년전에 조성된 스투파(탑)들이 여러개 있는데 미얀마 정부가 그중에 하나에서 의미심장한 비문을 발견했다고 한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 영원하리라"라는 문구였다. 이 문구를 미얀마 정부에서는 옛날 미얀마 불교의 선지식들이 앞을 내다보고 지구상 최초의 미생물인 스피루리나가 후세 사람들의 무명장수를 위해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스피루리나의 성능은 NASA(미항공우주국)에서 우주선에 승선하는 우주인의 비상식량으로 채택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어 UN(국제연합)과 WHO(세계보건기구), FDA(미국식품의약국),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에서 인류의 미래식량으로 지정한바 있다. 가격 3개월분 18만8천원

www. spirulinakorea.com, (02)2235-8849

스피루리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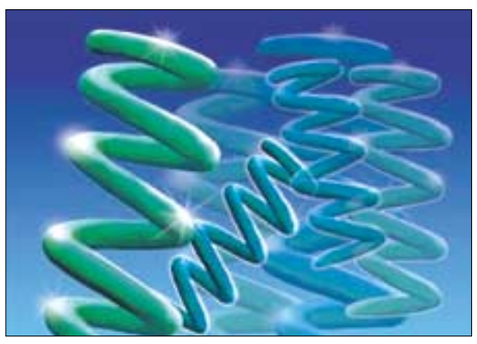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 최고의 완전식품

스피루리나는 지구에서 가장 먼저 생긴 생물체이다. 지구의 나이 40억년에서 5억년을 뺀 35억년이 스피루리나의 나이. 20억년의 나이를 먹은 클로렐라에게는 '증조 할아버지' 뻘이다. 식물성 동물성 해조류 박테리아의 성격을 띤 플랑크톤인 스피루리나는 사이아노 박테리아 또는 청색 미세남조류의 원핵 다세포 미생물이다.

용수철처럼 생긴 모양에서 비롯된 '스피루리나'라는 이름은 '나선형(Spiral) 모양을 하고 있는 미생물'이라는 의미다. 스피루리나는 호수 주변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식품으로 이용됐으며 16세기 아즈텍인, 마야인들의 주식이었다.

스피루리나의 생육환경은 혹독하다. 바닷물보다 6~7배 더 높은 소금함유량(10~20%), 기온 40℃와 수온 32~42℃의 고온, PH9~11의 강알카리성의 조건에서 자란다.

스피루리나는 필수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녹색의 완전식품이다. 특히 단백질과 녹황색 야채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이 풍부한 고단위 천연 엽록영양소가 많다. 인체에 필요한 5대 영양, 49가지 영양소를 비롯해 2~3만여 종류의 영양소가 함축되어 있다. 각종 성분이 인체와 거의 같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막이 없어 체내 소화흡수율이 95% 이상이다. 그래서 소화기능이 약화된 환자, 노약자, 유아 등이 섭취하면 효과가 크다. 장기간 복용해도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는 강알카리성 완전식품이다.



DNA 이중 나선구도와 흡사한 나선형의 스피루리나.

스피루리나의 뛰어난 효능은 다양한 곳에서 발현된다. 우선 체지방 분해에 탁월해 다이어트식품으로 각광받는다. 거기에 변비와 갱년기 지연 효과까지 있어 여성들에게 더욱 좋다.

스피루리나를 복용하게 되면 칼슘 및 철분 섭취가 쉬워진다. 때문에 빈혈 신경통 류머티스 골다공증 치료에도 효능을 보인다. 노화 방지 암 예방에 좋은 스피루리나는 면역기능을 항진시키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억제한다. 암의 전이와 AIDS 바이러스 및 고혈압 억제, 당뇨에도 효과가 좋다.

스피루리나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안정성과 영양면에서 완전식품으로 UN(세계연합), WHO(세계보건기구), FDA(미국식품의약국)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식품이다. 우주선 승선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NASA(미국항공우주국)에서 결정한 식품이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인류미래식량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스피루리나의 연구 연혁

1827년	독일 해조류학자 투르핀에 의해 스피루리나로 명명.
1970년	UN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인류의 미래식량으로 권장.
1976년	WHO(세계보건기구)가 미래식량으로 지정.
1980년	UN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인류의 미래식량으로 지정.
	UN IDO(유엔공업개발기구)가 인체의 영양과 안전성을 인정.
1986년	미국 NASA는 폐쇄상태에서의 효과적인 식량 및 산소공급계로 지정.
	US NCI(미국국립암연구소)는 AIDS 바이러스 억제효과 및 면역증진효과 발표.
1989년	US NCI(미국국립암연구소)는 항암 및 AIDS 바이러스 감소효과 발표.
1990년	미얀마 트윈탕호수에서 자연산 스피루리나 생산.
1991년	IO(국제해양학회)가 기아에 대비할 식량원 선정.
1993년	WHO(세계보건기구)가 스피루리나를 인류의 안전한 미래식량으로 지정.
1996년	미국FDA(미국식약청) 안전성 기준시험 합격.

스피루리나 제품의 특징

항목	일반 스피루리나	자연산 스피루리나	비 고
생장환경	인공적으로 조성된 농장에서 배양	자연적으로 생성된 분화구에서 생장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밀림지역의 분화구로서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청정호수
영양성분	생육환경에 필요한 미네랄성분 인공 투입	천연 미네랄 성분 다량 함유	일반 스피루리나 제품보다 향이 강하고 천연미네랄 특유의 인체에 유익한 성분 다량 함유
원말농도	100% 또는 그 이하	완전 100%	당분, 녹말 등 어떠한 물질이나 화학약품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 원말
포장방법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용기에 다량 투입	블리스터(Blister, 투명 플라스틱) 포장, PTP 방식	원말 성분의 변형을 막고 휴대가 간편함
에너지원	탄수화물 함량 20% 내외	탄수화물 함량 25% 이상	일반 스피루리나 제품보다 30% 이상 높은 탄수화물 함유량 인체 내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단백질 절약 및 활발한 장운동에 도움
면역기능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능	다량의 항산화 다당류	인체 내의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효소 다량 함유
기술진	미국 일본 등	독일	독일 미생물학회 기술진이 미얀마에 상주, 모든 생산과정 책임
기타	대부분 일본 DIC社나 미국 Cyanotech社 제품	미얀마정부(산업자원부)로부터 정식수입	대부분의 스피루리나는 DIC와 Cyanotech社가 인공 배양한 원말을 수입 가공해 판매, 라이프내추럴 스피루리나는 미얀마 산업자원부와 정식수입계약을 체결한 독일과 한국의 스피루리나코리아에서 독점 수입

섭취 방법

성인(고교생 이상)–성인의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1일 6~9정(3~4.5g)을 하루 2~3회 나눠서 섭취. 스피루리나를 아침식사 대용으로 할 때는 좀 많은 양의 생수와 함께 섭취.

초~중학생–성인보다 조금 적은 1일 4~6정(2~3g)을 하루 2~3회 나눠 섭취. 영양이 많이 필요한 성장하는 나이이므로 더 많이 먹어도 무방.

초등생 이하–어린이 기준으로 성인의 절반 수준인 1일 3정(1.5g) 정도의 스피루리나 섭취가 적당. 어린이의 경우 정제 섭취가 불편하면 정제를 적당히 분쇄해 우유나 요구르트 미숫가루 등과 혼합해 섭취.

유아(3세 이하)–1일 2~3정(1000㎎~1.5g)을 1일 2~3회 나눠 섭취하거나 분쇄해 분유 · 이유식 등에 첨가 섭취.

음용 방법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에너지, 건강 유지, 체중조절 그리고 몸의 정화를 위해 스피루리나를 섭취한다. 식간이나 식사 전후에 다른 음식과 상관없이 스피루리나를 이용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

스피루리나는 운동선수에게 더 많은 지구력과 에너지를 준다. 노인에게는 더 좋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임산부나 수유기의 산모, 아이들에게 이상적으로 안전한 식품이다.

1.휴대하기 편한 낱알 포장 형태로 언제든지 집에서, 일하면서, 이동하면서 사용.

2.건강한 하루를 위해 아침에 마시는 맛 좋은 과일 또는 야채주스에 가루형태로 만든 스피루리나를 섞어서 마시면 진정한 웰빙생활의 선구자가 된다.

향기 도반의

한글독송용 경전 시리즈 10권 발간

조현춘 교수

오늘의 언어로 '가르침' 읽어야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옮기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조현춘 교수. 그는 최근 무비 스님의 감수로 <한글독송용 불교경전 시리즈> 10권을 펴내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았다.

부처님당시 상황충실 · 육성취따라 이해쉽도록 원칙 세워
경전 한 줄에 몇 시간씩 토론, 반야심경 해석 15번 점검도
감수자 무비 스님 든든한 스승…"사는 날까지 법 전할것"

경전의 한글화. 따지고 보면 조선조 세종 때부터 계속되어 온 불사다. 그러나 수많은 경전을 한 시대에 다 번역하여 통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거기다가 번역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 '정설'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불자들은 경전을 읽을 때 문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지 않았거나 용어가 다소 적절치 않아도 한문을 번역한 탓이라 여기고 불편해 하지 않는다. '과연 이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경전읽기의 자세인가' 라는 의심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전은 그 시대의 언어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이지 '주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현춘 교수(경북대 심리학과 · 58)가 지난 10여 년 동안 붙잡고 씨름해 온 숙제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지금의 언어로 쉽게 경전을 읽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최근 숙제의 결과를 내놓았다. '한글독송용 불교경전 시리즈'. <지장경> <관음경> <불유교경> <아미타경> <예불문천수경> <일반법회> <매일법회> <금강경> <백팔대참회문> <보현행원품> 등 불교의 정수가 담긴 10권의 경전이다.

조 교수 혼자만의 작업은 아니다. 대강백 무비 스님이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다. 또 조 교수가 이끌고 있는 '화엄경과 화이트헤드를 연구하는 모임(이하 화화회)의 회원들이 초역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 든든하게 뒤를 받쳐 주었다.

조 교수와 무비 스님과 화화회 회원들. 이들의 '삼각관계'는 우리 시대의 언어질서에 맞는 경전 시리즈를 펴내는데 환상적인 콤비다.

조 교수는 경전을 번역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세웠다. 경전이 설해지는 부처님 당시의 상황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첫 번째 원칙. 예를 들면,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재현한 것이다. <금강경>의 장로 수보리는 부처님보다 40년 연장자다. 과연 부처님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까?

또 하나의 원칙은 '새천년육하원칙'으로 육성취(경전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원칙, 6하 원칙과 유사)를 구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교수는 "누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누가 보고 들었는가의 순서가 지켜져야 하고 이 육성취는 한 문장 안에 있어야 오해나 혼란이 없다"며 <금강경>의 첫 문장을 예로 들었다. '부처님께서 1250명이나 되는 많은 스님들과 함께 어느 때에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라고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원칙은 우리말이 갖는 리듬을 최대한 살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경전의 흐름을 장과 절로 구분한 것이나 결집자의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흐린 글씨로 인쇄하여 이해를 도운 점, 간단한 설명은 각주로 긴 설명은 용어해설로 따로 정리한 점 등도 돋보이는 작업의 원칙들이다.

조현춘 교수는 10권의 한글 독송 경전들을 보이며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명호만을 염하기보다는 <관음경>이나 <아미타경> 독송을 통해 불교를 먼저 이해할 것"을 강조했다. 경전 독송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동양정신이 없는 서양과학은 살벌하고, 서양과학이 없는 동양정신은 산만하다'고 생각한 조현춘 교수는 20대 초반부터 서양 상담, 심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한편, 도덕경, 논어, 천자문 등을 통한 동양의 정신을 두루 탐구했다.

젊은 시절부터 동양정신을 좇았지만 나이 50을 앞두고도 불교를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조 교수는 1993년부터 <금강경>을 화두삼아 잡고 늘어졌다. 3~4년 후 자신이 정리한 <금강경> 해석본을 가지고 무비 스님을 찾았다. 그러나 무비 스님은 대뜸 그를 '미친놈' 취급했다. 그 당시 무비 스님은 법거량을 해보자며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던 때였다.

조 교수 또한 막무가내로 해석본을 놓고 갔다. 3주후 다시 스님을 찾았을 때 스님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스님은 원고를 책으로 펴내야 한다고 그를 독려했다. 그로부터 무비스님은 조 교수에게 가장 친절하고 든든한 스승이요 감수자가 됐다. 1998년 <금강경>을 출판하며 '한글독송용 경전 시리즈'로 이어졌다. "저는 그저 정리하고 스님께 점검받는 심부름만 했을 뿐, 화화회원들이 모두 같이 의논해 만들었습니다."

조현춘 교수는 한글독송용 경전 시리즈를 화화회원들의 공으로 돌렸다. 화화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안형관, 강수균 교수 등 9명의 주 회원과 그 밖의 임시 회원들로 진행되는 화화회는 공의와 점검을 통해 이미 나온 한글 독송용 경전들을 놓고 비교 검토하는 데도 한 몫을 했다. 학자들 특유의 치밀함은 글자 한 자, 오자 한 자 넘길 수 없었다. 경전 한 줄을 놓고도 몇 시간씩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반야심경>의 경우 몇 달의 고민을 거쳐 발표하고, 신랄한 비판과 반대의견에 봉착해 한바탕 토론을 하는 등 연구 · 발표 · 점검이 15번이나 반복됐다.

이렇게 화화모임에서 일차 점검이 끝나면 이제는 무비 스님과의 담판이 남았다. 스님과의 담판도 치열했다. 꼬박 3시간 40분을 자세한 번 흐트리지 않고 논의한 적도 있다.

5년 전 등산을 하다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조 교수. 그 후유증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다. "이미 생사의 문턱에 갔다 왔기에 어떤 욕심도 없다"는 조 교수는 사는 날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경전 번역의 원을 세웠다. 조현춘 교수는 오늘도 특유의 트레이드 마크 '허허허' 웃음을 지으며,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경전을 넘기고 독송을 한다.

글 · 사진/대구=배지선 기자


'화엄경과 화이트헤드를 연구하는 모임' 회원들은 조 교수의 번역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버팀목이다.

양주 대원정사(大願精寺) 3년 천일 지장기도 동참 안내

제방의 도량을 탐방하며 수행정진 하던 중 지장도량 건립 불사의 뜻을 세워 1986년 양주 일영리에 대원사(大願寺)라 명명하여 자그마한 지장도량을 창건하였으나, 관광유원지화 되면서 수행도량의 유지가 어려워 1989년 현재의 이곳에 부지를 확보하여 천막과 비닐하우스 등 임시가건물에서 8년 동안 밤낮없이 불사성취 원력기도 수행과 땀의 결실로 현재의 도량을 건립하였습니다. 중생의 약하고 나태한 심신과 모든 흡어진 것들의 근원을 한곳에 모으는 의미에서 대원정사(大願精寺)라 사찰명을 개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장대불 입상(35자) 좌우보처 도명존자 무독귀왕, 삼살개 조성봉안을 시작으로 육지장 입상, 명부전(영가 장기 보존), 대웅전, 천당과 지옥 등 불교 관광지를 조성하여 고통 받는 중생들의 안식처와 의지처로 가꾸고 성취해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소납의 기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3년 천일 지장기도를 발원하오니 뜻깊고 인연있는 불자님들은 수희 동참 바랍니다.

대원정사 주지 해련 합장

3년 천일 지장기도 기도시간

- 지장대불 철야정진기도
  - 시간 : 매주 토요일 밤 11시 ~ 새벽 4시
  - 장소 : 지장대불 앞
- 신중기도 : 매월 음력 1일 – 3일
- 산신불공기도 : 매월 음력 3일 오후 7시
- 약수터 용왕 불공기도 : 매월 음력 8일 오후 7시
  - 매일 : 새벽 3 ~ 6시 / 오전 11시 ~ 1시 / 오후 5시 ~ 7시

천일기도 동참안내

- 스님 백회 공양 참회기도
  법당에 가족등(황금색)을 올리고 3년 천일기도 회향때 스님 100분을 모시고 대중공양을 올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는 큰 행사입니다.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을 현판에 각인하여 그 큰 공덕을 오래 전할것입니다.
  - 매일 3,330원 / 매월 100,000원 / 3년 360만원
- 법당 황금색등 (가족단위) 1달 3만원 / 3년 100만원
- 외부 기도 등 (1인 한등 5만원 / 2인 한등 75,000원)
  - 100일간 30만원 / 49일간 20만원 / 21일간 10만원


2005년 8월 31일 (벽제 동아석건에서 조성)
지장보살님, 무독귀왕, 도명존자를 모시는 도중에 맑은 날씨임에도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20분간 내려 도명존자의 두 눈에 눈물 자국형상을 남기고 하늘은 다시 청명해 졌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벽제 동아석건에서 조성)
오후 3시 10분 지장보살님께서 육환장을 손에 쥐시자 화창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무지개가 지장보살님의 머리위에 1시간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 대원정사에서는 납골당과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농협 201058-52-053979 (박경자)

대한불교조계종 고령산 앵무봉 대원정사 주지 석해련 합장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고령산 앵무봉 (장흥유원지 내) 전화 031)855-5501~3

나의 수행법

<법화경> 사경기도 체험기 - 최태숙 (中)



<법화경>이 어떤 경전인지도 몰랐다. 그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8년간 설하신 경 정도로 알고 있었다. <법화경> 사경은 경산도량에서 처음 시작했다. 총 7권으로 돼있는 사경노트를, 매일 1권을 3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경을 했다. 회향하는데 한달 3일정도 걸렸다. 그러던 중, 문득 '내가 화를 내지 않게 됐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으니, "그래, 당신 요즘 화를 안 내더라"고 인정해줬다.

그런데 2권부터는 사경을 좀 소홀히 했다. 일이 있어 못하는 날도 생기고 4권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자 화를 내지 않던 현상이 도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다락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병원에서 한 달간 꼼짝달싹 누워 계시고, 두달간 집에서 요양을 했다. 대소변도 다 받아 내야 했다. 처음 며칠간은 힘도 들고 절에도 가지 못해 마음은 착잡했다. 남편이 쉬는 날 하루 교대를 해주면, 그제서야 집에 와 <법화경> 사경을 했다.

잠시 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어머님 병간호를 할 수 있는 것도 내 복을 짓게 해주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시방세계가 부처님 계신 곳인데 꼭 절에 가지 않더라도 기도를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니 힘들게 생각되던 병간호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법화경 바른수행 기도회'에서는 예불과 사경과 독송과 참선으로 2시간 기도를 한다. 참선은 스님이 지도해준다.

스님은 기도를 할 때는 일념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것을 해서 될까 안 될까 생각이 들어오면 그 기도는 헛것이라' 했다.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글 <법화경> 사경하는 한 도반의 사연을 듣게 됐다. 절에도 다니지 않았던 이 도반은 이웃집 불자에게 사경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법화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경을 하면 좋다는 권유가 설득력이 있었을까?' 하지만 그 도반은 이웃집 불자들의 도움으로 경산도량에 나와 지금 <법화경> 사경 수행을 하고 있다.

그 상황이 궁금했다. 계기가 뭐였을까? 그 도반이 한글 <법화경> 사경을 6번 썼을 때, 부처님의 가피 입은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마흔 살 때부터 고혈압을 앓았던 도반은 약을 끊고 싶었다.

사경하는 동안 화내지 않는 자신 느껴
어머니 간병하며 감사한 마음 우러나

그런데 사경을 하면서 약을 끊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이 지금도 <법화경> 사경하고 있다. <법화경> 사경공덕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그 도반과 광복절 전후로 제주도 평화통일 불사리탑 <법화경> 봉안식을 함께 갔다.

그런데 <법화경> 봉안식이 시작된다. 얼마 후, 하늘에 떠있는 해가 방광을 했다. 그리고선 사방에 꽃비가 내렸다. 너무나 신기한 현상을 목격한 난 부처님의 위대한 힘에 감격했다.

기도의 에너지가 모아지니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우리에게 위신력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모두들 환희심이 나서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주지 스님은 "해가 방광을 하면 할 뿐, 우담바라가 피었으면 피었을 뿐, 불자는 그런데 끄달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신심이 깊지 못했던 난 그 현상을 체험하고서야 깊이 믿는 마음이 생기고 신심이 더욱 확고해졌다.(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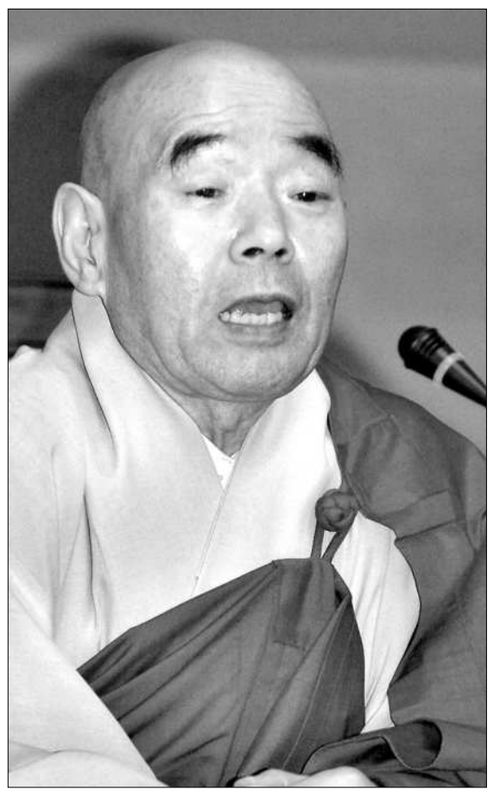
■ '법화경' 바른수행모임 회장

'번뇌라는 도적' 계율로 붙잡아라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 불교서울전문강당 초청 '계율과 수행' 특강

"수행 없이는 절대로 열반과 해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이 12월 8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마련한 초청 특강에서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은 40여 대중에게 "오직 지계행으로써 수행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행자는 '바른 믿음'을 통해 수행의 첫 걸음을 올곧게 내딛어야 하고, '번뇌라는 도적'은 계율로 붙잡아야 한다고 법문했다. '왜 계율이 필요하고, 수행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날 스님의 특강 내용을 요약한다.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이 12월 8일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마련한 초청특강에서 '계율과 수행'을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 수행의 첫걸음, '바른 믿음' 키우는 계율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맹신이다. 또 미친 사람처럼 믿는 것은 광신이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 다 배격했다. '바른 믿음'을 정신(正信)이라 하는데, 그 반대는 사신(邪信)이다. 삐뚤어진 믿음은 광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이다.

<지도론>에서는 "불법 대해에는 믿음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종교는 믿음이 없이 성립될 수도, 깊이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맹신하고 광신을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열반에 도달할 수 없고,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곧 해탈할 수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계율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믿고 가는데 '사다리'와 같다. 계율에서 수행의 첫걸음인 '바른 믿음'이 시작된다.

 # 계율이 수행에 필요한 까닭은?

흔히들 과정은 어떻게 되든지 목적에만 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도만 깨달으면 됐지 계율이 뭐가 중요하느냐고 주장하는 출 · 재가자들이 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부처님은 목적도 과정도 모두 중시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인 팔정도로써 강조했다.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철저한 지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논서(論書)에서는 계정혜 삼학 가운데, 계가 첫 번째라고 강조한다. 부처님은 사성제에서 도제(道諦)가 바로 팔정도요, 팔정도가 중도라고 말한다. 맹신도 광신도 아닌 바른 믿음은 바로 중도적인 믿음이라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팔정도에서도 정어(正語:바른 언어적 행위) 정업(正業:바른 신체적 행위) 정명(正命:바른 직업과 규칙적인 생활에 의한 바른 생활)은 바로 삼학 중 계에 해당하는 덕목이다.

계율은 해탈로 가는 '사다리'
출·재가 모두에게 의무사항
한가지 수행법 정해 집중을

그래서 <성실론>에서는 "계는 번뇌라는 도적을 붙드는 것과 같고, 정은 번뇌 도적을 포박하는 것이며, 혜는 번뇌라는 도적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한다. 즉 번뇌라는 도적을 붙들어야 포박할 수도 있고, 그 번뇌라는 도적을 꼼짝 못하게 죽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계율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 계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 가운데, '계피(戒皮)'란 말도 있다. '계의 피부'란 뜻이다. 그리고 정(定)은 살, 혜(慧)는 뼈에 비유한다. 즉 '계피정육혜골(戒皮定肉慧骨)'이란 말로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피부암에 걸렸으나 고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삼학 가운데 계를 처음에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교단 안정시키기 위해 계율 제정

스님들은 스님답게 살 의무가 있고, 재가신도는 재가신도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다하도록 만든 것이 계율이다. 여기서 '계'란 글자의 한자를 살펴보면 '두 손에 무기를 들고 경비를 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짓고 고통 받으며 사는 걸까? 번뇌 때문이다. 번뇌로 죄를 짓고, 그 죄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고통의 원인인 번뇌를 없애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계란 도구이다.

<율장>에 의하면, 처음 계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칠불통계(七佛通戒)였다. 그 가르침만 갖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러다 부처님 성도 후 12년이 되던 어느 해, 속가 모친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자식을 낳아준 수비나 비구의 문제가 발단이 돼 본격적으로 계율이 하나 하나씩 제정됐다. 부처님이 계율을 마련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교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란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 지계에는 출 · 재가 '따로' 없다

이처럼 중요한 계율은 출 · 재가에게 따로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이같이 생각하거나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출 · 재가자든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사항이지, 자유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교단을 구성하는 출가 5부중(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재가 2부중(우바새, 우바이)이 계율에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통계조사조차 없다. 계율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다.

선(禪)에서 열반을 안심입명이라 하는데 그 자리는 수행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진정한 불자라면 수행을 해야하고 계율 정신으로 믿음의 힘을 길러야 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누구도 계율에 융통성 부여할 수 없다

질의응답

문1 : 오계를 받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때마다 참회를 하지만, 늘 이처럼 범계를 반복한다. 참회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인가?

답 : 지킬 수 있는 계목만 지켜도 된다. 이를 분수(分受)라 한다. 지계에 자신이 있으면 수계할 때 각 계목에 대해 대답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답하지 마라. 거짓말을 할 바에는 '지키겠다'고 대답하지 않는 좋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계율을 모두 지킬 수 없다. 참회를 하면, 더러운 옷을 세탁하듯이 깨끗해진다고 했다. 잘못을 했어도 바로 뉘우치면 그것은 용서가 된다. 단 그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

문2 : 현대사회에서 중도적 삶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계율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답: 개차(開遮)법은 부처님만이 할 수 있다. 지금은 무불(無佛)시대다. 어느 누구도 계율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없다. 여기에는 방편도 적용 안 된다.

문 3: 스님께서는 승보(僧寶)를, 구족계 받은 비구 · 비구니만 적용된다고 했다.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는 승보에 속하지 않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답 : 사미는 넓은 의미에서 비구에 속하나 승보에 들지는 않는다. 사미는 사미라 하지, 사미승이라 하지 않는다. 식차마나, 사미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출가 5부중 가운데, 비구 비구니를 승보라 하고, 나머지 3부중은 승보가 아니다. <석문귀경의(釋門歸敬儀)>에 따르면, "비구 비구니 2부중이 승보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적혀있다. 사실 승의 개념도 처음에는 비구만을 의미했다. 그러다 구족계만 받으면 도를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이 승보에 속하게 됐다.

문4 : 사회적 이슈인 줄기세포에 관련된 종교적 이견이 있다. 스님의 의견은?

답 : 불교에서 생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다. 계율이 윤리의 문제지만, 줄기세포 관련 사항은 불교의 생명관과 결부시켜 이해할 부분이다. 내가 성체세포니 배아줄기세포니 하는 것을 계율과 결부시키면, 논란만 부추길수 있다.

봉 국운융창 및 대구경제 회복기원 대법회 행

대구 지하철 참사 영령 위령제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영령 위령제

푸리라마 린포체 마정수기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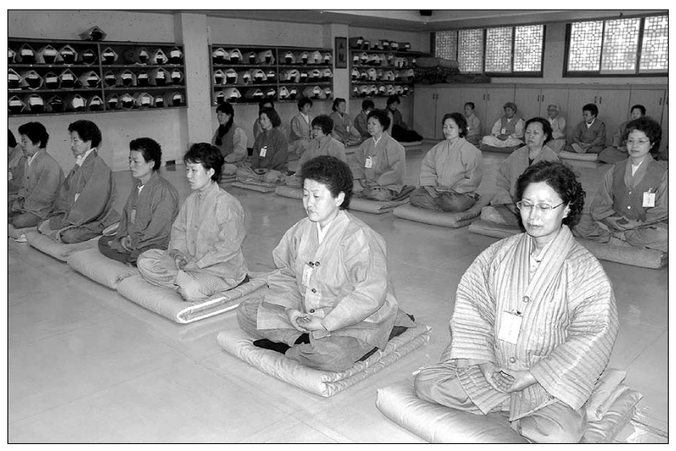
■ 일 시 : 불기2549(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엑스코)유통단지
■ 주 최 : (사)국제불교승가회
■ 주 관 :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 후 원 : 대한불교종단연합회
■ 문 의 : 053)986-0344 ~ 6 호국불교단체협의회
010-7360-8828 / 011-502-3966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법타스님의 '달마도'와
인도 부다가야에서 가져온 '보리수잎'을 **무료증정**합니다.

대구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회를 봉행합니다
대구지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⑲ - 인천 용화사 보살선원

머리속 모든 지식 버려라



170여 재가선객들이 12월2일 인천 용화사 보살선원에서 참선정진을 하고 있다.

1년내내 선원 문 '활짝' …쉼없이 정진
매일 1시간 전강·송담 스님 법문 청취

그곳은 염전(鹽田)이었다. 바닷물이 숨 턱 밑까지 차들어 왔던 광활한 소금밭. 그 한복판에 우뚝 선 언덕에 복전(福田)을 일궜다. 산등성이엔 부처님 집을 짓고, 산기슭엔 깨달음의 밭을 개간했다. '전강(田岡)'이란 법호처럼. 그리고 지금은 장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그 마음 밭을 갈고 있다.

인천 용화사 보살선원(원장 송담). 서른셋에 통도사 보광선원 조실로 추대됐을 정도로 선풍을 드날렸던 전강 선사(1898~1975)가 문을 연 참선도량이다. 매년 1백여 명의 출가자가 방부를 들이고, 1천여 명의 재가자가 보살선원과 시민선원에서 사시사철 가부좌를 틀고 있다.

그래서일까? 동안거 중인 용화사 보살선원은 '싸움터'였다. 새벽3시 기상, 4~5시, 오전 8~10시, 오후 2~4시, 저녁 7시~9시 정진에서 자신과 찐하게 한 판 붙은 재가선객의 낯빛은 결연했다. 구도의 칼날은 날카롭게 섰고, 움켜쥔 의심에는 잔뜩 독이 올라있었다.

 # 펄떡이는 화두를 잡아라

무거운 침묵은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선원장 송담 스님의 육성법문에 깨졌다.

"1분 1초도 참나를 찾는데 노력하세요. 죽은 자식의 고추 만져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 봐야 깨달을 기약은 요원합니다. 화두에 골똘히 의심하고, 그래서 꽉 막혀 알 수 없는 의심으로 화두를 관조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살아 있는 참선입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올 동안거 방부를 들인 재가선객 171명의 마음에 그대로 꽂힌다. 좀처럼 흐트러짐을 용납하지 않는다. 선지식의 보이지 않는 죽비가 1시간 내내 불을 뿜었다.

'활구(活句)참선'. 용화사 수행의 고갱이다.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통해 알아 들어가려는 죽은 참선을 배격한다. 오직 알 수 없는 의단을 깨부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참선법이다.

그래서 송담 스님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까지도 다 놓아 버리라고 한다. 철저히 '멍청이'가 돼야만 수행자로서 대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선원에서 10년째 수행 중인 권오연(75 · 인천 주안동)씨는 "활구참선을 통한 공부는 자식들과 갈등을 겪을 때에도 별로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했다"며 "화두를 들면 온갖 경계와 장애들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 '들어라, 문득 깨치리라!'

'스승의 육성법문 듣기'. 용화사 보살선원의 대표적인 수행가풍 중 하나다.

1년 365일 매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씩 '살아 있는' 스승들의 법문이 선원 곳곳에 흘러나온다. 한국 현대불교의 선지식인 전강 선사와 송담 스님의 법문 녹취 테이프 1400여 개가 5일 단위로 번갈아 틀어진다.

보살선원 입승 서봉 스님은 "육성법문은 선지식의 숨소리까지도 고스란히 현장으로 다가와 수행자들에게 무한한 신심과 자비심을 보내고 있다"며 "이를 빨리 알아차려 깨달음의 단초를 잡아내면 활구참선의 든든한 밑천이 된다"고 말했다.

그럼, 재가선객들은 '육성법문 듣기'를 통해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을까?

선원에 첫발을 들여놓은 지 30년째라는 김귀애(70 · 인천 창영동)씨는 "어느 순간 스승의 말씀 한 구절이 머리에 스쳐 닿으면, 가슴에 박힌다"며 "특히 '이렇게 놀고먹는데 애착을 가지면, 죽을 때 사지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전강 스님 말씀은 수행의 경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4년 전에 선원과 인연 맺은 최정숙(75 · 서울 서초동)씨도 마찬가지다. 육성법문이 자신의 삶으로 고스란히 녹아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성법문 공부법도 소개했다.

"육성법문에 매몰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구절구절 하나에 집착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려 애쓰지 않아요. 그대로 흘려보내요. 왜냐하면 육성법문을 내 알음알이로 해석하면 스승의 참뜻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무엇을 강조하는지' 법문의 진정성만을 느끼려고 노력해요."

 # 닫히지 않은 선원 문

용화사 보살선원은 사계절 내내 문을 연다. 하 · 동절기만 안거를 지내는 대부분의 선원과 달리 연중 내내 재가선객의 방부를 받고 있다. 여름 · 겨울 정기 90일 안거와 45일간 춘 · 추계 안거로 나눠 빈틈없이 정진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잠시도 수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전강 선사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1984년 개원된 보살선원에서는 3개월간 용화사 출가대중들과 똑같이 수행을 한다. 용맹정진의 수행강도에서 만큼은 출 · 재가자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이와함께 용화사는 보살선원 이외 시민선원을 두어 출 · 퇴근 직장인들에게 수행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032)872-6061 yonghwasunwon.or.kr

글 · 사진/인천=김철우 기자

송담 스님에게 듣는 활구 참선법
자세 · 호흡 바르게, 생각 옳게 지어가야



송담 스님(사진)은 수행자가 활구참선을 하려면 우선, 자신의 온갖 지식과 상식을 다 버리고 백지상태에서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올바른 활구참선을 위해서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호흡을 바르게 하며, 생각을 옳게 지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말과 행동과 마음씀에 덧붙여 '이뭣꼬'를 참구해야 하며, 앉으나 서나 걸어가면서나 일하면서나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이뭣꼬'를 놓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스님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속이 상할 때나 외롭고 슬플 때나 무슨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이 일어날려고 하자마자 탁 숨을 단전까지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뭣꼬', 숨이 다 나가면 또 들이마셔 내쉬면서 '이뭣꼬', 이렇게 하다보면 치밀어 올라오던 가슴이 쑥 가라 앉으면서 저절로 참 나를 찾는 공부로 나아간다"고 조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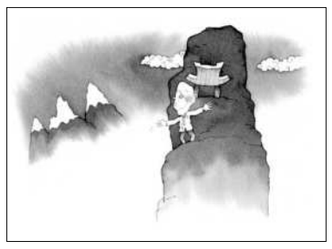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7> 겨울산에 눈꽃이 피니

금강산은 겨울이면 이름마저 개골산(皆骨山)으로 바뀐다. 살점은 모두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다는 의미다. 어디 그 산뿐이랴. 모든 산에서 그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계절이다. 꾸미지 않는 수수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본다. 이를 운문 선사는 체로금풍(體露金風)이라 했다.

한 납자가 "나무잎이 시들어서 바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으니 "앙상한 모습을 드러낸다" 라고 대답한데서 기인한다. 찬바람에 잎이 지고 나면 나무들은 남겨야 할 것만 남겨둔다. 산도 나무도 군더더기 없이 함께 어우러진 단아한 기품은 선종집안의 가풍과 더없이 어울린다. 그래서 선사들의 이름에는 '설(雪)'자도 많이 보인다.



산과 나무위로 펑펑 눈이 쏟아지면 모두가 설산이 된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산이라고 해도 손에 잡힐 듯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다. 정신은 더욱 명징해지고 두 눈 역시 청안(淸眼)이 된다.

법당서 추위에 떠는 납자들 안쓰러워
따뜻한 방서 화두 들게하니 '꾸벅꾸벅'

무주(婺州) 명초덕겸(明招德謙)선사가 매우 추운 날 상당(上堂)하였다. 선사는 왼쪽 눈을 실명하여 '독안(獨眼)'이라고도 불렸다. 대중을 교화하는 수단과 예리한 선기는 당시에 대적할 자가 없었다고 한다. 법당에 모인 대중들에게 오랜만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날씨가 차가우니 여기는 그대들이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아니로다. 모두 따뜻한 방으로 가서 참구토록 하라."

그러고는 모두 법당을 나가도록 했다. 대중들은 '좋아라' 하면서 좌선에 드는가 했더니 얼마 후 모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선사는 주장자를 휘두르면서 몽땅 추운 법당으로 다시 내쫓아버리며 중얼거렸다. "따뜻한 곳에 오자마자 졸기 시작하는구나."

선사의 자비로움으로 추위를 피하도록 배려한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앉아서 모두 존 것이다. 대중건강이 염려돼 옮겨 주었더니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수마보다는 동(冬)장군이 공부에 훨씬 낫다. 모조리 두들겨 패서 다시 냉방으로 쫓아버렸다.

하지만 냉기는 감기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지나친 기침소리는 주변까지 공부방해를 한다. 그래서 선사들은 미리 대중들에게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하지만 그 결과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한 납자들은 한철 내내 감기로 몸살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늘 목에는 흰 명주 목도리가 둘러져 잔기침을 콜록거린다. 하지만 기침도 기침 나름이다. 고산(鼓山)문하의 어느 납자 기침은 그 의미에 있어서 보통 기침과는 차이가 있었다.

고산 선사가 시중(示衆)하여 말했다.

"고산 문하에서는 기침(咳嗽)을 하지 못하느니라."

이에 어떤 납승이 나와서 기침을 한번 하니 선사가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기(傷寒)가 들었습니다."

이에 선사가 말했다. "감기라면 어쩔 수 없지."

대중처소에서는 인정과 원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너무 원칙만 앞세우면 살기가 빡빡해진다. 그렇다고 인정에 지나치게 끄달리면 도심(道心)마저 성글어진다. 두 선사의 자비심과 원칙론의 조화는 겨울 대중살이의 중도적 측면을 소박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흰 눈이 내리는 날, 방문을 활짝 열고 좌복위에 앉아 바라보는 선경은 화두마저 저만치 놓아버리게 한다. 그래도 공부하는 이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 날 안주(安州) 대안산(大安山) 숭교능(崇敎 能)선사 회상에서 오고간 문답이다.

"어떤 것이 한 겨울의 경계입니까?"

"천산(千山)은 증수색(增秀色)하고 만수(萬樹)엔 개은화(開銀花)로다."

모든 산이 우뚝함을 더하고, 온갖 나무에는 눈꽃이 피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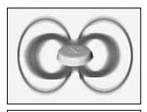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생명체를 컨트롤하는 파워자기장 척추크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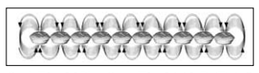


1. 우주와 인체내 자기장의 원리와
2. 척추와 12장부의 상호작용을 설명했습니다.
3.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데도 병원에선 괜찮다는 진단결과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4. 내몸의 질병을 자신이 직접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5. 12장부의 대표적인 치료법을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분도 도해를 보고 척추를 중심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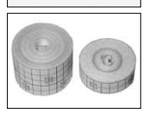
세계최초로 3200 가우스의 강력한 의료용자석 개발!!



◗ 대형자석
1. 크기 : 지름 2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 30개
3. 특징 : 320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 소형자석
1. 크기 : 지름 1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 30개 3. 특징 : 314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 반 창 고
1. 크기 : 대형반창고 – 넓이 50mm 길이 10m
소형반창고 – 넓이 25mm 길이 10m
2. 특징 :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반창고

제품 한세트 구성요소 가격 185,000원
치료용 책 1 권 + 대형자석 30개+
소형자석 30개 + 대형반창고 1롤 + 소형반창고 1롤

파워자기장이 필요하신분들
● 척추와 인체에서 발생한 모든 통증 ● 불치성 심장질환이나 간, 폐, 위장, 대장, 신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오십견, 좌골신경통, 요통등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질환 ● 남성들의 정력감퇴, 조루,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치질, 감기, 두통등의 질환

실증자료

가톨릭의대
채정호(여의도 성모병원), 이창욱(강남 성모병원)교수팀과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의대의 마크 조지 교수팀은 기존 치료방법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우울증, 강박증 환자를 상대로 자기장치료를 실시한 결과 확실한 호전반응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우울증외에도 각종 불안장애, 운동장애, 정신분열등의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팀이 생리통 환자를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실시한 결과 90%이상의 환자들이 생리통이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뉴욕AP통신에 따르면 뉴욕의과대학 신경과 전문의 마이클 웨인트러브 박사가 루프스등의 질환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자기장 치료를 4개월간 실시한 결과 90%이상이 통증이 완전 해소됐으며, 당뇨병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작열감, 자통, 저림같은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3개월간 실시한 결과 거의 100%에 가깝게 통증이 해소 되었다고 한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파워자기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 홍현의)

발명특허 출원중 | 의료기기로 보사부 허가 필 | 보사부 의료기기 허가번호: 제2244호

내 몸의 통증을 내가 치베에야 무명장수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은 자기장이 최고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발생하면 관련된 부위에 반드시 통증이 나타나며
이런 통증을 제대로 다스려야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kr /E-Mail : jibub3110@hanmail.net

2006년도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제8기 모집 및 범음범패 동계교육
1. 자격 : 스님 및 교임포교사 일반불자와 불교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교육기간 및 내용 (12월 26일 - 12월 30일까지)
◆ 12월 26일 :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목탁, 요령), 39위 신중작법, 소창물외 - 오전 10시 도착
◆ 12월 27일 : 구병시식, 안택기도, 조석예불 종성 외
◆ 12월 28일 : 회심곡(화청), 종사관욕, 점안의식, 용왕불공, 방생의식 외
◆ 12월 29일 : 시다림(상가염불하는법). 바라춤, 종사영반, 사다라니 바라춤.
◆ 12월 30일 : 요잡바라, 전수바라, 관음시식 외
3. 교육비 : 300,000원정(숙박 숙식 포함) ※교재비 별도
4. 모집일시 : 12월 20일까지 한함.
5. 준비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세면기, 녹음기(소형)
6.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 교육받으실 분은 미리 송금하시고 전화 바람.
◆ 통신교육 : 매월 2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12시까지
▶ 예수재 교육, 49재, 천도재 교육, 범패교육 녹음테이프 20개 십만원
7. 교육장소 및 문의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강의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9-14
062)362-8604 /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노혜공 합장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고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제8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0강 개인의 가치 vs 공동체적 덕목(1)

삼계유식(三界唯識), 세계는 이미지(相)이다! 우리가 쓰는 말은 바로 그 이미지들의 이름표인데, 이들은 홀로 있지 않고, 연관된 가치의 그물로 짜여져 있다.

말에는 자성(自性)이 없고, 의타기(依他起)로만 존재한다. 말의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 마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맥락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체계라고 부르는 것 하에서 비로소 자신을 드러낸다. 화엄의 이치는 언어의 이치이기도 한 것이다.

1. '개인' 이라는 이름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인간에 대해 논하는 모든 언설은 이미지이니, 그것을 진정 실상으로 승인해 주어서는 천만 불가하다. '자유' 와 '인권' 의 이름으로 인간을 보기 시작한 것은 현저히 근대적 개념이다.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인도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방에서 '개인' 은 낯설기 그지없던 개념이었다.

근대의 개인(individual)은 이름 그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최종적 단위로 인식된다. 개인이란 자기 욕망의 의식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인 바, 사회나 국가는 어떤 명분,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 이 천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서구의 근대는 그 이념하에서 개인의 영역과 심기를 한사코 다치지 않기 위한 섬세한 장치들을 개발해 왔다.

미국에 도착하면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말과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는 곳곳에서 인종과 성별, 그리고 종교적으로 수많은 금기의 선을 건드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 중에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것도 많지만, 우스꽝스럽거나 이게 아니다 싶은 것도 많았다.

하버드 발표회 때 어떤 한국계 미국 여인에게 '나이' 를 물었다가, 얼어붙은 얼굴에 부르르 떠는 입술을 보고, 도리어 내가 기절을 할 뻔했다.

"그게, 그토록 큰 범죄인가?"

2. '공동체' 를 중시하는 문화

그 규범과 제도들은 천만 '문화적' 이지 '보편적' 이라고 할 수 없다. 윤리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 그 점을 알려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한 문화가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종이에 적어 항아리에 넣고, 다른 문화권에서 악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빼냈더니, 항아리에는 아무런 쪽지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방 윤리의 축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였다. 이는 아울러 근대가 대두하기 전, 서양의 공통적 관념이기도 했다. 그렇지 않은가. 사회나 자연이나 전체가 있고, 부분이 있지, 부분들이 모여 전체가 된 것이 아니다. 연기법(緣起法), 즉 모든 개체들은 전체의 협력으로 비로소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어린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독립된 개인으로 이 세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정에, 일정한 사회와 문화 속으로 던져지고, 그 전체의 목적에 맞게 길러지고 교육된다. 개체는 전체의 관습을 교육받고, 그 가치를 내면화한다. 그 사회화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회초리를 맞거나 밥을 굶어야 한다.

3. 명분(名分), 그리고 연기법(緣起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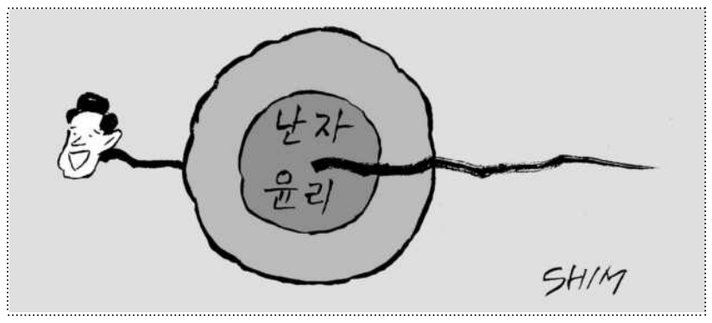
특히 유교와 불교는 한 목소리로 말한다. 한 개체는 가족과 사회 속의 일원으로 태어나, 무수한 관계적 지위 속에서 적절한 행동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유교는 그것을 명분(名分), 즉 '다양한 이름에 걸맞는 직분' 이라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 명분은 가족과 사회에 그치지 않고 우주적 지평을 갖고 있다. 우리는 가족과 사회, 국가는 물론 궁극적으로 우주의 일원인 것이다.

불교 또한 다르지 않다. 개인은 서로 연관된 전체 속의 한 그물코이므로, 타자와의 공감과 배려가 근본 덕목이 된다.

인간은 탄생과 더불어 자신을 이 전체로부터 분리하고, 혼자만의 복리를 추구하려는 일탈의 충동을 습관화하기 쉽다.

불교는 끝없이 가르친다. "이기심은 네 본성의 실현이 아니고 일탈이다. 타자와의 유대를 끊고, 공감을 그치며, 그리하여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너는 그 분별(分別)로 인한 소외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정신적으로 사망한다."

연구원 '난자' 실험용으로 못 쓰나?



4. '가치' 들은 충돌한다

황우석 교수팀의 실험에 사용된 난자 채취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나는 엉뚱하게 '문화적 차이' 를 떠올렸다. 온갖 비난과 의혹에 동원된 논리와 사고는 전형적으로 '개인주의적' 이다. 그들은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며, 보편적 관점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 맹점이 있다. 그들은 이 전형적으로 근대적 가치관이 최근에 형성된, 즉 '역사성' 을 갖는다는 것을 성찰하지 않고, 그 잣대로 세상을 거침없이 재단해 나간다.

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문화는 '개인' 을 중시하는 문화와 전혀 다른 가치서열과 위계를 갖는다. 이를테면, 공동체적 문화는 타자를 의식하고, 늘 전체를 고려한다. 구성원들은 타인에의 배려와 집단의 번영이 그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내면화하며 자란다. 듀런트는 아예 "윤리란 전체를 위한 구성원의 협력"이라고 정의하기까지 한다. 여기 덕목은 의무와 책임이다.

5. 의무, 책임, 희생의 윤리학

전체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탬으로써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면, 저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나서는 여인들의 행렬을 이해할 수 없다. 외국의 저널은 이 꽃을 든 폭발적 행진이 IMF때의 금 모으기를 연상시킨다고 하고 있다. 인간은 본시 이기적 동물이 아니다. 동양의 지혜, 불교를 위시하여 노장과 유교가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지점이 이것이다.

가족을 생각해보라. 나로 하여 가족이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누릴 때 나는 존재의 보람을 느낀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더이상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삶을 온통 자신의 욕망 구현을 위해 뛰어온 사람은 곧 공허와 권태의 허무주의에 빠진다.

늙어 얼굴이 곱고 건강한 사람은 바로 이 불성(佛性)의 비밀을 엿보고, 그 깨달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6. 그러므로 희생은 고귀하다

불교의 바라밀 가운데 큰 것이 보시,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굶주린 독수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었고, <금강경>이 설파하듯, 사지를 찢기면서도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

난자는 몸의 일부분이다. 이웃의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 혹은 국부를 증진하고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것을 바치는 것은 고귀한 행동이다. 누구보다 실제 연구에 직접 참가한 사람이 자신의 난자부터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자연스럽다.

허준의 스승 유의태에게서 보듯이, 과학은 자신의 몸을 실험용으로 내 놓은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을 통해 미지의 영역을 한 발짝씩 개척해 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⑯ 일선 선사의 '생각과 몸'

조태호



일선(一禪:1488~1568): 울주에서 태어나 13세 출가, 벽송지엄(碧松智嚴)스님의 지도를 받음. 서산 대사도 일선 선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고 함.

네티즌 교리문답

32상 80종호란?

문 부처님 얼굴의 특징은 32상 80종호라고 합니다. 아마도 부처님은 미남이셨나 봅니다. 이렇게 많은 매력들이 있었던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럼 32상 80종호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교 성형맨)

답 1 : 사람의 이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은 얼굴입니다. <주역>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운명도 역시 그 속에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얼굴의 상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사람의 신체 중에서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주역풀이)

답 2 : 일반적으로 상호(相好)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만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러나 원래 상호라는 말은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하던 말이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보통명사화된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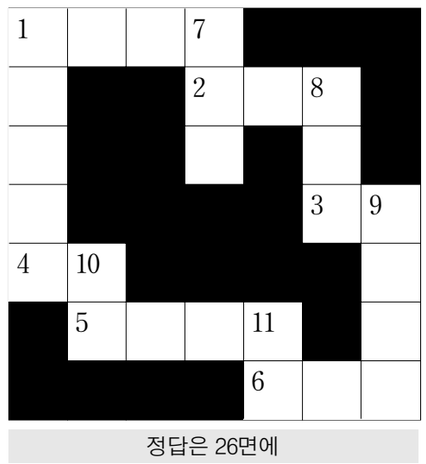
불교에서 상호란 통상적으로 '32상(相) 80종호(種好)' 를 가진 부처님의 얼굴상을 뜻합니다. 먼저 일반인들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상이라고 보는 32상중 몇 가지를 꼽아보지요.

"발바닥이 땅 밑에 밀착하고 눈동자가 감청색이며, 머리 정상의 살이 상투모양으로 융기하였으며 미간에 흰털이 있는데 평소 오른쪽으로 말려 있지만 펴면 한길 다섯 자나 되고 눈썹 끝이 둥글고 원만하며 치아는 마흔 개 최상의 미감을 지니고 있다" 등이라 경전에 적혀있습니다.

또 80종호의 예를 들어볼까요? "손과 발이 원만하고 보드랍고 깨끗하고 광택이 있으며 걸음걸이가 반듯하고 자늑자늑하여 코끼리 같을 것, 몸과 팔다리가 견고하고 탄탄하여 잘 연결되었으며 목소리가 짙고 웅장하고 위엄 있게 떨치는 것이 사자와 같이 맑을 것, 용모는 보는 이마다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개 하며 중생을 평등하게 보아 착한일은 칭찬하고 악한 일은 나무라지만 치우쳐 사랑하거나 미워함이 없다" 등입니다.(불교박사)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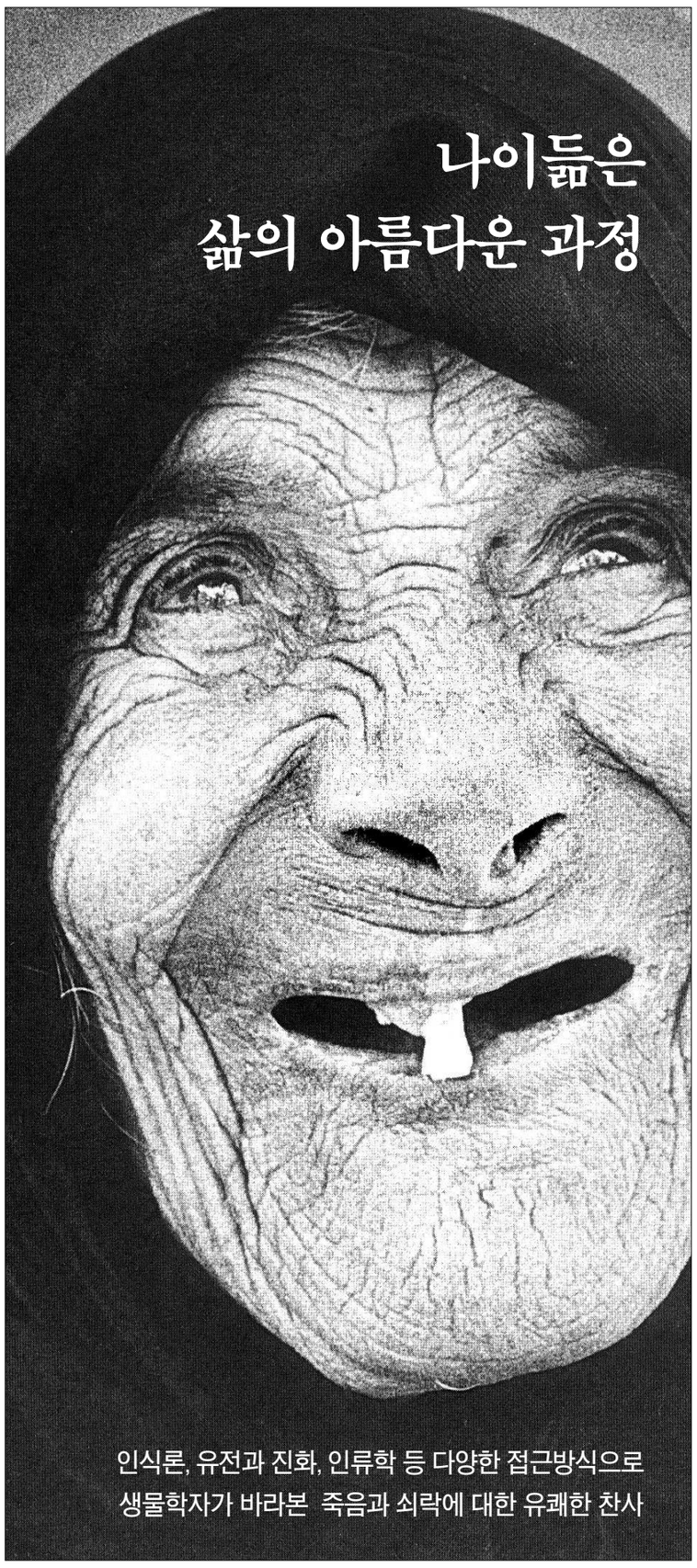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시방삼세 부처님과 팔만사천 큰법보와~일체종지를 이루어지이다' 란 내용의 발원문을 만든 스님 2. 포르투갈의 수도 3. 강바닥이나 해안의 모래에 섞여 있는 금 4. 동류(同類)의 차이를 한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 · 그림을 모아서 설명한 책 5. '한 없이 넓고 커서 끝이 없음' 을 이르는 한자어 6. 2005년 일본시리즈 최다홈런 신기록을 달성한 야구선수.

세로 1. '팔을 잘라 도를 구한다' 는 내용이 담긴 그림 7.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지혜제일로 꼽힘 8.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 동사 9. '금으로 된 나뭇가지와 잎' 이란 뜻으로 귀여운 자손을 일컫는 말 10. 빛을 쬐었을 때 물리 ·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 11. 같은 종류의 생물의 개체가 어떤 사정으로 전혀 다른 성질이나 형상을 나타내는 일.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누구나 연말연시가 되면 가는 세월을 아쉬워 한다. 혹자는 쓸데없이 나이만 한 살 더 먹는다고 서글퍼 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해가 갈수록 서서히 늙고 소멸해 간다. 모든 살아있는 것의 공통점이다.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은 시간이라는 날카로운 이빨에 상처받고 힘없이 스러져간다. 그렇다면 대체 생물들은 어떻게 늙고 죽어가는 것일까.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적은 방대한 진술서다. 시간에 의해 조금씩 마모돼 가는 만물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안의 철학적 의미를 탐색해 보는 이 책은 생물학과 인식론, 유전과 진화, 인류학 등 제반 학문의 폭넓은 내용이 버무려진 독특한 교양서다. 네덜란드의 저명한 생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책의 지은이 미다스 데커스는 이 책을 통해 나이듦과 쇠락에 대해 오히려 짓궂은 찬사를 보낸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예시를 통해 더욱더 이 짓궂은 찬사론을 견고하게 펼친다. "늙어서 쇠약해진 코끼리들이 조용히 죽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소가 있다는 말이 있다. 숲 속 깊은 은밀한 곳에서의 마지막 절규와 몸부림, 그리고 나서 이들의 육중한 몸은 쓰러질 것이다. 물론 이들의 마지막 비명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독수리 떼는 볼 수 있으며 하이에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마치 슬픈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묘사지만 이것을 통해 지은이는 시간의 진행에 따른 쇠약과 소멸은 매우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모델로 삼아, 죽음과 쇠락을 거부하면 삶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쇠약해진다는 것은 마치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 알려주는 시계와 같다"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노화는 비단 동물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게 지은이의 설명이다. 그는 이탈리아 종각을 또 하나의 예로 제시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 있던 99m 높이의 종각이 1902년 갑자기 무너졌다. 1000년 넘게 도시의 상징으로 우뚝 서있던 건물이 왜 그렇게 갑자기 무너졌을까. 전문가들은 큰 종소리로 인한 소음과 진동, 기초와 벽의 부실공사, 믿음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한 평범한 시민의 입에서 나왔다. "건물이 너무 늙어서 무너졌죠."

이처럼 모든 만물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사코 퇴락과 변화를 부정한다. 오래된 건물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한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 '옛날의 위용'을 되찾고자 해도 복원 과정에서 그 집의 오래된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만다.

완벽하게 꾸며진 성(城)보다는 폐허가 된 성에서 오히려 더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가. 또한 뜨는 해보다는 지는해가 오히려 더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는가. "저물어가는 폐허도 하나의 균형 잡힌 생태계라"는 지은이의 강조 사항은 연말연시를 맞아 나이듦을 서글퍼 하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된다.

또 지은이는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저녁이 되어도 잠자리에 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죽지 않는 종족을 만나 본 '걸리버'도 이렇게 다짐하지 않던가. "어떠한 독재자도 내가 삶 속에서 얻는 기쁨을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지은이는 이와같이 박식하면서도 재기발랄하고 심오하면서도 짓궂기까지 한 매혹적인 이야기 솜씨로 쇠락을 거부하면 삶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들을 다독인다.

허물어진 사원, 녹슨 채 버려진 기관차, 이빨 하나만 달랑 남은 노파…. 지은이는 나이듦, 소멸, 폐허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지은이는 말한다. "타이타닉호가 후대에 불멸의 이름을 남긴 것은 거대하거나 화려해서가 아니라 '침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은이는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의 파괴이다'라는 서양 속담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폐허는 파괴의 흔적이 아니다. 창조를 잉태하고 있는 시간의 더께이다. 괴테가 폐허가 된 로마 유적지를 돌아본 뒤 '이탈리아 여행기'를 쓴 것은 폐허를 통해 새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패도 때론 창조의 원천이 된다. 박테리아의 작용이 없이는 결코 우유가 치즈로 될 수 없다. 포도가 부패하지 않고는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법이다.

"죽음은 몰락이 아닌 또 하나의 완성.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은 아름답다." 지은이가 45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에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단 한줄의 말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시간의 이빨
미다스 데커스 지음 | 오윤희·정재경 옮김
영림카디널 펴냄 | 2만원



전문가 서평



경영이란 무엇인가
조안 마그레타 지음 | 권영설·김홍렬 옮김
김영사 펴냄 | 1만5900원

지금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으로 치면 불황 때 경영을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책은 이 때 유용한 '경영학 경전'이다.

지은이는 유명한 경영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장을 지낸 인물. 펩시콜라가 1970년대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 코카콜라에 타격을 입힌 사례 등을 들어가며 경영의 9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그 중에는 '아웃소싱이나 합병 등과 같이 1990년대 유행했던 조직론은 상당히 위험하다' '아무리 훌륭한 성과측정 도구라도 모든 것에 들어맞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지은이는 "경영에는 지식과 인간적 통찰력이 모두 필요하다. 분석력과 감수성, 정열과 호기심, 결단력과 인내력도 요구된다. 경영자는 무엇이든 물어볼 정도로 의심이 많아야 하고 어떤 것도 당연시해서는 안되며 그러면서도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믿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과연 경영이 자본과 인간성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 경영은 종합 예술이라고 칭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책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 답

경영의 기본원리와 방법론

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저술 의도라고 판단된다.

책의 전반부에는 경영의 핵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자주 쓰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는 '가치창조'의 설명을 시작으로,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계획을 일컫는 '비즈니스 계획'. 그리고 회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과 전략을 시행할 '조직'에 대해 알아본다. 전반부가 이론적인 것에 대해 다루었다면, 후반부는 실행에 관한 내용이다.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 데이터가 주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목적을 구체화하고, 조직원들의 노력을 결집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짚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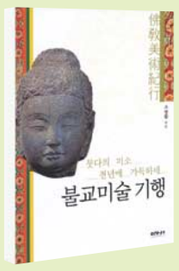
이 책이 가슴에 와 닿는 이유중 하나는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시중에는 '~하는 몇 가지 방법', '가장 ~ 한 책' 등 당장이라도 써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제목을 달고 나와 있는 책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을지 모르나 총체적인 이해를 돕는 데에는 적절치 않다. 하지만 이 책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해 경영에 관한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은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단점이 있으나, 알기 쉬운 문체와 각종 사례를 통하여 현실감도 놓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책들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 논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각각의 분야마다 지은이가 참고한 책 및 추천 서적이 소개돼 있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심층적인 공부가 가능할 것 같다. 경영자의 꿈을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책으로 경영이라는 문에 노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동현(한라대 경영학과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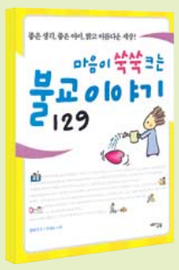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유쾌하게 읽는 불교
지금까지 이런 불교입문서는 없었다.
현대적 시각으로 가장 쉽게 설명된 불교입문서!
정확하고도 모범적인 불교 교리 해설서!
동승동 / 고명석 지음
신국판 293쪽 / 값 9,000원



불교미술기행
한국 불교미술의 원류를 파헤치는 책
불교 조각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슨 뜻에서 그런 조각이 만들어졌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해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각 만이 아닌 인도나 중국 등의
불교미술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가서 / 조병활 지음
신국판 310쪽 / 값15,000원



마음이 쑥쑥 크는 불교이야기 129
좋은생각, 좋은 아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
맑고 건강한 삶을 위한 어린이 명상집
의미 없는 천가지 말보다
단 하나라도 마음을 일깨워주는 말이
훨씬 더 소중하다. – 법구경 –
바다교실 / 양태석 글 이재순 그림
신국변형판 199쪽 / 값 8,000원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반야심경에 담긴 삶의 지혜
'도대체 이런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했는지 모른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인 행복과 내적 평화로 이끌어 준다.
도서출판 무한 / 법상스님 글 · 사진
신국판 374쪽 / 값10,000원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看話禪)
산사에서 열심히 수행정진해 온
선원장급 수좌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조계종 수행지침서!'
한국선의 근간을 이루는 간화선은,
공안을 참구하여 의단을 타파하고
자성을 깨닫는 활구참선법이다.
조계종출판사 / 불학연구소편저
신국판 양장본 437쪽 / 값15,000원

2005年 불교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불서 10
'올해의 불서 10선'은 올해의 대표적인 불서로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엄선한 책입니다.
불자들을 위하여 해마다 출판된 책 중에서 '10선'을 선정합니다!
진정한 불자는 책을 읽습니다
• 구입문의 : 불교서적전문 여시아문 02)2004-8220/737-0695 / www.yosiamun.com ※ 전국 각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 협찬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법보신문사,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영화로 불교를 만났다!!!
영화를 통해 불교의 진리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책.
총 33편의 영화를 7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치 / 월호지음
신국변형판 180쪽 / 값 9,800원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마음, 마음이란 무엇인가?
대승불교의 핵심적 사상을 요약적으로 설명.
이 책은 마음의 본질과 작용, 그리고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통해서 깨달음과 무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불광출판부 / 서광스님 지음
신국판 235쪽 / 값8,000원



불교풍속고금기
사찰의 생활과 풍속에 대한 50가지 이야기
불교에 대한 소박한 궁금증에서부터 사찰의 생활과
모습 속에 담긴 깊은 뜻까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줌으로써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은행나무 / 박부영 지음
신국판 319쪽 / 값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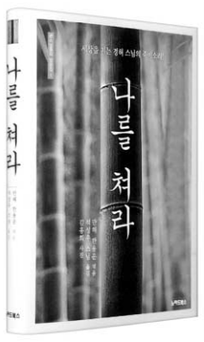
선문염송 염송설화 (1 -10)
선문의 내용 중에서 염롱을 주로 다룬『선문염송』과
염송의 주석서인『염송설화』를 회편하였다.
『한국불교전서』 제5책의『선문염송염송설화회본』을
저본으로,『선문염송』원문은 역자가 현토하여
번역문 다음에 수록하였고,『염송설화』는
서울대 규장각본을 책 뒷편에 영인하여 실었다
동국역경원 / 김월운 옮김 혜심 · 각운 지음
신국양장판 680쪽내외 / 각권 20,000원



잊혀진 가람 탐험
소설가 황석영씨가 추천하는
화제의 책
잊혀진 우리의 가람터,
그 옛 주소로 가다!
시인 장지현의 전국 폐사지 순례기
여시아문 / 글 장지현 · 사진 고영배
4×6배판 변형 360쪽 / 값 23,000원

경허 스님, 그 끝없는 '깊이'의 정체는?

만해 스님이 엮은 '경허집' 우리말로 옮겨



나를 쳐라(큰스님들의 법문집1)
경허 스님 지음
만해 스님 엮음
성우 스님 옮김
김홍희 사진
노마드북스
1만2천원

"부처니 중생이니 내 알 바 아니요. 평생을 그저 취한 듯 미친 듯 보내려네. 때로 일 없이 한가로이 바라보니 구름에 갇힌 먼 산은 층층이 푸르구나."('취한 듯 미친 듯' 전문)

한국 근세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1849~1912). 유불선에 통달한 뛰어난 학식으로 당대 선풍(禪風)을 일으켰던 스님은, 술에 만취해 법당에 오르거나 설법 중 바람같이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 문둥병에 걸린 여자와 몇 달을 동침하는 등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경허 스님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기이한 행동 이면에 숨겨진 뜻을 읽어야 한다. 특히 스님이 남긴 법문과 시문을 곱씹어 보면 깨달음을 실천하려 했던 스님의 삶과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작가 김홍희씨의 사진은 경허 스님의 유려한 글과 어우러져 사색의 깊이를 더한다.

<나를 쳐라>는 만해 스님이 전국 도처에 흩어져 있는 경허 스님의 시와 사찰 주련에 새겨진 글 110여 편을 모아 1943년에 발간한 <경허집>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만해 스님은 "경허 스님의 글들은 술집과 저잣거리에서 읊조렸으되 저속하지 않으며 비바람 눈보라 치는 텅 빈 산에서 붓을 잡아도 세간을 벗어난 것만도 아니어서, 문장마다 선(禪)이요 구절마다 법이며 그 법칙이 어떠한 것을 논할 것도 없이 실로 기이한 글이고 시구다"라고 평했다.

"저리도록 쓸쓸한 가을바람/ 밤은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고/ 저 벌레는 어이 그리 슬피 울어/ 내 배갯머리를 적시게 하는고"라며 수행자로서 느낀 고독감과 비애감을 털어놓기도 하고, "죽어도 죽음이 아닌 것이/ 우리의 본래면목이거늘/ 하물며 어떻게 생을 함부로 살려고 하는가"라며 사람들에 대한 애정 어린 질책을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스님의 글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할 가르침은 '마음공부'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화'를 참을 수 있고 '복'을 가져오며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는 스님은 "아무리 경을 많이 읽고 외어도 이 마음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세상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항상 내 마음을 찾아보라. 그리고 듣고 말하는 일체의 형상을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한국 근세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1849~1912). 스님이 남긴 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다.

시인이기도 한 성우 스님(불교TV 회장)은 경허 스님의 글을 우리말로 옮긴 후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 자신을 쳐다보게 하는 그 마음을 정화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경허집>"이라고 평한다.

책 뒤편에는 한암 스님이 쓴 '경허 스님 일대기'를 실어 스님의 생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고, 사진작가 김홍희씨의 사진이 어우러져 글 읽는 맛을 더한다.

진정 소유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경허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중국 선종사의 흐름 한눈에

중국 선종(禪宗)의 역사는 달마 선사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이 가르침은 혜가-승찬-도신-홍인-혜능 선사로 이어져 중국 선종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선불교에 대한 '상식'이다.

그러나 이부키 아츠시(伊吹敦) 교수(일본 토요대 인도철학과)는 <새롭게 다시 쓰는 중국 선의 역사>에서 이 같은 계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부키 교수는 선종의 등장은 당시 중국 불교계의 내적 욕구에 부응한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선종의 사상적 기원 역시 초조인 달마 선사보다 혜가를 비롯한 제자들의 활동이 주축이 되었다고 말한다. 더불어 초기 선종의 흐름 역시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집단들에 의해 이어져왔다고 이부키 교수는 강조한다.

또한 후대 선종에서는 무시되어 버린 북종(北宗)과 우두종(牛頭宗) 정중종(淨衆宗) 등의 흐름을 짚어보며 다양한 선종의 역사를 살피고 있다.

이처럼 이부키 교수는 전통적인 선종사의 이해에서 벗어나 선종이 각 시대와 교섭하면서 어떻게 사상을 형성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의 원저가 '제1편 선의 흐름(중국)' '제2편 선의 흐름(일본)' '제3편 선의 현재'로 이뤄진 것도 이러한 집필 관점에서 기인한다. <새롭게 다시 쓰는 중국 선의 역사>는 이 중 제1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책을 옮긴 최연식 교수(목포대)는 "이 책은 20세기 이후 축적된 선종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망라해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훌륭한 개설서이자 입문서"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새롭게 다시 쓰는 중국 선의 역사
이부키 아츠시 지음
최연식 옮김
대숲바람
1만2천원



한국문학과 불교문화
유임하 지음
역락
1만5천원

한국문학에서 불교의 위치는?

한국문학에서 '불교'는 어떤 위치일까? 시와 소설의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우리의 인식과 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원천일까?

문학평론가 유임하씨는 <한국문학과 불교문화>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전통에서 불교문화의 웅숭깊은 실체는 그 얼굴을 드러내기보다 서구의 물질적 가치와 자본의 힘에 맞서는 마음의 활력으로 육화된 느낌이 짙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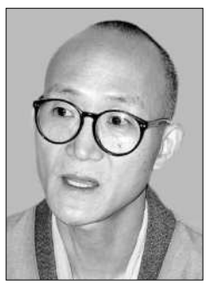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는 근대문학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불교문화의 저변을 자주 간과하거나 그 특징을 찾아낸다고 해도 크게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라는 문화의 저변이 도드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폭발력과 함의(含意)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은이는 작가의 사상 흐름 속에서 불교 전통의 향취를 찾기도 하고 작품 속에서 다뤄진 불교 사상을 찾아내기도 한다.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에 나타난 '님'에서는 스스로 수립한 자기 윤리이자 절대적인 사랑을 낳는 마음을, 불교를 상상력의 원천으로 삼았던 미당 서정주의 문학세계에서는 불성(佛性)과 자비심을 읽는다. 김달진의 시에 나타나는 '깨달음의 고요한 경지에 이른 화자의 모습'에서는 지은이 자신이 시에서 평생 표현하고자 했던 마음의 행로가 무엇인지를 짐작해 본다. 또한 김동리의 <등신불> 최인훈의 <회색인>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 한국소설의 나타나는 불교정신이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은이는 "작가의 상상과 사유의 낯익은 기층 하나가 불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다만 지은이 자신도 지적했듯이 작가의 불교관과 불교정신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티베트 수행의 결정판 '람림' 우리말로 완역

'깨달음에 이르는 길' 출간 청전 스님



티베트 수행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람림(보리도차제론)>이 우리말로 완역돼 나왔다. 번역을 맡은 이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18년째 수행 중인 청전 스님(사진). 지난해에 <입보리행론> 번역본을 낸 스님은 최근 <람림> 번역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출간하고 일시 귀국했다.

12월 5일 서울 길상사에서 만난 스님은 "람림 수행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행법"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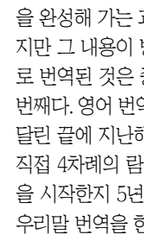
<람림>은 달라이 라마가 속해 있는 겔룩파의 창시자인 총카파(1357~1419)가 1402년 완성한 책으로, 초발심에서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중득해 보살의 서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의미 전달이 어려워 외국어로 번역된 것은 중국어판과 영어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영어 번역본의 경우 15명의 학자가 15년간 매달린 끝에 지난해 12월에 선보였다. 달라이 라마에게 직접 4차례의 람림 설법을 들은 청전 스님 역시 번역을 시작한지 5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 원전에 연필로 우리말 번역을 한 자 한 자 달아 완성한 이 책은 무려 1천여 쪽에 달한다.

"람림 수행법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보리심을 계발하고, 육바라밀을 바탕으로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은 너무 쉽고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육바라밀의 정해(正解)에 따른 지관 · 선정 · 공성 · 인명론으로 이어지는 대단원의 전개에 찬탄과 수긍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수행 실천이 이어진다면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람살라에서도 한국 승복을 입고 생활할 정도로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이 큰 청전 스님은 한국불교계를 위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자기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이 있음에도 일부 수행자들이 '간화선 아니면 모두 외도'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정수기나 관정의식 등을 상품화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처님의 바른 법을 봐야지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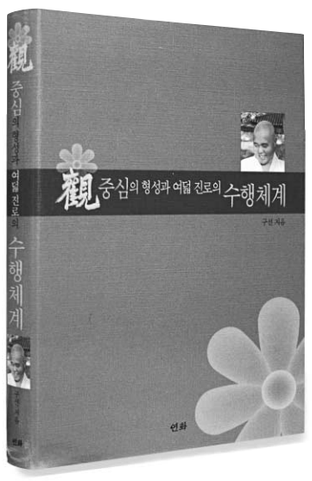
컴퓨터나 전화, 텔레비전 등 일체의 가전제품도 없이 살고 있는 청전 스님은 6일 다시 다람살라로 돌아갔다. 히말라야 오지의 노인들에게 나눠줄 약과 영양



깨달음에 이르는 길
총카파 지음 | 청전 스님 옮김
지영사 | 4만3천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한 경계에 집착하면 그 죄가 수미산 같고,
한 경계를 저버리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러할 때 그 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그로써 나와 경계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수행자라면 한 경계를 통해 여덟 진로의 수행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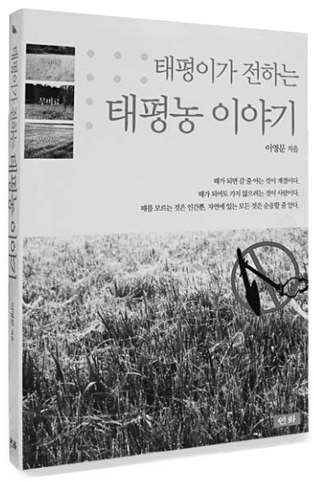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수레바퀴에 비유된다.
바퀴의 살이 하나만 빠져도 바퀴 전체가 찌그러지듯이,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구선 지음 / 312쪽 / 값 18,000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는 필자가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이며, 또한 팔 년 동안 후인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결과들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닦아서 체득할 수 있는 법들이다. 수행자가 비록 자성의 공(空)함을 인식했더라도 이처럼 여덟 가지 진로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제도하는 것과 주변 경계와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여덟 가지 일로서 원만해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그 이외의 삶들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을 가한다. 특히 수행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또 다른 존재와 원만하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한다. 한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맛볼 수 있다고 말한다. 목전에 처해진 한 경계를 그냥 도외시 하지말고 그를 통해 여덟 진로로 자기를 발전시켜 갈 것을 주장한다.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계절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 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영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

도서출판 연화 TEL 02)302-8145, 054)682-7770 / FAX 054)682-8155 http://www.kwan.or.kr

한지의 변신 … 예술이다 예술!

한지공예의 세계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찍어 낸 한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염색종이

종이접기에 관심이 많아 꾸준히 종이접기를 배운 임영신(33)씨. 종이에 대한 관심은 전통한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왔다. 그런 그녀가 선택한 것은 한지공예. 이제는 어지간한 한지 소품들은 쉽게 만들어낸다.

최근 한지공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소박하면서도 품위 있고 따뜻함과 은은함이 흐르는 종이’로 표현되는 한지를 통해 잊고 지내던 정감을 되찾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종이는 바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찍어낸 한지다. 여기에 사용된 닥종이는 황벽물을 들이는 등 우리나라 최초의 염색종이이기도 하다. 미국 애틀랜타 다드 한터 종이박물관은 안내책자에서 ‘한국인은 종이 원료 자체를 염색해 색종이를 뜬 최초의 장인이며 최초로 봉투를 만들어 쓴 민족’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한지공예의 세계를 조명한 〈전통한지공예〉(심화숙 지음, 우리출판사)가 발간되고, 서울 서대문 수효사에서도 ‘한지공예체험관’을 개관하는 등 불교계에서 한지공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연잎을 꼬아 만든 지화공예작품 ‘연화’. 사진제공=안성맞춤박물관

가볍고 내구성 강해 장식품으로 인기

천염염료 사용 다양한 색상 표현 가능

기법따라 지장·지화공예 등으로 구분

연화문 만다라 등 불교문양 많이 붙여

한지는 닥나무(楮)나 삼지닥나무(三枝楮)의 껍질을 원료로 만드는데 원료와 크기,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다. 용도에 따라서는 20여 가지로 분류되는데 문에 바르는 창호지, 그림이나 글을 썼던 화선지, 도배용으로 쓰는 도배지, 화선지 등 종이 뒷면에 붙여 썼던 배접지, 방바닥을 바르는 장판지 등이 있다.

다양한 한지의 활용법에서 알 수 있듯, 한지로 만들어내는 공예품은 다양하다. 한지공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장공예(紙裝工藝) 전지공예(剪紙工藝) 지승공예(紙繩工藝) 후지공예(厚紙工藝) 지호공예(紙糊工藝) 지화공예(紙花工藝) 등과 한지그림, 닥종이인형, 각종 팬시 제품, 인테리어 등에 활용되는 현대적인 작품으로 구성된다.

한지가 전통공예 뿐만 아니라 현대공예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까닭은 한지공예만의 여러 장점 때문이다. 한지공예작품은 한지로 제작되기에 부드럽고 포근하다. 비단보다 곱고 질기다고 평가받는 한지를 여러 겹 덧발라 만드는 한지공예품은 견고하고 단단하다.

튼튼한 것에 비하면 가볍고 운반이 용이한 것도 장식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이다. 천연염료를 사용해 염색해낸 다양한 색상의 한지들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지공예 기법들을 살펴보자. 좁고 길게 자른 종이를 손으로 꼬아 다시 엮는 지승공예는 짜는 기법에 따라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어낸다. 깨끗한 종이보다는 인쇄된 서책을 이용하는데 먹 글씨가 자연스럽게 무늬를 자아내 운치를 더한다. 완성된 작품에 기름을 먹이거나 옻칠을 하면 보존성을 높여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

잘게 찢은 종이를 물에 불려 찹쌀 풀로 반죽해 상품을 만드는 지호공예는 골격에 붙여가며 말리고 덧붙이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 골조를 떼어내고 옻칠을 해 마무리하는 공예기법이다. 바탕에 색지를 바르고 무늬를 장식해 호화롭게 꾸미기도 했다.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한다. 닥종이 인형 종이탈 등도 지호기법으로 만들어진 공예품이다.

영산재 등 불교의식에 많이 사용되는 종이꽃은 지화공예에 속한다. 지화공예에는 불교의식화 뿐만 아니라 궁중상화라 해 꽃이 귀했던 겨울철 궁중대연회 때 쓰이던 종이꽃 등이 포함된다.

한지로 모양을 만들고 당초문 민화 등을 그려 문장식이나 생활소품 등을 만드는 지화(紙畵)공예도 있다. 오색찬란한 각종 색지를 오려 붙여 만드는 전지공예는 한지공예품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자랑한다. 반짇고리에서 장롱에 이르기까지 생활필수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무로 골격을 짜거나 대나무 등으로 뼈대를 만들어 종이를 바르는 지장공예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마무리하기도 했다.

한지공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문양들이다. 특히 연화문이나 보상화문은 불교적인 의미를 가진 문양들이다. 보상화는 불교에서 숭상되는 이상화로 ‘만다라화’라는 넓은 의미에 포함된다. 산예문양은 사자를 가리킨다. 사자는 불법과 수행자를 수호하는 의미로 대일여래가 사자위에 앉아있다.

불수감 문양은 모양이 부처님의 손가락을 닮았다 해서 불수감이라 부른다. 불교의 상징무늬로 많이 쓰인다. 기하학적인 문양에는 불교의 ‘卍자’를 활용한 완(卍)자문양이 있다. 단청을 문양화한 단청문양은 청황적흑의 네 가지 색을 기본으로 단청을 한지에 옮겼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지장기법으로 틀을 만들고 전지공예로 마무리 한 ‘시디장’(전경희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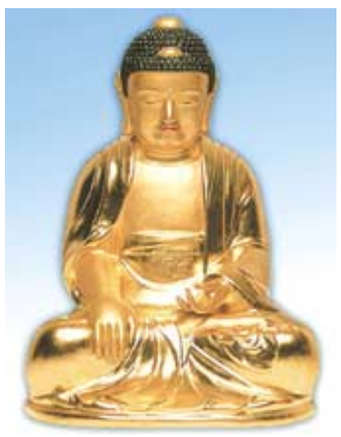

뼈대위에 한지를 발라 만든 전통등 ‘나와 연꽃’(조순영 作).


한지와 합지로 틀을 만들고 글씨를 양각한 ‘반야심경 병풍’(심화숙 作).


합지로 골격을 만들고 한지로 문양을 살린 ‘오층탑(불감)’(심화숙 作).


완(卍)자문과 연화문을 사용한 ‘보시함’(김명숙 作). 사진제공=우리출판사

불교와 한지공예


한지로 만든 건칠지불 석가모니불(상기호 作). 사진제공=전통오색한지연구회

연등·영산재의 장엄지화 대표적
단절됐던 ‘건칠지불’ 복원되기도

불교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한지공예품은 바로 연등이다. 연잎을 꼬아 만드는 연화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전통등이다. 등롱(燈籠) 또는 제등(提燈)이라 해서 음력 4월 8일 절에서 행하는 관등(觀燈)의식에는 용등, 봉등, 거북등, 잉어등 등의 화려한 등이 사용됐다. 연등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 불을 뿜는 용도 모두 이런 전통등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불교 의식에 많이 활용되는 지화는 영산재의 장엄지화 등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영산재 수륙재 등 의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엄지화는 영산재보존회 등의 장엄 담당 스님들로부터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지화는 사찰보다는 무속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년 넘게 전통 지화를 연구한 궁중상화 연구소장 김태연 교수(대구대 실내환경디자인과)는 “궁중에서 대연회 등에 쓰이던 채화를 비롯해 영산재 장엄지화 연구를 계속해 오면서 올 여름 16년 만에 월화 스님의 운화(雲花)를 재현했다”고 밝혔다.

지불의 경우 1998년 한국민국전승공예대전 당시 대통령상 수상작인 상기호씨의 ‘건칠지불(乾漆紙佛)’이 당시 몇 백 년의 단절을 끊고 복원된 유일한 사례였다.

건칠지불을 최초로 복원했던 상기호 회장(전통오색한지연구회)은 “통도사에 건칠지불을 기증한 이래 지금까지 문수·보현·지장보살 세 구를 제작했다”며 “조선 중엽까지 이어졌던 지불을 복원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꾸준히 못하는등 전승이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지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보물 제415호로 지정돼 있는 경북 월성군 기림사 보살좌불과 백양사 극락보전에 남아있는 건칠지불 등이 몇 백 년을 이어온 지불들이다. 지불은 삼베와 한지 모시 등으로 여러 번 발라 골격을 만든 다음 그 위에 옻칠을 하고 금색으로 마무리를 한다. 건칠지불은 그 수명이 천 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고 옻칠을 하면 외피가 아주 단단할 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냄새로 해충이 범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 만든 불상보다도 오래 보존된다고 믿어진다.

심화숙 회장(전통한지공예가협회)은 “한지공예 특히 한지는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사찰 문살을 매우는 한지에서부터 반야심경 병풍, 지필묵 보관함, 불전함, 다기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예품들이 불교의 향기를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1Box(60포 → 20만원)~~ ~~2Box(120포 →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563-8292 / H·P : 011-9242-8292
홈페이지 www.mansam.net
●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의장출원 : 제35872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총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족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선(禪)호흡법과 정신(마음)수행법

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삶의 대한 자신감과 용기도 향상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며 **자비와 지혜**가 생성되어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삶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며, 완성된 인격과 덕망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선(禪)호흡법과 정신(마음)수행법을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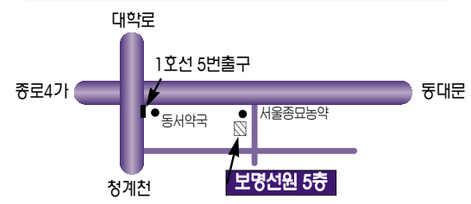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과 행복입니다.

체계적인 수행법 1:1 개인면담

불교의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장 소 : 보명선원 (종로5가 5번출구 1분거리)
▣ 시 간 : 오후 2:00 ~ 4:00, 저녁 7:00 ~ 9:00 (월~토)
▣ 수강료 : 자율보시
▣ 준비물 : 고무줄바지 (츄리닝)

매주 토요일 오후 4 ~ 6시 각성큰스님
대승기신론 유식론강의
서대원 박사 불전한문 상식축도강의



보명선원 TEL 02)2273-8484
C·P 011-785-8813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3>



식당아줌마의 성공비결

16년째 한 곳서 변치않는 메뉴로 식당 경영
욕심내지 않고 소규모로 꾸준히 한길 걸어

오늘은 우리 동네 부대찌개 식당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네 허름한 2층 건물의 1층에 세를 들어 있는 작은 식당인데 4인용 밥상 6개가 전부입니다. 반찬은 오직 김치와 부추무침 뿐이고, 메뉴 또한 단출하여 부대찌개와 낙지볶음과 전골이고, 별미로는 횟냉면이 있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50대에 막 들어선 아줌마입니다. 그래서인지 단골의 대부분은 동네 주부들입니다.

단출한 메뉴판에서 그나마 뭘 시킬까 망설이면 주인아줌마의 현명한 참견이 반드시 끼어들고, 음식에 대한 상담도 즉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만큼 자신이 만들어 내놓는 음식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은 매우 큽니다.

부대찌개에 라면 사리를 두 개 주문하면 국물이 탁해져 맛이 없다며 '안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사람 수에 비해서 좀 많이 시켜도 그녀는 도리질합니다. 부추무침을 먹지 않으면 그 영양만점인 음식을 왜 안 먹느냐며 이내 설교가 벌어집니다.

음식도 맛있고 주인의 접대 솜씨도 일품이어서 그런지 언제나 식당 앞은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다른 곳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사업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16년째 같은 곳에서 같은 메뉴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성공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사람들은 날 보고 번듯하게 식당을 넓히라지만 나는 그런 거 싫어. 지금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해갈거야."

식당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나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 지금도 음식과 관련된 거는 뭐든 메모를 하고 만들어봐. 하지만 난 다른 메뉴를 추가하진 않을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사는 게 가장 자신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로 그냥 끝까지 밀어붙일 테야."

스스로를 성공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식당 아줌마가 한없이 부러워 곰곰이 그녀의 성공비결을 헤아려보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말하였지만 그건 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소걸음 같은 인생행로의 다른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사업장의 규모를 확장 하거나 아이템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변화를 꾀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여 성공한 사람도 주변에는 더러 있지만 사업을 크게 벌여야 할 때를 정확히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두 가지 모양이 있다. 자신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것과,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을 싫어하고 버리는 것이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두 가지 모양이 있다. 자신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싫어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것이다"라는 <증일아함경>의 말씀이 잘 적용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그녀는 처음부터 큰 수입을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쌓되 적은 데서 시작하라.
마치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는 벌처럼
재물은 날마다 점점 불어나
마침내는 즐거나 소모됨이 없으리라."
<장아함경>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리기보다는 아주 조금씩 재물을 불려나간 것 또한 사업의 귀재도 아니고 종자돈도 빈약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 그녀는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불반니원경>에 "수십 명이 각각 활을 가지고 과녁을 향하여 화살을 쏘면 앞에 맞는 것도 있고 뒤에 맞는 것도 있지만 쉬지 않고 화살을 쏘면 반드시 과녁의 중앙을 맞히듯이 게으르지 않고 잡념이 없으면 도를 증득할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언젠가는 적중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쉬지않고 화살을 쏘아댄 것이 부대찌개 식당 아줌마의 또 하나의 성공비결이라 할 것입니다.

여름휴가도 16년째 8월의 첫 번째 주로 정해놓고 지켜오고 있다는 그녀, 자식이 공부에 취미가 없어 보여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어떤 재능이 있나 지켜보고 있다는 그녀, 돈보다 일이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 돈이 따라왔다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자니 열심히 살아온 것 같기는 한데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 실망을 안고 사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통화불교'를 주창하는 각성 스님. 스님은 한 생각만 돌이키면 오탁악세가 극락일 수 있다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되 무주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화합'의 길로 나서야



지상 백고좌

각성 스님

(부산 화엄사 회주)

승가 본래 의미는 화합
악한 마음 버리고
무주상 보시해야

분열의 시대다. 세계는 자본의 우위에 따라 구분되며 양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나라마다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립·갈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2005년 한국 또한 남과 북 뿐만 아니라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고, 다시 지연과 학연 혈연으로 구분 짓는다. 화합이 필요한 때다.

서울 한복판 종로 5가에 있는 보명선원을 찾았다. 저잣거리 한 가운데서 '통화(統和)불교'를 주창하는 각성(覺性)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평소 부산 화엄사에서 주석하는 스님은 여기에서 격주로 퇴직 교수나 장성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스님에게 먼저 통화불교의 개념에 대해 물었다.

"'통화'란 '통일'과 '화합'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통화불교를 주창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통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통일하면 범부가 성인이 되고 보살이 되며 부처가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거품같이 일어나고 혼란이 오며 윤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은 우리 모두 일불제자이고 불법 또한 하나지만 나라마다 모양새가 다르고 서로 다른 불교를 믿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국 사람은 한국불교를, 중국 사람은 중국불교를, 일본 사람은 일본불교를 믿기 때문이다. 토착화 때문에 몸만 바꾼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바꾼 몸을 믿는다. 이제 몸 안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름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발전한 것은 아닐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립하고 갈등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결과물이 생성된 것은 것은 아닐까. 스님에게 통화의 개념으로 본 역사관에 대해 질문했다.

스님은 사람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사람은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태어나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되풀이한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우주의 시공간이 춘하추동(春夏秋冬)과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궤도 속에 있는 것처럼 역사 또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화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스님은 지난 역사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웠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전 역사를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단지 그 시대에 맞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었던 것이다. 스님은 이를 '여름이니까 모시옷이 나오는 것이고 겨울이니까 솜옷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스님은 통화를 '화쟁(和諍)'과 비교하며 설명하기도 했다.

"원효 스님은 화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연말연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30,000원(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법문세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무료배송)
낱개 3천원



400세트 한정판매

■ 판매처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 / 02)2004-8218~9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 농 협 053-01-265785 현대불교신문사

화쟁은 중론(中論)과 달리 여러 가지 쟁론 속에서 높은 가치를 이끌어내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21세기에 와서는 화쟁보다 통화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투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승가(僧家)의 원래 의미도 화합이라고 부연설명하며 모든 중생들이 행복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도를 닦는 목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불교계 내부를 보더라도 종단과 종단끼리 불협화음을 표출하고 있고, 종단 내에서도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한다. 특히 입으로는 불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들 마음 또한 분열돼 있다. 스님에게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부처님도 이 세계를 오탁악세(五濁惡世)라고 했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분명 거리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이상이라고 한다면 현실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보면 오탁악세가 극락이요 천국일 수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관념을 바꾸면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뀝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님은 비관도 낙관도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자재(觀自在)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관세음보살처럼 걸림 없이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눈으로만 보는 것 아니라 말해 본다, 맛을 본다, 말아 본다, 들어 본다, 생각해 본다 처럼 모든 것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공부도 관자재보살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미륵부처님이 오는 시대는 오물이 저절로 정화된다고 하지만 그 이전까지 현실과 이상은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극락세계를 조금이라도 빨리 오게 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 착한 일을 행해야 하며, 세 번째 착한 일을 행하되 상을 내지 않고 무주상(無住相)으로 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며 선악과라는 열매가 있는 것으로 봤지만, 선과도 따먹지 말고 악과도 따먹지 말하는 뜻입니다. 즉 악을 버리고 선을 하되 선을 한다는 상(相) 없이 하다보면 자연히 정화가 되고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경전을 소홀하게 여기는 한국불교 현실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스님은 "한국불교는 탄허 스님 말씀처럼 무식불교"라며 거침없이 말한다.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잘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 과정 밟은 사람이라도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요즘은 불교교양대학을 비롯해 불교계 신문, 잡지 등이 발달해 있어 스님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뒤쳐집니다."

어릴 때에는 작은 옷을 입어야 하지만 커서도 작은 옷을 입을 수는 없다. 성장하면 작은 옷은 버리고 큰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 죽어봐야 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죽기 전에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스님은 평생을 강당에 서면서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해왔다. 서돈각 박사를 비롯해 불교계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스님의 강의를 들으며 구도의 길을 걸었다. 그들에게 스님은 '초지일관(初志一貫)'을 강조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밝아지게 됩니다. 촌놈이 서울에 오면 청계천이 어딘지 종로가 어딘지 모르지만 오래 살다보면 구석구석 골목길까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래 공부 하다보면 결국 터득하게 되듯이 초지일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님은 또 불교공부는 항상 마음을 비우고(虛) 밝게(明)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불할 때나 참선할 때 기도할 때도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다. 마음이 원래 비고 밝은 것이기 때문이다.

40여 년간 불법에 진력한 스님에게 어떻게 정진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참선이나 진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쉬운 것은 염불입니다. 용수보살은 염불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며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娑論)〉 '이행품(易行品)'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즉 어려운 정진방법을 선택하는 난행도(難行道)와 쉬운 방법인 이행도(易行道)로 구분했습니다. 용수보살은 그 중에서 이행도인 염불로서 현세에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배(염불)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르지 나무를 심고 배를 만든 다음 타고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힘듭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보살의 사명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개인의 성불이고 다른 하나는 불국토 장엄이다. 성불이 개인의 인격 완성이라고 하면 불국토 장엄은 사회를 정화하는 것이다.

분열의 시대, 보살의 사명을 지니고 가엾이 정진한다면 개인의 성불 뿐 아니라 불국토 장엄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보살의 사명은 성불과 불국토 장엄
마음 비우고 밝은 자세로 공부하라



각성 스님은 현재 집필중인 〈통화총서〉 300권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統和불교' 주창…탄허 스님 사사한 대강백

각성 스님은

1938년 전남 장성의 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8살 때부터 조부에게 한학을 배웠다. 1954년 〈5천년 조선역사〉란 책에서 율곡 이이 선생이 절에 들어가 공부했다는 대목을 읽고 백양사를 찾는다.

55년 18세 나이로 해인사 백련암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이후 당시 3대 강백이라는 관응 · 탄허 · 운허 스님 밑에서 배움을 길을 걷기도 했다. 탄허 스님에게는, '제자에게 월급을 주고 원고 교정을 맡기기는 처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대강백 각성 스님이 꼽는 최고 경전은 무엇일까. 스님은 〈능엄경〉을 최고 경전으로 꼽았다.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논리적 과학적 철학적으로 설명을 잘해 놓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능엄경〉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육조단경〉이나 〈유마경〉을 권하기도 했다.

스님은 천태지자(天台智者) 대사의 "당대에 법의 이익을 끼치려면 설법을 해야 하고, 후대에 법의 이익을 끼치려면 설법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껏 강의한 것을 책으로 보급하고 싶다는 원력을 보였다. 스님은 현재 집필중인 〈통화총서〉 300권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성 스님은 부산 화엄사에 전강원을 개설해 후학 양성을 하고 있으며, 탄허불교문화재단 부설 삼일선



주경 스님의
스님이야기
상우 스님

출가인의 삶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챙겨나가는 것이 가장 멋지다. 매일 저녁공양전 소임을 마치고 자잘한 빨래거리들을 세탁하는 일도 그 중 하나다. 지금은 속가는 물론이고 산사에서도 거의 사라진 모습이지만, 스님들이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는 일은 소욕지족을 실천하는 소박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신도들이나 일반인의 눈에 가장 안쓰러운 일이기도 한 것이 속옷이니 양말 등을 직접 빨래하고 정리하는 스님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강당시절은 출가 의지와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 눈에 띄는 별난 행동들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상우 스님은 몇 가지 면에서 도반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스님이다. 성격과 하는 행동이 깔



그림 · 문병성

끔해서 '깔끔 존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원칙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며 꼿꼿한 고집을 버리지 않아 '꼿꼿 존자'라 불리기도 했다.

그렇게 '깔끔'과 '꼿꼿'을 본분으로 삼는 스님에게도 별난 모습이 있었다. 누구라도 한번씩은 양말을 꿰매어 신지만 상우 스님은 정도가 심했다. 다른 스님이 버린 양말까지 주워서 모아두곤 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떨어진 양말들과 씨름하기에, 너무 궁상스럽다고 핀잔을 듣기도 했다.

언젠가 상우 스님이 자신의 관물장을 열어 옷을 두 벌 꺼내더니 좀 보아달라고 했다. 며칠 전 옷을 갈아입고 빨래거리를 넣어두었는데 잘 구별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이 넣어둔 빨래거리도 구별못하는가, 시력이 그렇게 나쁘냐?"며 옷을 살펴보았는데, 빨아서 잘 개켜 놓은 옷들이었다. 다 새 옷인데 무슨 빨래거리냐며 관물장을 다시 살펴보라고 하니, 그 옷이 다라며 분명히 빨래거리가 있으니 잘 살펴보라고 다시 부탁하는 거였다. 분명히 며칠전 옷을 갈아입고 나중에 빨 요량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원래 빨래거리도 잘 개켜놓는 버릇이 있는데 잘 구별을 못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옷깃이며 소매를 비롯해 때가 잘 타는 곳을 눈여겨 보았지만 도저히 구별해낼 수 없었다.

빨래거리까지 그렇게 각을 맞춰 개켜놓는 성격도 그렇고 2주일은 입었다는 옷이 빨아놓은 옷과 구별조차 할 수 없게 깨끗한 것도 정말 희한했다. 그 뒤 도반들은 상우 스님의 깔끔이 경지가 높아져 이구지(離垢地)-더러움을 여읜 경지-에 오른 것인가 보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점심공양을 마치고 우리반 스님들은 안행으로 큰방을 향하고 있었다. 상우 스님은 그때 반장소임을 맡아 맨 앞에서 걷고 있었고, 줄의 뒷부분에 있던 스님 몇은 날이 너무 좋아 산행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속삭이며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행렬이 법당을 향해 가는 것이었다. 뒷사람이 앞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행이라 다들 의아해 하며 법당에 들어갔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울력거리라도 있나 하고 다들 궁금해했다. 그때 상우 스님이 앞에 나서더니 안행중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법당에 왔으니 다같이 108배참회를 하겠다고 했다. 평소 원칙에 충실한 상우 스님을 잘 알고

원칙 지키는 깔끔한 성격
양말 깁고 또 기워 신어

있던 터였다. 그렇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은 강당생활 가운데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황당했다. 몇몇이 이의를 제기했고, 이야기를 한 스님들은 자신들이 책임지고 참회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함께 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점심공양을 마치고 법당 앞을 지날 때 한 스님의 나직한 투덜거림이 터져나왔다. "오늘은 108배 안하나!" 그순간 행렬은 다시 법당으로 향했다.

이틀이나 연속 108배를 한 스님들은 아랫반 보기 창피하다며 융통성 없는 상우 스님을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우 스님은 자기를 놓고 전체 도반이 융통성이 없다고 해도 도리어 다들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끄덕도 않았다. 오히려 모범을 보인 것이니 더 당당해야 한다는 말로 도반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해인사 장경각 1000일 기도를 마치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한동안 고생을 했다고 들었는데, 만나면 늘 여여하다. 선원을 전문으로 다니지는 않아도 결제철에는 선방에 가거나 기도를 하며 게으름 없이 자신을 닦아간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 그 곽막힌 융통성도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융통성일 뿐 자신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고지식함을 지니고 있다. 때로 컴퓨터나 카메라 등 기계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자신의 수행생활과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 또한 당당하다. 가끔 도반들의 풀어진 모습을 보며 나직이 끌끌거리며 혀를 차는데 늘 견고한 그 초발심의 열정은 도반들 가슴을 뜨끔하게 하곤 한다. ■ 서산 부석사 주지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2006년 전학기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대원불교대학 불교방송 다보빌딩으로 학사이전



모집과정
- 입문과정 (서울 · 부산) : 불교입문과정 주.야간반 각00명 [주1회출석,6개월과정]
- 대학과정 (서울 · 부산) :
  - ◇불교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대학원 과정 : 서울,부산 야간반 30 명 [주2회 출석 / 야간 오후7시]
- 통신과정 : 00명 [대학원은 제외]

강의시간 ● 주간/오후2시부터 4시40분까지 ● 야간/ 오후7시부터 9시40분까지

지원자격
- 입문과정 : 불교기본 교육을 받고 싶은 초심자
- 대학과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 대학원 과정 :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포교사 자격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학업계획서 및 졸업증명서 각1부(대학원 과정만 해당)

전형일정
- 원서교부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원서접수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입문, 대학, 대학원전형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06년 2월 21일 (개별통보)
- 입학식 및 오리앤테이션 : 서울 / 2006년 2월 26일(일) 오전11시 3층 큰법당
  부산 / 2006년 3월 5일(일) 오전11시 2층 큰법당

전형료 및 수업료
- 전형료 : 입문과정 1만원 / 대학과정 2만원 / 대학원과정 5만원
- 수업료 : 입문과정 10만원[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학기당 : 대학과정 : 30만원[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대학원과정 : 40만원[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수업료는 입학식전에 완불하셔야 입학하실수 있습니다.(카드결제 가능)
1학기에 한하여 학사이전기념으로 입학생 전원 20%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 서울 : 국민은행 098-01-0244-009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 부산 : 기업은행 252-028746-01-017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 서울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2)706-1570,1 / 754-1613 / 773-9171
- 부산 : 부산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51)583-7811~ 2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 해드립니다.

문 의
- 서울대원불교대학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2층
  ☎ 02)706-1570, 1571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 02)754-1613/773-9171 / 팩스 02)771-6796
- 부산대원불교대학 : 부산 금정구 장전1동 382-2
  ☎ 051)583-7811 ~ 2 / 팩스 051)583-7700



대중불교운동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 www.buddhaschool.or.kr



날자! 더 높이 날자꾸나

철새도래지 탐조여행





▲노랑부리저어새(위)와 쇠기러기가 평화로운 한 때를 즐기고 있다.

◀가창오리떼의 군무가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바닷가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사진제공=군산시청

잔잔한 호수와 강. 그리고 갈대 숲을 배경으로 날아오르는 철새들의 향연. 바로 겨울 테마여행의 진수 '철새도래지 탐조여행'이다. 철새도래지 탐조여행은 철새들의 군무(群舞)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어 자녀들에겐 자연학습의 기회와 연인들에겐 사랑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알짜배기 여행으로 손색이 없다. 이번 주말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철새 도래지를 찾아가 수백만 겨울 철새들의 장엄한 '카드섹션' 속으로 여행을 떠나봄은 어떨까.

 # 철원 비무장지대

휴전선 인근의 철원평야는 철새들의 먹이감이 많기로 유명하다. 또 비무장지대라는 특성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어 겨울 철새들이 많이 몰려든다.

철원의 대표적인 겨울철새는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와 203호인 재두루미. 이 밖에도 쇠기러기와 새들의 제왕인 독수리, 노랑지빠귀 등 30여종의 철새가 찾아든다. 주변에는 안보관광지인 노동당사와 도피안사 등의 연계관광지도 끼고 있다.

 # 해남 고천암호

이곳은 기온이 따뜻해 겨울철에도 호수가 얼지 않아 천혜의 철새도래지 관광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가창오리 21만마리의 군무는 가히 압권. 이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철새는 가창오리지만 청둥오리와 텃새가 된 백로도 볼 수 있다.

목포로 이어지는 길목에 금호호, 북쪽으로는 영암호와 크고 작은 호수가 3개나 되고 주변 곡창지대와 갈대 숲 등이 풍부해 새들의 보금자리로 손색이 없다.

 # 순천만 갈대밭

순천만의 다크호스는 여간해선 보기 힘든 천연기념물 흑두루미다. 이밖에도 황새,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천연기념물만 11종이 해마다 순천만을 찾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구상에서 400여마리밖에 되지 않는 검은머리갈매기를 관찰하기 위해 조류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금강하구

우리나라 철새도래지의 대명사 금강하구는 10월부터 날아온 고니와 청둥오리,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의 철새가 무리지어 서식하고 있다.

철새들이 이렇게 금강하구로 모여드는 이유는 강과 바다가 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먹이가 되는 바다생물이 풍부하기 때문. 이곳을 찾는 철새의 종류만도 물새류가 74종, 맹금류 5종 등 모두 101종의 철새가 모여든다.

 # 서산 천수만

간척지인 천수만은 그야말로 철새들의 보금자리다. 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바다오리, 가창오리 등이 주종을 이룬다. 자동차를 타고 방조제길을 따라 달리면서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이 펼치는 군무는 황홀경 그 자체.

가끔 세계적인 희귀조인 황새가 나타나 큰 관심을 끌고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모습을 드러내는 곳으로 유명하다.

 # 창원 주남 저수지

주남 저수지는 을숙도와 더불어 철새들의 '제2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바다만큼이나 넓은 호수위로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떼지어 날아오르는 장관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 고니, 재두루미, 청둥오리, 기러기 등 70여종의 철새들이 이곳에서 겨울을 난다.

 # 여주 신접리

명찰 신륵사와 세종대왕의 영릉으로 유명한 여주군 북내면 신접리 일대는 본래 여름철새서식지로 잘 알려진 곳이지만 근래에는 우리나라를 찾는 황새목 백로과 4종 중 유일한 겨울철새인 대백로의 서식지로도 밝혀져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대백로는 우수리강과 아무르강 연안 초습지에서 번식하다가 우리나라에 겨울을 나러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강 밤섬

세계적으로도 단 하나뿐인 도심 속의 철새 조망대라 할 수 있다. 비비오리 · 쇠오리 · 고방오리 등 오리류가 주로 서식한다.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 전망대에는 철새 탐조를 위한 망원경이 설치돼 있어 한가롭게 유영하는 철새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또 유람선을 타고 밤섬에 살고 있는 철새를 관찰할 수 있어 낭만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게시판

중앙승가대 신입생 모집 중앙승가대학교는 불교, 포교사회, 역경, 사회복지학과 등 4개학과 84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구비서류는 입학원서, 고교졸업증명서, 승적증명서, 총무원장 추천서 등이며 모집기간은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031)980-7713

사찰요리 강좌 전국비구니회관은 불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화 및 민화 그리기, 사찰요리, 다도, 서예, 웰빙요가 등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12월 말까지며 개강은 매월 5일. (02)3411-8103

사랑의 김장나누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보일러 기름을 지원한다. (051)628-6737

무료 한방진료 서호노인종합복지관은 12월 22일 본 복지관 강당에서 침, 부항, 뜸 등의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선착순 20명. (031)291-0911



겨울 참선수련회 해남 대흥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겨울 참선수련회를 진행한다(사진). 1080배, 참선, 발우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2월 24일까지며 선착순 15명. (061)535-5775

20면 상식 퍼즐 정답

혜	연	선	사			
가			리	스	본	
단			불		동	
비					사	금
도	감					지
	광	대	무	변		옥
				이	승	엽

전시

판화로 본 선조들의 생활

삼성출판박물관 고판화특별전2



여래입상 탁본.

삼성출판박물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판화 특별전2를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고판화 특별전2는 목판을 시전지판(詩箋紙板), 능화판(菱花板), 부적목판(符籍木板), 명당도목판(明堂圖木板), 조선팔도 지도목판(朝鮮八道 地圖木板) 등 5개로 분류해 전시한다.

화전지판 또는 화전지 목판이라고도 불리는 시전지판은 시 구절이나 애장품의 미적 형상 등을 목판에 새겨 종이에 찍어내는 도구이다. 능화판은 책 겉장에 무늬를 박아내기 위한 목판인데 만(卍)자, 완(完)자, 구갑(龜甲), 마름모꼴의 사방 연속무늬라는 뜻의 능(菱)자 무늬에서 유래했다.

액막이 · 소원성취 · 전통 불교로 구분되어 전시하게 될 부적목판은 삿된 것을 물리치고 소원성취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명당도목판은 풍수도참사상을 바탕으로 명당(明堂)을 나타내고 있다. 묘지 주변의 조경이나 큰 길, 시냇물, 바위, 전답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어 지도목판과 연결되는 재미가 있다. (02)394-6544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미륵과 석탑을 찾아서

안성맞춤박물관서 지역문화재 사진전



기솔리석불입상의 겨울풍경.

경기도 안성에는 미륵과 석탑이 많다?

이 같은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줄 사진전 '안성의 미륵과 석탑을 찾아서'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안성맞춤박물관 중앙로비에서 펼쳐진다.

이번 사진전은 안성시가 지역 사진작가 엄태수씨와 공동으로 작업한 미륵과 석탑 중심의 문화재 사진들을 선보인다.

불교문화재가 많아 제2의 경주라고 불리우는 안성의 문화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국보 제296호 칠장사 오불회괘불탱을 비롯해 보물 10여점, 중요무형문화재 3인, 경기도문화재 51점과 향토유적 41점 등 총 106점의 유 · 무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칠장사 청룡사 석남사 청원사 운수암 용화사 등 유명한 전통사찰과 고려시대의 대사찰이었으나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는 고려 태조 왕건의 진전사원(眞殿寺院) 봉업사지가 남아 있다. 보물 제435호 봉업사지 5층 석탑, 보물 제983호 봉업사지 석불입상 등 보물지정 문화재뿐 아니라 아양동 석불입상, 대농리 석불입상 등 수많은 불교 유물 유적들이 남아있다. (031) 676-4353

강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2일 14:05 낭만라디오
13일 11:05 아름다운 초대
14일 10:05 BBS신행상담실
15일 09:05 행복한 미소
16일 07:05 아침저널
17일 06:20 오늘은 좋은 날
18일 07:05 사랑의 징검다리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2일 21:10 한국의 명찰
13일 02:40 불교TV스페셜
14일 14:40 명상음악산책
15일 19:30 TV법회
16일 08:20 산중대담
17일 07:30 조선불교탄압사
18일 16:50 디스커버링부디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낭만라디오(12월 16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고운기의 정겨운 입담과 재치로 오후의 나른함을 말끔히 씻어보는 시간.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12월 17일 21:10~22:10) 큰 스님들의 살아 숨 쉬는 선(禪) 법문을 들어보는 시간. 불교경전을 대표하는 <법화경> <금강경> 등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범능 스님 명상음악 시리즈(1 · 2 · 3)'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의 향음(香音)을 범능 스님의 명상음악 시리즈를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음반은 1집 '나무아미타불'과 2집 '관세음보살', 3집 '지장보살'의 타이틀로 선보인다. 해금과 통기타 그리고 신디사이저의 선율이 어우러져 명상음악의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가격은 1만 2000원

이영화 어때요?

특공대원 처칠의 히틀러 체포작전

처칠 감독: 피터 리차드슨 출연: 크리스찬 슬레이터, 니브 캠벨 장르: 코미디 상영시간: 84분 등급: 15세 이상



윈스턴 처칠하면 떠오르는 것은? '영국의 총리' '노벨문학상 수상자'.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세계사에서 가장 짧은 졸업 축사로 유명한 '결코 포기하지마라'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영화 '처칠'은 사뭇 다르다. 전설적인 영국 수상 처칠을 저돌적인 특공대원으로 변신시켜 관객을 코믹 패러디의 세계로 푹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동료 병사 아이젠하워와 함께 방문한 작전사령부에서 평범한 여자로 신분을 위장한 엘리자베스 공주를 만나게 된 처칠. 며칠 뒤 처칠과 아이젠하워는 버킹검 궁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받고 엘리자베스의 신분이 공주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러나 신분을 초월한 처칠과 엘리자베스의 사랑은 이미 불붙을 대로 붙은 상태다. 한편 같은 날 '히틀러'는 영국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 결국 궁전에서 히틀러의 부하들에게 체포된 처칠은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영국을 구하기 위해 히틀러 체포 작전에 뛰어드는데….

이렇듯 이 영화는 픽션이란 도구를 활용해 극적 재미와 대담한 패러디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다. 왕실 사람들의 좌충우돌 행동들은 영국의 귀족주의를 조롱하고 영화 '총알 탄 사나이' '못 말리는 람보' 등에서 흔히 보던 헐리우드식 패러디를 차용해 미국식 애국주의를 비판한 것이 그것.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 '처칠'. 과연 골계미와 해학만으로 관객들의 엔돌핀을 얼마나 자극할지는 의문이다.

노병철 기자

마음의 힘

문남북 (경남 창원시 북면)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고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걸음도 걸을 수 없고 발바닥에 밟히는 모래도 전신을 자극할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차도는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구인사에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처음으로 짐을 챙겨 들고 묻고 물어 구인사에 도착해 기도를 접수했다.

처음 기도 온 사람이 한 달 기도를 접수했다며 담당 스님이 허락하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아랑곳 할 겨를이 없었다.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목청 터져라 불러댔다. 높은 산 높은 허공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옆에서 내 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일주일 가량 전심전력으로 병을 던져 버리기 위해 씨름을 했더니,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버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일어나니 온 몸이 물에 빠진 듯 젖어 있고 이불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옆에서 기도하던 보살님들이 걱정하며 생강을 진하게 타서 먹이고 이불을 겹겹이 덮어 줬다고 했다. 그 후로 엉덩이 부분에 엄지손가락 마디만한 큰 부스럼이 여러개 돋아 나오더니 몸이 조금 개운해졌다.

그 후 기도 도중 환상을 봤다. 무덤 속 나무의자에 해골이 앉아 있다가 사다리를 타고 구멍을 헤집고 밖으로 기어 나오고 있었다. 환청도 들렸다. 돌아가신 조사 스님이 지팡이로 땅을 세 번 찍었다. 쾅쾅쾅. 그런 경험을 하고난 후 아침 먹기 전에 적멸보궁에 기다시피 다녀오고 머리도 스스로 빗을 수 있었다.

기도로 건강을 회복했으니 그만큼 공덕을 짓고 싶은데 내겐 돈이 없었다. 병고로 병원에 쫓아다니느라 돈을 벌지 못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한 것이 삼성각 복도 청소였다. 한 달 기도를 회향할 때 까지 청소를 하고나니 마음이 뿌듯했다. 그리고 조사전 건립하는데 마루 시주 80만원을 외상으로 했다. 노스님께 '지금은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받아달라'고 간청했더니 "어떻게 갚을려고"하면서 웃으셨다.

회향하고 집으로 돌아와 내내 시주 외상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어떻게 갚을까? 돈을 벌 방법도 없고, 떼먹을 수도 없고…. 걱정으로 아픔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을 봤다. 아동도서 가정 방문 판매직 모집 광고였다. 사무실은 바로 우리 옆집에 있었다. 승산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쫓아가서 하겠다고 했다.

병 던져 버리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기도 환상과 환청이 화두 깨치려는 작용임을 알아 마음 관하고 불교공부 할 수 있어 '행복'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내가 판매에 나선 것이다.

그렇게 해, 드디어 외상 시주를 갚은 것은 물론 판매왕에 올라 황금열쇠도 받고 월급도 제일 많이 받고 진급도 했다. 한 삼년 동안 해서 밑천을 마련했다. 밑천이 마련되면 그것으로 준비를 해서 출가를 해야지 하는 계산이었다.

그 사이 한 달 기도를 두 번 정도 들어갔다. 두 번째 한 달 기도를 하던 중이었다. 관세음보살님을 한 번 부르는데 천년이 흐르는 듯 몸이 비틀거렸고 5분 동안에도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른다. 마음이 터질 것 같았다. 쏟아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위에서 알까봐 쏟을 수가 없었다. 그런 찰나 내 몸속에서 어떤 말이 들려왔다. "이런 말들은 할 수가 없어. 주위에서 모르는 말로 대신하자." 그리곤 이상한 말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글자 한 자 한 자가 나오다 두자 석자 자꾸만 늘어가더니 나중엔 경을 읽는 듯 했다.

환상도 보였다. 두루마리에 펼쳐지는 끝없는 글을 입으로 외고 눈으로 글을 더듬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고통도 잊었다. 기도시간이 끝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다. 그때 기도 끝내는 목탁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몸이 상쾌했다. 큰스님이 "나오는 대로 해라 정신만 빼앗기지 말고"라고 말씀해주셨다.

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깊이 빠져서 했다. 해야만 했다. 걸으면서도 앉아서도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대화할 때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말이 입에 붙어서 떼어버려 지지가 않았다. 아동 도서를 팔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

수없이 내뱉어지는 소리. 이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러다 미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끝은 어디일까? 이대로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속에서 갈증과 불안이 뒤엉켜왔다. 스님을 붙잡고 "이런 행동을 계속 해도 됩니까?"라고 여쭈었지만 "그대로 하라"는 말씀 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물어봐야 속 시원한 대답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백척간두가 그곳이었다. 한동안 억지로 누르기도 하고 간간히 하기도 하면서 일이년이 흘러갔다.

다시 한 달 기도를 들어갔다. 한참 관음기도를 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한 줄기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을 봤다. 온몸이 떨렸다.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다. '앞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살 것이다'라고. 같이 기도 왔던 어머니가 '정신차리라'며 나를 때렸다. 그 뒤로는 기도가 되지 않아 등 만드는 방에서 등만 만들다 기도를 회향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또 다시 기도에 들어갔다. 그때는 느긋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말했다. "스님이 된다는 것은 좀 그래." 그러자 환청이 보였다. 가사장삼을 입은 내가 계단을 내려와 아귀벽화도 앞에 섰는데. 거기서 목이 댕강 떨어져 버렸다. 어느새 다리 건너 리어카에 실리고 강물에 버려지고 강물에 시체와 리어카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다. 이때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이상한 말도, 관세음보살님도.

입에 아무 것도 붙지 않았다. 언덕에서 툭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둥그런 해가 바다에서 쑥 솟은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 눈만 둥그렇고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마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도 끝내는 목탁소리 음악소리가 들렸다. 그 후론 마음이 잔잔할 뿐 아무런 일이 없었다. 이상한 말을 해 보려 시도해 보면 나오긴 해도 힘도 없고 시들했다. 모든 게 잠잠하고 담담하고 적적했다. 답답한 것도 아니고 편안하지도 나태하지도 긴장되지도 않았다. 좋지도 싫지도 않았다.

그 후로 몸은 많이 좋아져서 출가를 결심하고 보리정사라는 곳에 갔다. 그러나 온전한 몸이 아니어서 출가를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다 결국은 지금의 토굴에 혼자 관음상을 모시고 기도하며 살고 있다.

기도 중에 나타난 이상한 말, 환청, 환상 등등은 모두 마음표현의 한 상태였다는 것을 지금은 안다. 그때 나는 관음정근을 하다가 '이것이 무엇일꼬?' '이뭣고' 화두를 받아 이 화두를 깨치려 한 것은 아닌가 하고 어설픈 결론을 내려 본다.

이제는 마음작용을 알았고 마음이 요상하게 변하는 것, 마음의 힘을 체험했다는 것을 안다. 이제 나는 홀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고 만족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 부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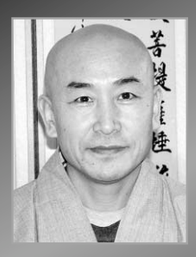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영험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 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연락처 031)736-3734 / 031)732-3790

야후 검색창에서 **해원사** 치세요

법 주 사

새해맞이. 성도절 겨울수련회

새해를 맞이하는 속리산 해맞이 행사와 성도절 철야정진 프로그램으로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새해를 설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삶의 바른 길을 이끄는 수행의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차 : 2005년 12월 30일 - 2006년 1월 1일 (2박 3일 5만원)
불교수행과 새해를 맞이하는 속리산 해돋이 행사

2차 : 2006년 1월 2일 - 4일 (2박 3일 4만원)
초등학생을 위한 신나는 전통문화체험과 눈썰매장의 즐거움

3차 : 2006년 1월 6일 - 8일 (2박 3일 5만원)
성도재일 특별 철야정진 프로그램

▌접수방법 : 법주사 홈페이지 www.beopjusa.or.kr
수련회 신청서 작성

▌문 의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 법주사 포교국
☎ 043)543-3615 (일반부)
043)296-8255 (초등부)

▌수련생 준비물 : 따뜻한 옷, 세면도구, 1차수련생(등산화, 손전등)

▌수련회비 : 농협 403020-51-018392 법주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

건학 100주년 기념

교사(校史)자료 수집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명진학교, 중앙불전, 혜화전문,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 수집, 전시함으로써 본교 100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동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일류동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수집기간 및 장소 2006년 2월 28일까지(3차)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시팀

수 집 내 용

▶ 건학관련자료(1906년 전후 사진자료, 문헌자료)
- **인물관련 :** 이보담, 김월해, 김우운, 박보봉, 김석옹, 홍월초, 김보운, 김포응, 김현암, 한용운, 진진응, 박한영, 오성월 등 건학 및 학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
- **사찰관련 :** 명진학교에서 불교고등강숙 시기(중앙 및 지방학림)
원흥사(서울), 봉은사(광주), 봉선사(양주), 용주사(수원), 마곡사(공주), 속리사(보은), 송광사(순천), 금산사(금구), 해인사(합천), 통도사(양산), 동화사(대구), 월정사(평창), 유점사(고성), 석왕사(안변), 귀주사(함흥), 보현사(영변), 신광사(해주), 대승사(문경), 남장사(상주), 용문사(예천), 명봉사(풍기), 광흥사(안동), 화엄사(구례), 송광사(순천), 대원사(산청), 쌍계사(하동), 화장사(장단), 전등사(강화), 법주사(보은), 위봉사(전주), 보석사(금산), 백양사(장성), 선암사(승주), 대흥사(해남), 김룡사(문경), 동화사(달성), 기림사(경주), 범어사(동래), 건봉사(간성), 패엽사(신천), 성불사(황주), 영명사(평양), 법흥사(순안), 고운사(의성), 은해사(영천), 천은사(구례), 태안사(곡성), 관음사(곡성)
- **각종문서 :** 결의문, 취지문, 신청서, 허가증, 인장(印章), 교훈(校訓) 등

▶ 문헌자료
- **도서 및 간행물 :** 교재, 각 기관에서 발행한 도서 및 간행물
- **문서, 문건 :** 공문서, 업무일지, 회의록, 대자보, 학생활동문건 등
- **각종 증서류 :** 학위증, 임용장, 학생증, 성적증명서, 강의시간표, 교직원신분증 등
- **인쇄 및 홍보물 :** 다이어리, 달력, 카드, 팜플렛, 포스터, 강의노트, 성적기록표 등

▶ **기념품** : 교표, 교기, 우승컵, 우승기, 상패, 각종 행사기념품
▶ **복식자료** : 교복, 교모, 체육복, 교련복, 학군단복, 실습복, 행사 티셔츠 등
▶ **사진자료** : 학교전경, 수업장면, 앨범, 슬라이드, 필름 등
▶ **동문 및 교직원 기념자료** : 휘호, 서예, 유품 등
▶ **집기 및 비품자료** : 각종 인장, 현판 등
▶ 건학 및 교사자료와 관계있는 사람들의 연락처

문 의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東國百年展」중앙도서관 전시팀
Tel:(02)2260-8639~40, 8622 Fax:(02)2260-3450 E-mail:dgulib100@dongguk.edu
※ 자료는 기증자(또는 출품인)가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거나(착불), 혹은 소장하고 있는 장소를 통지해 주면 직접 방문하여 수증하겠음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사업회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법문사 지하궁에서 발견된 찻잔인 오판 규구권족비색자완.

당나라 황제는 무슨차 즐겼을까?

한국 전시중인 부처님 손가락 사리로 유명한 中 법문사 지하궁 유물로 본 唐대 차문화

1987년 4월, 부처님의 진신 지골사리가 발견된 중국 시안 법문사 지하궁에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다른 유물이 출토됐다. 바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당나라 시대의 다기(茶器)가 그것이다.

당대 이전에는 차가 약용(藥用)으로 주로 쓰였고, 당대로 진입한 후에야 비로소 음용(飮用)으로서의 차 문화 틀이 형성되었다.

이시대 당대의 음다법(飮茶法)은 덩어리로 만든 차를 가루내어 끓여 마시는 자차법(煮茶法)이 주를 이루었다. 지하궁에서 출토된 〈물장비(物帳碑)〉에 따르면 지하궁에 봉안된 다구는 찻잎을 말리고 가루내고 저장하는 용기부터 찻숟가락과 찻잔 등 차를 마실 때 필요한 완전한 한 벌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당나라 희종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할 때 공봉(供奉)한 것으로, 희종이 황자 시절에 쓰던 '오가(五哥)'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희종이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써 당대 궁중의 화려했던 차문화를 살필 수 있는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 전시에 이어 12월 8~20일 부산 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법문사 불지사리 친견 및 지하궁 유물 특별전'에 전시되는 유물을 중심으로 당대의 차문화를 살펴본다.


차 건조기인 류금비홍구로문은롱자.


찻가루를 거르는 류금비천선학문곤문좌은다라자.


당나라 시대에 제작된 유리 찻잔과 받침.

▶ 차 건조기와 맷돌

육우가 〈다경〉에서 당나라 시대의 차 마시는 순서를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찻잎을 따서 찐 후 절구에 넣고 찧어 덩어리로 만들어 말린다. 이를 병차(餠茶)라 한다. 이 병차는 '배로'란 건조기에 넣어두었다가 차를 마실 때 마다 한 덩어리씩 꺼내 불에 건조시켜 말린 후 가루를 내 끓여 마셨다. 지하궁에서 발견된 유물은 차를 마실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 주를 이룬다.

병차를 마실 때는 차를 불에 구워 건조시킨 후 차 맷돌에 넣어 가루로 빻은 다음 가루가 된 찻잎을 한 번 더 거른 후 합(盒) 속에 넣어둔다. 그런 다음 차를 마실 때 서랍에서 분말 형태의 찻잎을 꺼내 끓이고 그것에 소금이나 후추 등을 곁들여 마셨다.

홍배기(烘焙器)는 바로 차를 건조시킬 때 쓰는 기구다.

'류금비홍구로문은롱자(漆金飛鴻敎路紋銀籠子)'는 전체 높이 17.8cm 다리 높이 2.4cm 무게 654g이다. 전체는 뚫새김으로 이뤄져 있으며 도금으로 처리돼 있다. 금사로 만들어진 은롱자를 통해 이러한 금사 직조 공예가 당나라 때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류금홍안유운문은다연자(漆金鴻雁流雲紋銀茶碾子)'는 덩이차를 가루 낼 때 쓴 절구로, 다연자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다연자는 판금 기법으로 제작됐으며 도금처리 되어있다. 전체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높이 7.1 가로 27.4 깊이 3.4 가로막 길이 20.7 너비 3 무게 1168g 이다. 바닥에 '함통 10년 문사원(文思院)에서 은금화다연자 하나를 제작했다. 전체 무게는 29냥이다'라고 쓰여져 있어 문사원에서 황제를 위해 제작한 다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류금비천선학문곤문좌은다라자(漆金飛天仙鶴紋壺門座銀茶羅子)'는 차를 가루낸 후 다시 한 번 거르는 기구다. 덮개와 망 서랍, 받침, 비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간에 가는 망이 두 층 끼워져 있어 찻가루를 걸러준다. 망 아래에는 서랍이 있어 차 가루를 넣어 놓을 수 있다.


병차를 가루낼때 쓰는 맷돌인 류금홍안유운문은다연자.

'류금비홍구로문은롱자' 등 화려한 금사 기술 자랑
소면담황색 유리다잔과 같은 유리다기 제작 사용
황실 · 귀족들 차문화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 소금과 다과 놓는 그릇

가루 내어 채에 내린 찻가루는 끓는 물에 넣어 거품을 일으켜 마셨다. 그러나 오늘날과 달리 당나라 시대에는 차를 마실 때 소금이나 생강, 박하 등의 조미료를 넣어 마셨다고 한다. '류금뇌유마갈문삼족가은염대(漆金雷紐摩羯紋三足架銀鹽臺)'는 차에 넣어 먹는 소금이나 후추 등을 담던 다구로 추측된다. 받침 접시는 소금을 놓는 용도로 쓰였으며 연꽃봉오리 뚜껑 손잡이 부분에는 다른 조미료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높이 25cm 덮개와 받침 다기 3개가 있다. 표면에는 '함통 9년 문사원에서 도금 은염대 하나를 제작했다'고 적혀 있다. 염대(鹽臺) 표면에 새겨진 마갈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코가 길고 예리한 이빨에 물고기처럼 생긴 동물을 말한다.

'류금은파라자(漆金銀波羅子)'는 다과(茶菓)를 놓는 그릇이다. 높이 4.2cm, 직경 10.8cm, 무게는 247g이다.

▶ 찻잔

이 시기의 찻잔은 자기(瓷器)나 사기(沙器)를 주로 사용했다. 궁중에서는 금이나 은 혹은 유리로 만든 잔, 비색(秘色) 자기 등 화려한 다구를 이용했는데 법문사 지하궁에서도 오판규구권족비색자완(五瓣葵口圈足秘色瓷碗)을 비롯한 비색 자기와 소면담황색유리다잔(素面淡黃色琉璃茶盞)과 다탁(茶托) 등의 유리다기가 출토됐다.

그 중 소면담황색유리다잔 세트는 지하궁에서 출토된 20개의 유리 제품 중 유일하게 중국에서 제작되 것이고 나머지는 이슬람에서 건너온 수입품으로 추정된다. 유리찻잔은 전체적으로 담황색을 띠고 있으며 윤이 나고 투명한 느낌을 준다. 재질은 여러 가지가 섞여 분명치 않지만 이 찻잔을 통해 당나라 때부터 유리로 제작한 다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법문사 지하궁에서는 찻잎을 말릴 때 썼던 금은사결조롱자(金銀絲結條籠子)와 덩이차를 빻아 담아 둔 류금은귀합(漆金銀龜盒), 차를 끓이던 은풍로와 가루가 잘 섞이도록 차물을 저어주는 용기인 류금만초문장병작(漆金蔓草紋長柄勺), 은으로 된 찻수가락인 류금비홍문은칙(漆金飛鴻紋銀則) 등도 출토돼 당나라 황실의 차문화를 그려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제공=도서출판 일빛 〈법문사의 불지사리〉

조선시대 ㉙



총독부 지휘아래 제다업자들 이득 챙겨
광복후 차 생산 일인들의 힘 입은건 사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극에 달해 각급 학교 조선어과를 폐지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했다. 일제는 그들의 정신을 심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식민지 사관에 입각한 교육을 시행했다. 학계나 관계에서는 우리 차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제다업자들은 다원을 만들어 차 제품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정리한 차 관계 자료들이 지금 와서 우리 차문화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된 것은 사실이다. 또 광복 후 차의 생산이 이때 일인들이 개척한 것에 많은 힘을 입었다.

중국도 이때는 전쟁 와중이라 특기할 것은 없고 일본은 새로운 제다법과 다맥(茶脈)의 부활을 시도해 그들의 정신을 이었다.

① 〈다신계절목〉 등 차에 관한 많은 자료가 수록돼 있다.

② 불회사의 이학치 스님의 단차와 보림사의 돈차(청태전)는 사원차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③ 매일신보사에서 '다시' 공모.

④ 삼품창영(三品彰英)은 '조선의 차'를, 호천해당(好川海堂)은 차례, 상감청자 등에 관해 발표했다.

⑤ 강진에서 이한영(李漢永)씨가 만든 차로, 고급 작설이며 대략 60~70g씩 포장해 판매했다.

⑥ 장형두(張亨斗)가 전남에 분포된 차나무의 상태를 조사한 것이다.

⑦ 제강존(諸岡存)은 광주에서 차를 마셔야 한다는 강연을 했다.

⑧ 가입일웅(家入一雄)은 '청태전 탐사기'를 발표했다.

⑨ 제강존이 '조선에서 당대(唐代) 단차(團茶)의 발견' 발표.

⑩ 경성화학(주)이 일본 차 종자를 들여와 보성읍 야산에 심었다.

⑪ 제강존과 가입일웅은 '조선의 차와 선'에서 우리 차에 관한 자취와 현장답사를 적었다. 이는 1991년 김명배 선생에 의해 번역됐다.

⑫ 이기관서(已崎關西, 페인트회사)가 30정보의 다원을 조성해 돈차를 제조했다.

⑬ 총독부 학무국에서 간행한 '조선의 차'에서 일본 다도교육을 이식해 일본 생활문화와 정신을 익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했다. 40년에 이화여전을 비롯 전국 47개 여학교에서 일본 다법을 가르쳤다.

⑭ 가입일웅은 화엄사 백련사 대흥사 등을 다니며 차 시배지를 장죽전이라 주장하고 차의 생산량을 조사한 '반도 끽다의 자취를 찾아서'를 발표했다.

⑮ 천천백교(淺川伯敎)는 조선의 차가 일본차에 미친 영향 등을 밝힌 '조선의 차'를 발표했다.

⑯ 강진(옛 이름이 금릉)에서 다산이 가르친 제법으로 만든 차가 금릉월산차다.

⑰ 호산원(胡山源)이 편찬한 책으로 총 15만자에 달하는 중국의 고금의 다사(茶事)를 기록했다.

⑱ 왕운비(王雲飛)가 편찬한 총 30만자의 책. 장만방(莊晩芳)와 유부지(劉富知)가 쓴 것도 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936 〈여유당 전서〉 간행 ① 불회사, 백련사의 단차 ② 다시(茶詩) 모집 ③ 조선의 차 방송 조선의 차에 대하여 ④ 1937 백운옥판차(白雲玉版茶) ⑤ 1938 다수분석조사(茶樹分析調査) ⑥ 음다(飮茶) 권유 강연 ⑦ 1939 전남해안지방 청태전 ⑧ 조선에서 단차(團茶) 발견 ⑨ 일본종 차를 보성 야산에 심다 ⑩ 1940 조선의 차와 선 ⑪ 보성다원 ⑫ 1941 일본다도 보급 ⑬ 반도의 끽다 자취 ⑭ 1944 조선의 차 ⑮ @ 금릉(金陵) 월산차 ⑯	청대	1941 〈고금다사(古今茶事) ⑰ 1942 〈다작학(茶作學)〉 ⑱	강호시대	1936 북야 대다탕 1938 옥로가 증차로 됨 1940 이에모도 조직 1941 차와 문화 1943 〈차의 과학(茶之科學)〉

예약 주문 신청 문의
전화 : 02)722-7777 / 팩스 : 02)722-7845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37번지
월간 다도 편집부
※ 정기구독자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이한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
상권 10,000원, 하권 13,000원
월간 「다도」 정기 구독자께는 상 · 하권 20,000원에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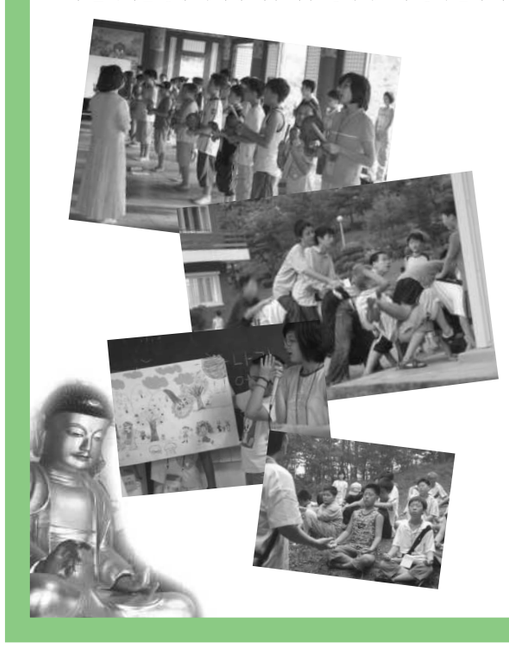




드디어 발간되어 판매 중입니다.

아듀 2005, 웰컴 2006!!!
제2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심성수련, 명상수련

최근 참선, 명상 등 불교수행법이 심리치료 및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와 함께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하계방학에 이어 동계방학에도 제2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를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명상캠프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공부하며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수행하면서 서원과 목표를 세우고, 희망찬 2006년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05년 12월 29일(목) ~ 2006년 1월 1일(일), 3박 4일간
장소 : 다보사 다보수련원(충북 괴산)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3학년(부모님과 교사도 참가 가능)
참가비 : 150,000원(격월간『불교와문화』· 월간『불광』구독자 10% 할인)
진행 : 김남선(교사, 제1회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명상캠프 및 심성프로그램 다수 진행) 외 10명

◎ 목표
• 부처님 일대기 알기
• 나는 누구인가? 탐구하기
• 부처님의 일대기로 심성수련, 명상수련, 목탁 염불수련
• 목표와 서원이 있는 삶의 계획 세우기
• 희망찬 2006년 새해계획 수립하기, 희망 발원하기
• 내 안의 참된 스승 찾기
• 자신과 타인 이해하고 수용하기
•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익히기
•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갖기 및 자신과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기

• 절 명상 • 목탁 염불 명상 • 진언을 통한 자비 명상 • 음악 명상
• 참회 명상 • 화해 명상 • 축복 명상 • 버리기 명상
• 죽음 명상(유서 쓰기) • 불꽃 명상 • 관상 명상 • 나누기 명상, 요가 등

◎ 참가 접수 및 일정 안내
격월간 불교와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02-719-2606
월간 불광 www.bulkwang.org 02-420-3300

오직 뜻으로 간직하면서 허탈히 戒를 생각지 말아야

여러분! 오늘 오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증득하지 못하고 오계를 방편으로만 설하고 방편으로만 우리가 오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둘이 아니며,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의 온 누리의 그 뜻이 한 찰나에 서리니 오계를 받은 분들은 앞으로….

첫째는 악한 병고에 휘달리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모두 한마음으로서 돌아가는데 공부에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우 꼬랑지라도 봐 둬야 물리가 터지고 충전이 되듯 우리가 사는 뜻이 그대로 전력과 자력과 통신력이, 그리고 광력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오계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을 기르고 어머니 아버지로서 부모를 모시고 살아나가는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한마음으로 오계 받은 사람이 낼 것이면 그 마음의 뜻이 서로서로 전달되지 않으면서도 전달되면서 이어진다는 그 밝음의 불빛. 여러분은 그저 오계만 받는다 하면 돈을 내고 가서 계를 받는데, 그것은 만약에 스님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계를 준다 하고 계첩을 준다고 만든다 하면 그것은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잘 생각하시고, 계첩이나 또는 오늘 서로 계를 주고받은 그 뜻을 마음으로서 새겨야지 물질로서 주고받은 그런 겉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준 사람도 책임이 있고 받은 사람도 책임이 있고 부처님의 뜻도 책임이 있으니 여러분은 잘 생각해서 그 계를 지키시도록 하며 또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하죠? 그러나 이 오계를 오늘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만약에 승천하는 길이, 천당길이 지금 청와대라면, 비유하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근거가 없이는, 표를 안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린 오계를 받은 뜻의 그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만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방편으로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나도 책임이 있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 내가 만약에 거짓으로 했다면 내 책임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책임이 크다면, 여러 신도님들에게 만약에 허탈해 하면서 거짓으로서 설했다면,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서 여러분에게 계를 설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구렁이가 돼서 여러 신도님의 의식이 그 비늘마다 들어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대한지 여러분은 그것을 깊이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여러분한테 계를 설한 것을, 나는 주는 사이 없이 주었으니 여러분도 받는 사이 없이 받아서 오직 뜻으로 간직하면서 허탈히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지금 선풍한 것이 뭐냐 하면 각 절에서 계를 준다 하면 그저 무조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서 받는 것을 능사로 생각하시는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계를 허탈히 거짓으로서 방편으로 했다면 그건 한데 떨어지는 설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라. 계를 설하되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때 그 시절에 있던 그 뜻은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삼천 년 전이 오늘이요, 삼천 년 후가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자체에서 찰나찰나 공해서 변해 돌아가고 부서지고, 모든 게 찰나찰나 늙어지고 젊었다가도 자라고, 자라면서 늙어지고 없어지고 또 생하고 이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잘 마음을 가다듬어서 한마음으로서 한마음에서 나오는 걸 한마음에다 되입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진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또 계 받은 사람이 딴 데 가서 또 좋을 줄 알고 계를 받으면 여러분은 오늘의 그 계 받은 게 무효가 될 것입니다. 애써 그냥 피땀을 흘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서 살 연구 하는 사람이 옳게, 단 1불을 쓴다 하더라도 옳게 써야지 허무하게 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저께도 가만히 보니까 이 장소가 좁습니다. 하지만 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옹기종기 앉아서, 또 옹기종기 앉아 있지 못하면 저기서라도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림이 궁색한데 이 절에서 크게 한다고 집만 넓히고 그런대서야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성스럽게 되는 한, 십시일반으로 되는 한 넓히자는 거지 여러분이 집이 없이 굶주리면서 이 절간을 넓히자 하는 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궁색하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병고에 휘달린다면 이 못난 나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는 병고가 없어지고 가난이 없어지고 가환이 없어지고 업보가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그 밝은 마음과 내 밝은 마음이 지속되면서 아마 웃음으로써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목탁만 쳐서 중이 아니고 머릴 깎아서 중이 아니고 옷을 입어서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마다 나름대로 자기 머리를 자기가 채찍으로써 치면서, 오늘도 자기 채찍으로써 자기 머리를 쳤습니다. 자기 장삼자락의 그 순색을, 그대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중심과 중도

> "마음의 창살 없는 감옥을 툭 쳐버리고 한 찰나에 나설 수 있는 당당한 여러분이 되세요!"

와 중용을 그대로 실천화시키는 이런 보람 있는 오늘의 이 깊은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여러분을 지속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스님들이 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또 태어난다 죽는다 이런 마음도 없이 끌간 데 없이 여러분의 심부름을 싫다 안 할 것입니다.

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지속되기도 하고 반 길을 가다가 반 길에 끊어질 수도 있고 현실에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한 채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오계를 준 오늘, 내 책임도 있으니만큼 여러분 앞에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오계를 받은 것이, 그리고 계첩을 받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고 부처님의 뜻이, 삼라만상 우주 세계, 이 세계가 말없이 바로 말이 전달되고 바로 손 없이 손이 온 누리에 꽉 차 있고 걸어다님이 없이 그 평발을 어디고, 바로 부처님의 발은 한 발로 디뎠습니다. 이 엄청난 도리를, 광대무변한 이 도리를 여러분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의에서 구하는 것은 미신 짓이요, 자의에서 구하는 것은 진실한 정(定)에 드는 바로 참선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그 마음, 참마음을 바로 발견하는 옳은 길이 정에 드는 길입니다. 내가 잠시 살다가 갈 것을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잠시 낙엽과 같은 것을 그렇게 타의에서 나를 살려 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양심도 없고 또는 자기의 그 모든, 왜 자기의 마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도 꿋꿋하게 인간이라면 왜 남한테 빕니까? 왜 남한테 노예가 됩니까?

왜 만날 심부름꾼이 돼야 하고 왜 남한테 구걸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농사지어서 가을이면 추수를 해 들이고 봄이면 또 심어서 또 먹고 되남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또 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여여하고 부유하게 살지 왜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그렇게 좁디좁은 골짜기에서 썩은 물이 고이게 만듭니까?

여러분은 못났든지 잘났든지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남의 노예가 될 게 아니라 자신이, 여북하면 자신(自神)이라고 그랬나요? 다른 신에다 빌 게 아니라 내 신에다가, 차라리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신에다가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쫓기고 쫓으면서, 그리고 밟히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오늘날까지 인간의 탈을 쓰게끔 한 장본인의,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여기까지 이끌어 온 장본인의 참자기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비유를 했죠,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마누라를 넷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첫 마누라더러 인제 죽게 되니까, 부자인데 돈을 많이 벌어 놓고 죽게 되니까 너무 원통하거든요. 그래서 첫 마누라한테 고했습니다. "내가 인제 죽게 됐으니까, 마누라! 당신과 나와 같이 갑시다." 하니까 "나는 당신하고 못 가오." 그러거든요. 둘째 마누라더러 또 "갑시다." 하니까 "나도 못 가오. 당신이 좋아했지 내가 당신을 좋아한 건 아니오. 당신이 나를 좋다고 쫓아다녔지 내가 좋아서 당신을 쫓아다닌 건 아니오." 하더랍니다. 당신하고는 영 못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셋째 마누라더러 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갈 때 혼자 가기가 너무 쓸쓸하니 당신과 나와 같이 갑시다." 하니까 "나는 당신하고 같이 가되 묘지 앞밖에는 못 가고 화장터밖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 또 쓸쓸해서 넷째 마누라더러 그랬습니다. "여보! 같이 갑시다." 하니까 "여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오!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당신과 나와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일 초도 떨어지지 않고 이날까지 살았거늘 올 때도 같이 왔고 갈 때도 같이 가지 그게 무슨 소리요?" 하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첫째 마누라는 내 몸뚱이를 말한 것입니다. 둘째 마누라는 재산을 말한 겁니다. 셋째 마누라는 자식과 부인, 가족입니다. 넷째 마누라는 바로 자기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비유할 때 첫째 마누라인 그 자기 몸도 같이 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 몸도 다 내버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쓰다듬고 뭐 멋 내고 뭐 그냥 머리 빗고 목욕하고 바르고 이러던 이 몸뚱이도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둘째 마누라인 돈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쫓아다니느라고 병까지 들면서 쫓아다녀도 그 돈이 말을 하기를 "당신이 좋아서 쫓아다닌 거지 내가 좋아서 당신을 쫓아다닌 게 아닌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쫓아가겠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보세요. 자식들을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기르고 그냥 내가 쓴 것을 먹고 단 거를 주고, 내가 굶더라도 자식들을 먹이고 이렇게 길렀는데도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같이 가 주지 못해요. 살아서도 다섯 가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그랬죠, 다섯 가지를 대신 못해 준다고.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 하더라도 대신 못해 준다고요. 또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대신 못해 준다고요. 그렇듯이 가족이 바로 화장터나 묘 터까지밖에는 못 가 준다는 거죠. 그것도 인연에 따라서 한데 합쳐서, 짚단 모여서 매 놓듯이 비가 와도 천둥이 몰아쳐도 서로 쓰러지지 않고 살자고 인연을 맺은 바로 가족이죠. 그래 그 가족들도 또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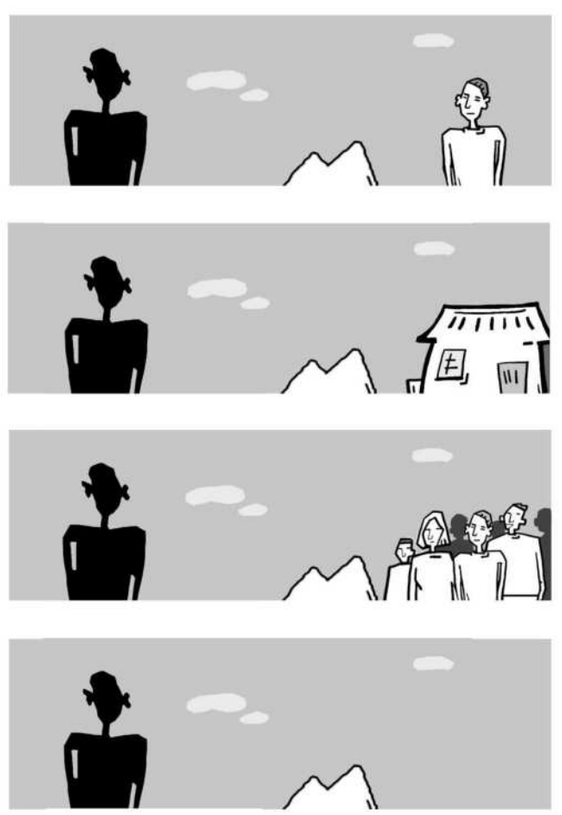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앞뒤가 다 걸림없이 뚫린 퉁소같이 살아야

☞29면에서 계속

쫓아갈 수 없고, 오로지 자기 주인공만이 이 세상을 같이 살고 자기를 또 형성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못나게 했든지 잘나게 했든지, 자기 작품을 자기가 그려서 자기 모습을 턱 해 놓고, 형성시켜 놓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서 그냥 왈가왈부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몸뚱이가 없으면 무효고 분별이 없으면 목석이고, 바로 생명이 없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또 무효죠. 그렇듯이 주인공만이 변소에 가도 같이 갈 수 있고 아파도 같이 아플 수 있고 또는 웃어도 같이 웃을 수 있고 사랑을 해도 언제나 일분일초도 떠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주인공밖엔 없는 것이죠, 늙으나 젊으나. 그냥 고독해도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구경을 가도 같이 구경하고 올 수 있고 똥을 누어도 같이 똥을 누고요. 허허허, 참 그런 사랑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한 철 살고 헤어질 거라면, 그거 무슨 한 철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스님들은요, 다 버리고 한 철 살 수 있는 인연들을 맞지 않으려고 이렇게 머리 깎고 모두가 내가 되고 남이 하나도 없듯이 모든 걸 버리고 입산을 해서 모든 걸 얻어 가지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 자체를, 그 능력을, 그 중용을 해서 보이지 않는 데 중생들이나 보이는 데 중생들이나 다 같이 한마음으로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연비를 하면서도 '자성본래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나 역시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여러분한테 오늘 이렇게 오계를 설하면서 아주 진실하게 또는 거짓 없이, 저 애들이 지금 연비를 했는데 아주 돌아서서 중병을 앓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것만 해도 고마운 걸 말로 할 수 없는데 앞으로의 그 인연으로 인해서 죽어도 천당문이 활짝 열렸다 이 소립니다. 청와대 들어갈 때 그냥 그저 여기 마크 하나만 붙였으니까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문 닫고 들어오지 말라 이런 소리가 없거든. 그와 같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오늘 오계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진실하고 참된지,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런 연비를 받으셨습니다.

삼계에 두루 하니
그 두루 하는 그 모습들이여, 영가들이여!
그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영가들이 따로 없고
현재 생명들이 따로 없는
바로 도심으로서의 여여하고 생활이 실상이니
한마음으로 뭉쳐 그 도리를 알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여러분이 나왔으니깐 여러분이 일거리가 있고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것을 다 한마음에다 놓고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사신다면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 참선이요, 또 어저께가 없고 내일이 없는 오늘의 앞뒤가 다 걸림 없이 뚫린 퉁소와 같이, 대나무 퉁소와 같이 앞뒤 뚫린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산다면 그것이 참선이요, 망상이라고 많이 끄달리고 모두 끊으려고 앨 쓰지 말고 그 망상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끊지 않고 그대로 거기 놓고 들어가는 것이 열반의 참선입니다. 열반의 길로 그냥 들어가는 아주 코스라 이겁니다.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바로 은산철벽도 없는 것이고 사방이 막힘도 없고 지붕도 막힘도 없고 모두가 뚫렸어요. 사방이 툭 터졌으니 내 갈 길이 걸림이 있으며 내 가는 길에 또는 막힘이 있으랴! 이겁니다. 내 마음먹는 대로 내 마음은 거침없이 지구 바깥을 벗어나고 어느 혹성이라도, 어느 펄펄 끓는 물속에라도…. 여러분! 지금 사시는 의식이 바로 '물이 깊어서 나는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의식이, 죽어도 그냥 그 의식이 남아 있어서 이런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남아 있어 가지곤 '아이고! 저 물에 빠져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못 건너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죠? 부처님께서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죠? 그러한 강을 건너는 데도 내가 마음이 체가 없어서 한순간에 빛보다 더 빨리 건너 갈 건데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 그 의식과 참된 마음을 몰라서 그냥 그 의식대로 가지고 아이고, 저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건너가질 못하는 거죠. 그 의식으로 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불이 있으면 불의 소용돌이가 있으면 불로 건너가질 못해요. 그 속에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 소용돌이가 있으니까 뜨거워서 거기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부처님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곳을 그렇게 건너가지 못한다면 죽어선들 건너가리까? 또 그뿐입니까? 은산철벽이 막혀 있으면 그게 높고 두꺼워서 뚫질 못해서 못 간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그거 넘어가지 못 넘어 가죠. 귀신들이 득시글득시글 하고 독사가 득시글득시글 한데 그거 잡아먹힐까 봐 또 못 갑니다. 그러니 그것만 보더라도 네 군데가 다 그냥 못 건너가죠? 살아서 그렇게 못 건너가죠? 청와대도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가죠. 그게 의식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에 체가 없는데 뭣 때문에 강을 못 건너가느냐, 불을 못 지나가느냐, 독사가 있는 데 왜 못 가느냐, 은산철벽을 왜 못 가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연습시키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에 걸리지 않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진실하게 걸어가는 이 참사람의 참뜻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고, 자유인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를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넉넉하고 저혜 있고 다 물리가 터져서,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헤매다가 그 감옥을 그냥 툭 쳐 버리고 한 찰나에 나서는 그런 당당한 여러분이 되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 오늘도 지금 연비를 하고 이렇게 오계를 여러분한테 주었는데 오늘 그렇게 연비를 하고 오계를 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업이 많아서 두꺼우면 물리가 터지질 않아요. 아문해서. 아이것은 포괄적인 우주 전체 삼라대천세계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있으며 태양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니라. 이 세상의 산하대지의 근본도 바로 마음의 근본이라는 뜻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뜻은, 여러분이 왜 배웠습니까? 이거를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밝게 켜는 그 장본인의 그 발전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지 딴 데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주인은 여러분이고 그 지구는 우리의 집입니다. 집과 주인과 들이 아닌 까닭에 지구에서도 대기권이 있고 나쁜 것은 레이다망이 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개발되고 알게 되고 천문학으로서의 그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0년 12월 9일 수계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은산철벽도 없고 사방이 툭 터져서
걸림이 없고 내 가는 길에 막힘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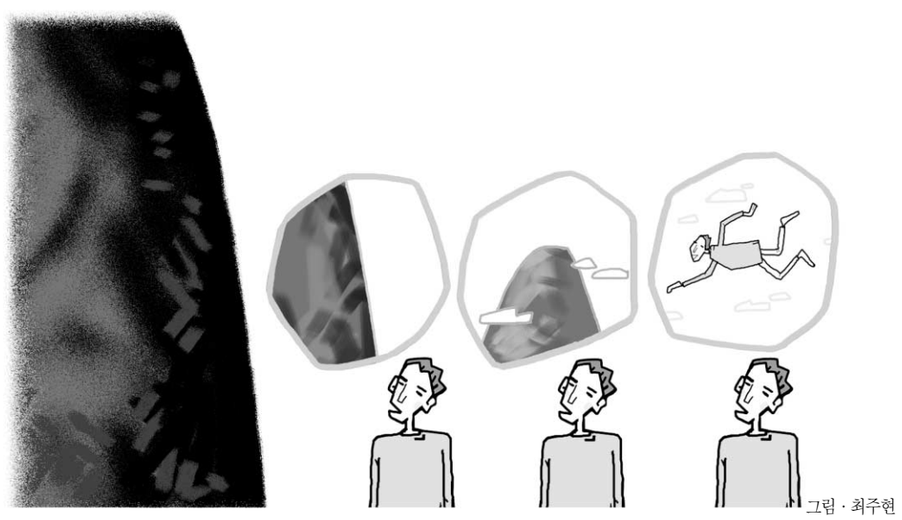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서화당인생풀이 V2.2 (동양철학)
네오헬스 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 V2.0 (작명)
▶할인후 : 총3장 220,000원

동양철학 사주팔자, 궁합, 당사주, 토정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꿈해몽, 만세력제공, 사주사전기능, 방명록기능, 출력기능까지 (그간 3,000여장 판매실적) ☞ "특허받은 「사주천하」 LG산전 납품실적"
사상의학 나의 체질진단, 약선정보, 사상의학 강의실, 체질별 건강정보 사상체질 식단 및 이로운식생활제공
인장성명학 사주풀이 및 이름자 뒤에 인,장,점 등 표기설명, 성명풀이(한글, 한자), 작명(항렬자, 돌림자 풀이)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 2045년까지 풀이됩니다.
■ 주문 선착순 100명께는 왕초보도 척척푸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의학의 진수 "사상약물방제대전 ₩88,000원"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 본 광고의 판매 수량 및 가격 유효기간은 500세트 한정 판매이며, 세트 판매 주문은 2006년 1월 20일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종전대로 가격이 환원 됩니다.

입금처 : 우체국 313049-01-003391 (예금주 : 농 협 453050-55-002174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특가행사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V2.0 ₩110,000
▶CD 총3장 ₩440,000원을 특별할인(-50%) 판매가격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주문후 택배로 익일에 도착합니다>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 감수 : 한국동양철학인협회 중앙회장 최국봉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송인창
☎ 050-2266-3366 / H·P 010-3366-3366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 하시어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2006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뤄주신 은혜, 보은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경추 편두통, 불면증, 신경과민, 안선피로, 두골이통,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심장, 폐, 간장, 췌장, 신장, 비장, 위장질환, 소장
요추 빈비, 요통, 관절통,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선추 좌골신경통, 전립선, 생식기계통
미추 직장, 치질, 꼬리뼈의 통증

특전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5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5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연말 잦은 회식자리 건강 챙기기

직장인 박진홍씨(서울시 구로구 · 32)는 요즘 회사 나가기가 두렵다. 연말연시를 맞아 망년회 등의 모임이 잦기 때문. 모임 때 마다 어쩔수 없이 마셔야 하는 술이 더 큰 이유. 이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술자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음주 횟수를 줄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지혜로운 음주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연말 모임을 대비해 '건강 챙기는 방법'을 알아봤다.

2차, 3차~ 몸생각 해야지



그림 · 박구원

식사 거른뒤 음주 금지
천천히 마시고 섞지 말 것
반신욕 등 숙취해소 도움
오미자·칡·인삼차 등 효과

 # 모임에 나가기 전

김강한의원장 김강 한의사는 술자리 전에는 꼭 식사를 하라고 조언한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해 급성 위염이나 위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다.

적합한 음식으로는 두부, 고기, 생선 등 저지방 · 고단백 음식이나 죽, 수프, 북어국, 콩나물국 등이 좋다. 또 술자리 전에 우유를 마시면 위에 포만감을 주어 이후에 마시는 술의 양을 줄여 준다.

우유가 위벽을 감싸 줘 음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염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과음 뒤 우유를 마시는 건 숙취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물과 전해질이 풍부한 이온음료나 과일주스를 많이 마시는 것도 한 방법. 술을 마시면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져 숙취가 유발되는데 물과 과일주스 등을 마시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데다 알코올을 희석할 수도 있다. 숙취해소음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숙취 해소 음료가 도움이 된다.

 # 적정량 지키기

술은 되도록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술이 천천히 흡수될수록 뇌와 신경세포에 도달하는 알코올의 양도 적어진다. 소주 한 병을 30분 동안 마시는 것이 소주 두 병을 2시간 동안 마시는 것보다 더 해롭다.

무엇보다 술은 섞어 마시면 좋지 않다. 술은 각 종류마다 알코올의 농도와 흡수율, 대사 및 배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섞어 마실 경우 술끼리 서로 상호 반응을 일으켜 더 취하게 만든다.

천천히 자신의 주량과 그날의 컨디션에 맞게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간에서 알코올 성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김강 한의사는 "성인의 경우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알코올 양은 하루 80g정도다"며 "종류별로 보면 소주는 3잔, 맥주 1500cc, 포도주 600㎖기준 1병, 위스키는 2잔을 넘지 않는 게 좋다."고 설명한다.

폭탄주를 마시면 빨리 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30도 이상의 술이 인체에 가장 빨리 흡수되는 데다 '폭탄 제조'시 생성되는 탄산가스가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또 소주, 보드카, 위스키, 브랜디 등 증류주가 포도주, 동동주, 맥주, 막걸리, 과실주 등의 비증류주보다 불순물의 함량이 적어 숙취가 덜 오래 간다.

 # 깨끗한 뒤끝을 위하여

술을 마신 뒤 커피,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면 탈수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이 더 쓰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한다. 하지만 40도 정도의 물에 20분 정도 발만 담그는 '족탕'이나 가벼운 샤워와 반신욕은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므로 해독 작용을 하는 간의 기능이 활발해진다.

또 식혜나 꿀물, 과일주스, 이온음료 등을 마셔 부족해진 수분과 당분, 전해질 등을 보충하도록 한다.

숙취해소에 좋은 차(茶)는 오미자차, 녹차, 칡차, 구기자차, 인삼차, 유자차, 생강차 등. 꿀물이나 초콜릿, 단감 등을 섭취해도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다. 선짓국, 콩나물국, 복어국, 조갯국 전복죽 등이 숙취 해소에 좋다는 것은 상식. 선지에는 특히 전해질 성분이 풍부하며, 콩나물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아 해장국으로 안성맞춤이다.

저지방 고단백인 복어에는 혹사한 간을 보호해 주는 아미노산이 많으며, 조개에도 타우린, 베타인, 아미노산, 핵산류 등이 많아 술 마신 뒤 간을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다. 술을 마시면 특히 비타민 B군(群)이 많이 파괴되므로 니아신, 엽산 등 비타민 B 복합제를 복용하는 것도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 숙취 때문에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울 때는 머리 꼭대기에 해당하는 '백회' 부위를 2~3분 정도 세게 누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병철 기자**

잘못 알고 있는 숙취해소법

잘못된 숙취상식	전문가 조언
해장으로 얼큰한 짬뽕과 라면이 좋다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병원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는 게 좋다	습관이 되면 오히려 자체 해독력 저하
억지로 토하면 덜 취한다	위출혈을 일으키거나 기도 폐쇄로 사망할 수도 있다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 숙취가 해소된다	수분과 전해질을 빼앗겨 오히려 해롭다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41)

만병 진단에 한·열증 감별이 기본

오줌의 내용물과 특성도 요진에 있어 반드시 살펴야 할 지표이다. 가만 놓아둔 시뇨가 뿌옇게 혼탁해지면 통상 열성(熱性) 병증이고, 반대로 멀겋게 묽어지면 한성(寒性) 병증으로 본다. 시뇨가 바닥에서 상층으로 서서히 변해가면 별로 오래지 않는 열성 병증임을 뜻한다. 오래된 만성 열증 병이면 용기의 얕은 주변부로부터 깊은 중심부 방향으로 변화가 일게 된다. 한성병증 역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향하는 변화가 관찰된다.

오줌의 세세한 특질이나 변화상을 포착하여 실로 다양한 질환들을 감별할 수 있다. 그러나 만병의 진단에 기본은 역시 한증과 열증의 감별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한증 병의 오줌은 요색이 연한 초록빛을 띤다. 막 받은 한증 병 오줌은 묽고 김과 냄새가 거의 없으며 다소 크기가 큰 거품이 일었다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겉에 뜬 찌끼나 부유물은 엷고 적다. 이런 한증 병의 오줌은 오래 지나도 별 변화 없이

오줌상태 봐서 진단 …일상화된 방법

요색 진황색이면 열증, 냄새·김 없으면 가열증

요색도 초록빛 그대로이다.

반면, 열증 병의 요색은 진노랑색이고 막 받았을 때 농도가 더 진하며 김도 더 많고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거품은 잘고 노란색이며 금방 없어져버린다. 표면에 뜬 찌끼는 다소 두터운 편이고 부유물은 위아래로 계속 움직여 쉬 가라앉지 않는다. 가만 놓아두면 미쳐 김도 다 걷히기 전에 요색이 짙게 변해버린다.

사증(邪症)을 잘 가려내고 오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심한 관찰과 빈틈없는 안목이 필수적이다. 요색이 붉은색이라면 어느 장기와 관련한 병증이고 어떤 유의 열증인지를 더 가려봐야 한다. 열성 병에서 요색이 붉고 흐리며 아래층에 부유물이 있으면 신장의 병증이요, 붉은색에 초록빛을 띠고 맑고 투명하며 가운데층에 부유물이 보이면 비장의 병증이다. 그리고 요색이 암적색이나 담홍색이고 부유물이 널리 고루 퍼져있으면 간장의 병증이다.

요색이 붉으면 보통 열증 병증으로 해석되나 그것이 혈액의 열증인지 허열(虛熱) 열증인지는 더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오줌이 진하고 탁하며 김이 많으면 혈액의 열증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김도 적고 요색도 맑으며 거품이 크면 허열 열증인 것이다. 또 요색은 붉은 색이지만 거품이 없는 오줌은 열사(熱邪)가 내부로 침습한 병증이고, 거품이 없으나 초록색인 오줌은 오래된 한증 병증이다.

오줌의 진단에 또 각별히 유의할 점은 가성(假性)병증의 선별이다. 오줌이 청백색이면 보통 한증 병의 지표(指標)이나 거기에 부유물이 많고 탁하며 농도가 짙으면 가한증(假寒症)의 실열증(實熱症)으로 봐야 한다. 반대로 요색이 진황색으로 외견상 열증 증세로 보여도 부유물이 없고 김이나 냄새가 조금도 없으면 실제로는 한증 병인데 겉만 열증으로 보이는 가열증(假熱症) 병인 것이다.

임상경험이 많은 티베트의 전통 명의들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병자의 시뇨만으로도 병을 진단할 수 있다. 티베트는 지형이 워낙 넓고 지세가 험준해서 의사가 직접 환자를 왕진할 기회가 여의치 않다. 그런 여건에서는 시뇨만을 보고 진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 사회도 요진을 시행하기에 별반 나은 사정은 못 된다. 모두들 정신없이 바쁘고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이 뒤죽박죽이 되었으니 원칙에 충실한 시뇨를 받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티베트의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진단법의 하나는 맥진이다. 맥진이야말로 서구 의학계로부터 가장 전폭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티베트의학의 진수이다. 맥진은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어 병증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촉진의 한 유형이다. 맥진은 익히는 데만도 몇 해가 걸리고 달인의 경지에 이르려면 수십 년도 부족하다. 티베트의학의 맥진법은 한의학의 그것과 비슷하나 나름대로의 고유한 진단체계로 그 틀이 크게 바뀌었다.

티베트의학에서는 맥(脈)을 의사와 병을 이어주는 전령과 같은 존재로 이해한다. 티베트의서에는 진맥을 13절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맥진의 전반적인 개요부터 다음 회에 자세히 살펴보겠다.

■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탈종공고

● 사찰명 : 선공암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산 408
● 법 명 : 이홍구(이선달)
● 승려증번호 : 06104(교구 대전)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극락사
● 주 지 : 심현섭
● 주 소 : 충남 연기군 전의면 양곡리 산 59-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극락사원
● 주 지 : 심화섭 외 1인
● 주 소 : 충남 연기군 전의면 양곡리 100-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4일

대한불교 정음사원 달마선양회 총무원장 법하

기적의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시긋한 치아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진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연말연시 마하몰 특가상품 지상기획전

파격적인 가격을 지면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난방기 특별보급 행사

신일 세라믹원적외선 석유열풍히터

강약조절기능 / 쾌적난방 / 양면방사 전환기능



역화1호 22평형
소비자가 : ~~₩850,000~~
특별보급가 : ₩690,000
SBH-011 TSI
- 발열량 : 10,000Kcal/h
- 탱크용량 : 45ℓ
- 연료소비량 : 1.02~1.35ℓ/h
- 외형치수 : 950×305×1,180mm
- 자동확인 LCD창
- 리모콘 조절
- 사용전원 : 220V 60Hz
- 미니소음기 및 연통

역화2호 32평형
소비자가 : ~~₩980,000~~
특별보급가 : ₩790,000
SBH-041 TMI
- 발열량 : 14,000Kcal/h
- 탱크용량 : 45ℓ
- 연료소비량 : 1.46~1.80ℓ/h
- 외형치수 : 950×305×1,350mm
- 자동확인 LCD창
- 리모콘 조절
- 사용전원 : 220V 60Hz
- 미니소음기 및 연통

신일 전기온풍기



역화3호 6~7평형
특별보급가 : ₩188,000
SBH-3000 CTI
- 최대발열량 : 2,600Kcal/h
- 소비전력 : 강 3,000W, 약 1,800W
- 외형치수 : 390×330×846mm
- 2중 안전장치, 이동형바퀴 채용
- 강 약 터보 풍속조절, 7시간 30분 타이머
- 음이온 발생
- 리모콘 타입
- 프리+헤파+카본필터 채용

신일 원적외선 세라믹 히터

좌우회전기능 / 2단계 강약조절 / 상하각도조절기능 / 전도소화장치 / 과열안전장치



역화4호
소비자가 : ~~₩60,000~~
특별보급가 : ₩48,000
SEH-961 BCT
- 발열량 : 820Kcal/h
- 3시간타이머



역화5호
소비자가 : ~~₩52,500~~
특별보급가 : ₩42,000
SEH-900 WBK
- 발열량 : 820Kcal/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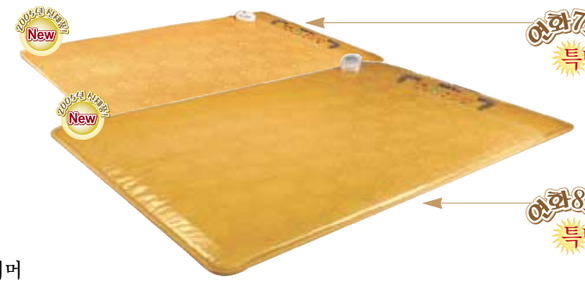


역화6호
소비자가 : ~~₩65,000~~
특별보급가 : ₩52,000
SHE-800 HGK
- 발열량 : 780Kcal/h
- 3시간타이머

신일 원적외선 할로겐 히터

Nikko 금나노 웰빙 매트

금나노 코팅으로 항균처리된 Well-being 시대의 맞춤 제품



역화7호
특별보급가 : ₩98,000
WW-214S (1인용)
- 사용전원 : AC 220V/60Hz
- 소비전력 : 180W~190W
- 제조국 : 한국
- 규격 : 1,000×2,000

역화8호
특별보급가 : ₩115,000
WW-215D (2인용)
- 사용전원 : AC 220V/60Hz
- 소비전력 : 180W~190W
- 제조국 : 한국
- 규격 : 1,000×2,000

제품 특장점
금나노 코팅으로 항균·멸균작용 / 세련된 디자인으로 신개발된 조절기 사용 / 건강·웰빙시대에 적격한 제품 / 100% 완전 방수천 / 최고온도 70℃에 비해 저렴한 전기세로 난방효과 최적격

달마도의 대가 범주·고당스님 달마작품 특별 보급전

고당스님 작품



선서화 백자 도자기
~~₩250,000~~ → ₩120,000
우리나라 선서화의 최고 권위자인 선필고당스님의 작품으로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용문, 가족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거북문, 만사형통을 비는 축원문을 도자기에 담아 작품으로 만든 선서화도자기임



용문 달마 흑자 도자기
~~₩250,000~~ → ₩120,000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용문과 달마도를 금분으로 도자기에 담은 최고급 작품도자기



달마도 백자 도자기
~~₩230,000~~ → ₩110,000
백자에 금분으로 달마도와 반야심경을 그대로 담았으며 보기만 하여도 신비함과 중후함이 느껴지는 최고급 작품도자기



용문 달마 흑자 도자기
~~₩230,000~~ → ₩110,000
흑자에 금분으로 달마도와 반야심경을 그대로 담았으며 보기만 하여도 신비함과 중후함이 느껴지는 최고급 작품도자기



친필 달마도 족자
~~₩150,000~~ → ₩99,000

범주스님 작품

범주스님 달마작품 수익금의 일부는 사할린 우리말방송국돕기 성금으로 쓰여집니다.



달마도청자도자기
~~₩230,000~~ → ₩120,000
30여년간에 걸쳐 수행 참선과 달마도 선묵화 해오신 범주스님께서 한점 한점 축원을 담은 친필 달마도를 소장하기 좋게 청자도자기에 담아 선의 정신을 전달하여 맑고, 밝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별사은품



범주스님 친필휘호



포대화상백자도자기
~~₩230,000~~ → ₩120,000
30여년간에 걸쳐 수행 참선과 달마도 선묵화 정진을 해오신 범주스님께서 한점 한점 축원을 담은 친필포대화상도를 백자도자기에 담은 것으로스님의 상스러운 기(氣)에 의해 맑고, 밝은 기운만을 불러들여 복(福)이 가득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별사은품



범주스님 친필휘호



전선달마도접시
₩50,000
■ 31cm × 3.5cm

순금카드세트
₩40,000
■ 5.1cm × 8.6cm



포대화상접시
₩50,000
■ 31cm × 3.5cm



친필달마도 액자
~~₩380,000~~ → ₩198,000

특별사은품



전신달마도접시 + 순금카드세트



날마다좋은날되서



서기운집



용맹정진



일체유심조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국민 006-010785-361 농협 053-01-265785 우체국 010041-01-01221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